



8

1995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5. 8호

(루계 574)



◇◇◇◇◇◇◇◇◇◇

## 차 례

◇◇◇◇◇◇◇◇◇◇

8 월 15 일은...	4
2000 년의 분출	5
영생의 불빛	16
《개선》호는 다시 떠난다	17
<b>김일성</b> 주석을 노해하노라	26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 민족의 태양 <b>김일성</b> 장군전설	27
친애하는 지도자 <b>김정일</b>	29
해와 달이 흐를수록	30
《사향가》를 들으며	31
우리의 영생	32
꽃강냉이 한이삭을 놓고	33
승리자의 추억	34
벼락맞은 《청와대》	35
동트는 새벽에	38
자전거산보	39
《 <b>김일성</b> 장군 만세!》	40
머리를 숙이노라	43

류다섬 (외 1 편) .....	44
나는 알았네 .....	44
인민이 호응한다 .....	45
명제해설 .....	46
청춘들의 심장은 높편다 .....	47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 .....	48
통일념원 합토여 .....	53
찬란한 아침 .....	54
벌거벗은 아메리카 .....	65
근대아동문학의 개척자 소파 방정환 .....	66
개선문 .....	69
폭 로 .....	70
마음속엔 《탄약상자》 .....	80

## 8월 15일은...

김응하

머슴살던 형님  
《보국대》갔던 아저씨도  
우물집아주머니 가게방령감도  
《해방이다!》  
눈물속에 울고 웃으며  
《김일성 장군 만세!》 목터지게 부르며  
거리가 메여지게 달려나오던  
8월 15일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도록  
솔뿌리를 캐려  
산에 오르지 않게 된것이 기뻐  
《빠가야로!》 《월사금》을 못가져왔다고  
매와 함께 채찍처럼 내리치던  
욕설을 듣지 않게 된것이 너무 기뻐  
나도 덩달아 만세를 부르며  
어른들의 뒤를 따라섰던  
8월 15일

그날엔 미처 다 몰랐다  
내앞에 얼마나 밝은 세상이  
저 하늘 끝까지 열려져있는지  
얼마나 큰 시련과 상상할수 없는 희생의 대가로  
노예에서 주인으로  
놀라운 운명의 전환  
재생의 환희가  
나에게 차례졌는지

미처 몰랐다  
눈보라, 밀립  
민족을 구원하시려  
우리 수령님 헤쳐오신  
장장 수십성상 피의 길-

철이 들어야  
아버이 수고를 아는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욱 뜨겁게 깨닫게 되는  
아버이수령님의 한없는 사랑

헤아릴길 없는 그 로고-  
해마다 8월 15일이 오면  
끝없는 감사의 노래되어  
가슴에 깊이 더 깊이 젖어들더니

올해는 신변째로 맞는  
8월 15일  
못다 바친 효성을 다해  
이날만은 이날만은  
아버이수령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려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고 했건만  
아 이제는 이날이  
아버이 그리움에 가슴젖는 날인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아버이수령님 바라신것은  
우리만의 8월 15일이 아니었으니  
온 겨레에게 이날을 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험한 논두렁길을 걸으시였으니

8월 15일  
이날은 깨우쳐주노라  
재생의 그 은덕  
그날의 환희 오늘의 행복  
우리만이 누려서는 안된다는것을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  
온 민족에게 안겨주실  
통일의 그날  
그날을 위하여  
아버이수령님 찾아주신 이 한목숨도  
서슴없이 바쳐야 함을  
못다 바친 효성을 다하는 자식의 도리가  
그 길에 있음을 깨우쳐주노라  
8월 15일은  
8월 15일은...

## 2000 년의 분출

한익훈

1993년 9월초의 바람세찬 밤이었다.

삼경이 지난지도 이속하다. 하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불밝은 집무실에서 두터운 단군릉발굴자료를 두번씩이나 련이어 보고계시였다.

원주필로 밑줄을 긋기도 하고 의문표식도 해가며 다시 칸칸이 보아도 좀처럼 의혹스러운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으시였다.

글줄마다에서 력사학자들의 애바른 고충이 숨김없이 내비치는 발굴자료에 의하면 우선 무덤이 고구려양식의 돌칸흙무덤인데다가 모처럼 얻어진 금동왕관앞면의 세움장식이며 돌림띠조각, 금동띠의 패쪽과 여러개의 도기조각들도 모두 고구려시기의것으로 짐작되고... 그러니 나중에 발굴된 두사람분의 뼈가 고착해서 고구려시기(그것도 이제 감정해봐야 할 일이지만.) 그 누구의 무덤으로밖에 추측할수 없다는것이였다.

그이께서는 탁상등불빛을 눈부시게 받고있는 자료의 밑줄이 그어지고 의문표식이 있는 부분들을 다시 눈여겨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천천히 창가에 다가가시였다.

창문너머의 밤하늘에서 때없이 류성이 길다랗게 흘러내리다가 사라져버린다.

어쩐지 그이께서는 저 류성처럼 반만년전에 한순간 번쩍이다가 자취를 감춘 단군을 찾아내는 고대력사학이 참으로 어려운 학문이라는 생각이 드시였다.

지난해말에 력사학자들이 올린 단군에 대한 자료를 볼 때만 하여도 그이께서는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는가싶어 여간만 기쁘지 않으시였다. 고조선의 문화를 대표하는 고인돌무덤이나 비파형단검 그리고 단군전설이 집중되어있는 평양근방에 혹시 반만년민족사를 까밝혀줄 단군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해오셨었는데 정작 강동군 대박산에 단군릉이 있었다지 않은가.

그이께서는 어쩌면 그 단군릉이 력사학계가 아직도 단군조선의 력사적뿌리를 기원전 10세기에서 더 끌어올리지 못하고있는 2000년의 미지수를 한순간에 밝혀줄것 같으시였다. 그렇게 되면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라는것이 명백해지고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오래전부터 살아왔다는것이 실증될것이 아닌가. 따라서 련면히 계승되어온 고구려, 고려 시조왕들의 무덤이 다 확증되어 우리 민족의 발상지를 론증하는데서 위력한 증거를 가질수 있을것이였다.

그처럼 중요한 룡을 왜 여태껏 발굴해보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 자료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있었다.

《...여러 옛문헌들에 단군릉의 위치와 모양, 크기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있으며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단군의 무덤으로 간주하고 제사지내왔을뿐아니라 지난 시기 일제침략자들이 여러차례나 그 무덤을 도굴한 사실로 미뤄보면 전혀 허황한 무덤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룡동지방에 있었을것이라는 견해가 력사학계에서 주지의 사실로 되어왔으므로 그것을 단군릉으로 믿을만한 신빙성은 허약합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료를 보신 즉시에 해당부문 일군들을 찾아 우리 인민이 수천년동안 단군 무덤으로 믿어온, 반만년민족사와 관련된 그 귀중한 룡을 아직 발굴해보지도 않고 부정하는것은 민족주체성의 견지에서 볼 때 매우 그릇된 립장이라고 준절히 깨우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지체없이 단군릉발굴사업이 온 나라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서 진행되였던것이다.

그런데 관록있는 고대력사학자 강진국박사를 책임자로 하여 무어진 위력한 발굴진이 보름간이나 힘들게 진행한 발굴결과와는 과연 어떤가? 더 론할여지없이 고구려시기 그 누구의 무덤으로밖에 볼수 없다는것이니 이런 분한 일이 어디 또 있겠는가.

그이께서는 눈보라질하는 정원을 바라보며 가버운 한숨을 내그으시였다.

뿐만 눈가루속에서 파르르 떨고있는 외등불빛, 컴컴한 자태를 드러내고 묵묵히 서있는 나무들... 모든것이 늘 보던 그대로이다. 하나 팔십고령의 한생애 한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절박한 안타까움과 초조감 그리고 불안비슷한 야릇하고 허전한 감정이 엄습해들면서 그이의 심정은 몹시도 산란하시였다.

(그러니 우리 인민이 오랜 세월 고구려시기 그 누구를 단군으로 잘못알고 숭상해왔단 말인가?) 그이께서는 이윽히 생각에 잠겼다가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저으시였다.

(아무렴 우리 인민이 그렇게도 엄청나게 혼돈했겠는가. 뭐니뭐니해도 우리 인민이 민족시조의 무덤으로 믿어온 룡에서 유골이 나온것을 중시해야 한다. 그 유골이 누구의것인가 하는것만 확증되면 고구려양식의 무덤이나 유물은 저절로 자기의 비밀을 드러낼것이다.)

그이께서는 팔목시계를 들여다보시었다.  
벌써 새벽 3시가 가까와온다. 부관더러 강진국 박사를 만나고싶어 데려오도록 한게 불과 몇십분 전의 일이었던만 못내 안타깝게 기다려지신다.

좁전에 일이 실통치 않음을 자료에서 보고 저  
으기 마음이 서운해지는 순간에 그이께서는 강진  
국을 생각하시었다. 이번 일에 평생의 기대를 걸  
었을지도 모르는 그가 모름지기 크게 실망하고있  
을것만 같으시었다. 그래서 만일 강진국이 잠들  
지 못하고있으면 자신한테로 데려와달라고 이르  
시었던것이다. 그의 시름을 덜어도 주고 단군릉  
발굴결과를 두고 진지한 의견도 나누고싶으시었  
다.

(참 그를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였더라?... 그  
래 구월산부근의 어느 농촌마을에서였지. 그러니  
벌써 30년전의 옛일이구나. 세월두 참 류수광음  
이라더니...)

대기조차 구수한 낱알냄새로 진동하는 가을날  
의 저녁, **김일성** 동지께서는 벼랑가리들이 높이  
쌓여있는 탈곡장을 지나 불빛아린 관리위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서시었다.

마을늙은이들과 마주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키  
가 꺾두룩한 웬 50대의 장정이 황황히 일어나 꾸  
벅 인사를 했다. 그가 바로 황해도지방에서 새로  
발굴된 고인돌무덤들을 고증할 임무를 받고 왔  
던 걸음에 구월산의 단군전설을 수집하는중이던  
강진국이였다.

《단군전설은 무엇때문에 수집합니까?》

그이께서는 귀맛이 당기여 낮은 책상에 한팔을  
얹고 갈조전바닥에 허물없이 앉으시었다.

저쪽은 난치한 얼굴빛을 짓고 헛기침만 깃다가  
짓눌린 목소리로 주저주저 힘들게 입을 뗐다.

《얼마전에 전 충분한 과학적립증자료도 없이  
갑히 단군이 실재한 인물일수도 있다는 논거를  
주장했다가 학계에서 큰 웃음을 샀습니다. 무력  
대고 벽을 문이라고 내밀었으니 정말 우직한 행  
동이였습니다.》

《웃음을 샀다?... 그래도 무슨 근거가 있었기에  
벽을 문이라고 내밀었을까 아닙니까?》

그이께서는 깊은 눈확속에서 지혜로운 두눈이  
정기를 뿜는 강진국이 아직 고고학적으로 충분한  
립증자료는 못가졌지만 자신께서 은근히 마음쓰  
는 단군조선의 반만년력사를 찾으려는 그 마음이  
고맙게 여겨지시었다.

《별로 뚜렷한 근거라고 한건 못되지만 저로서  
는 고구려의 건국시조 주몽이나 백제, 신라, 가야  
의 온조, 박혁거세, 수로들이 다 건국신화를 가지  
고있는데 왜 반만년민족사의 시조인 단군만이 유  
독 신화적감투를 벗지 못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  
을 좀처럼 지울수 없습니다. 일체침략자들이 단  
군신화가 허황한것이라면서 우리 고조선의 력사

를 짓몽개버렸었는데 우리 력사학계까지도 단군  
을 그냥 신화적, 전설적 인물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이였습니다.》

《웁습니다. 동무는 정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침  
략자들에 의해서 말살되였던 민족시조를 찾자는  
그 마음이야 백번 찬양받을만한것입니다. 나는  
간악무도한 일제놈들이 우리 단군조선의 력사를  
무참히 짓밟아버린것을 생각하면 분격을 금할수  
없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격노하신 우렁우렁한 음성이 방  
안을 드르렁 울리었다.

치받쳐오르는 의분을 진정하지 못하며 담배를  
피워무신 그이께서는 한동안이나 별무리가 한가  
득 비껴든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  
였다.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력사  
적으로 합리화하려고 일체침략자들은 얼마나 흉  
악무도하게 날치였던가.

조선민족의 《열등성》과 일본 야마도민족의 《우  
월성》을 조작설교하자니 그놈들은 저들의 허황한  
건국신화에서 전하는 국가기원년대보다 훨씬 앞  
서게 되는 단군이 큰 골치거리였다. 그리하여 일  
제는 헌병들을 내세워 우리 나라 전국 각지의 책  
방들과 향교, 서원, 개인집들을 살살이 뒤져서 단  
군관계서적을 포함한 조선고대사부문의 력사책들  
을 수십만부나 빼앗아 불살라버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러댔다. 이것은 력사에 알려진 진시  
황의 《분서갱유》나 히틀러파쑈분자들의 분서란  
동을 초월하는 희세의 야수적인 만행이였다.

그뿐아니라 일제는 조선사람의 넋을 깡그리 빼  
앗으려고 침략적인 력사위조기관인 《조선사편수  
회》를 조작하여 거기서 편찬한 이른바 《조선사》  
에서 근 3천년에 걸쳐 룡성발전한 부국강병의 단  
군조선력사를 말살해버렸는가 하면 우리 학생들  
에게 단군을 가르치는것은 물론 우리 인민들이  
단군을 숭배하는것마저 철저히 엄금했다. 그 실  
례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의 토착종교로 창시된  
대종교가 단군을 천왕으로 신봉한다고 하여 구월  
산의 단군사당인 삼성사에서 진행되는 단군제사  
의식을 강제해산시키고 삼성사를 폐쇄한 야만적  
행위였다.

우리 민족사의 첫머리를 빛나게 장식한 고조선  
의 시조 단군의 력사적사실을 거세하려고 미쳐날  
뛰 일제의 악랄한 책동을 어찌 한순간에 다 헤아  
릴수 있겠는가.

《생각할수록 가슴에 피가 차는 일입니다. 일제  
는 우리 조국과 민족 앞에 천추에 지울수 없는  
대죄를 졌습니다.》

손등으로 책상을 탕 울리며 분을 터뜨리시는  
그이의 안광에서는 마주보기가 두려운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였다.

《전대미문의 파렴치하고 악랄한 일제의 단군말

살책동에 의하여 단군을 실재인물로, 우리 민족사의 원시조로 인식하여오던 조상전래의 전통적인 관념이 점차 사라졌으니 이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만일 우리 민족이 강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더라면 단군조선의 역사연구에서도 상당한 전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우리 민족시조를 찾으려고 애를 태우는 동무를 여기서 뜻밖에 만날 줄이야...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수령님...》

강진국은 별걸개 동한 뒤더수기를 매만지며 짓은 웃음을 지었다.

《다시는 귀배팔모라고 거북의 등에서 털을 구하려는 부질없고 무모한 실책으로 남에게 굶잡히는 짓을 안하겠습니다. 수천년동안 신화로, 전설로 전해져내려온 단군건국기에서 단군을 실재한 인물로 조급하게 끌어내오자고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시기상조라는것이 이런 때에 이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

**김일성** 동지께서는 서운한 안색을 지으시었다.

상처입은 자존심을 이겨나가려고 애를 태우는 듯싶어 여간만 장하고 대견하지 않았는데 강진국이 신심이 없어하니 몹시 마음이 언짢아지시었다.

《단군을 실재한 인물로 부활시키는 일이 이르다는 말인데 그와 정반대로 매우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이 광복된지도 인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력사학계는 우리 민족사의 뿌리를 똑바로 정립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혁명을 시작한 첫날부터 조국을 광복한후 우리 민족의 녀이라고도 할수 있는 단군조선의 반만년력사를 반드시 찾으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조국광복회창립선언에도 반만년의 유구한력사를 가진 슬기로운 우리 인민임을 강조했고 해방후 애국가에도 반만년 오랜 력사라는것을 꼭 밝히도록 했습니다. 나는 우리 민족사의 반만년을 굳게 확신합니다. 동무가 학계에서 선뜻 인정해주지 않는것이 두려워 참담게 내짚은 걸음을 주저하면 그만큼 반만년의 민족사를 정립하는 일이 더디어집니다.》

《수령님!》

강진국은 별걸개 달아오른 얼굴을 두어깨밀오로 꼭 떨구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수령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유구반만년의 우리 민족사를 정립하기 위해 연구를 더 깊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언젠가 동무가 꼭 단군이 우리 민족사의 반만년을 안은 실재인물이라는 과학적인 논거를 가지고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떨치게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이께서는 생각지도 않게 오늘 단군연구를 필

생의 목표로 삼은 력사학자를 만난것이 큰 행운처럼 여겨진다면 강진국의 어깨를 껴안고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황해도의 농사작황을 좀 보려고 왔다가 동갑나이의 귀중한 벗을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소. 동무가 신심을 잃지 않으니 기쁘오, 정말 기쁘오.》

《수령님!》

강진국은 북받쳐오르는 걱정예 목이 메여 그만 수령님의 품에 안기여 어깨를 떨었다...

문기척소리에 **김일성** 동지께서는 깊은 사색의 심연에서 깨어나시었다.

부관이 조용히 다가왔다.

《수령님, 강진국박사가 도착했습니다.》

《왔구만, 어서 만나봅시다.》

《수령님께서 걱정하신대로 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거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니 잠이 올게 뭐가.》

이윽하여 백발의 머리에 불살이 꺼진 길쭉한 얼굴의 강진국이 방에 들어섰다. 등이 약간 휘여든 꺾은 키에 휘줄근하게 치진 두어깨, 허영게센 수북한 눈썹밑으로 깊이 꺼져들어간 피발이 선 두눈... 그이께서는 반기며 강진국의 팔을 이끌어 자리에 앉히고 자신께서도 그옆에 자리잡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년로한 몸에 대한가위의 추위속에서 외지에 나가 수고하느라고 몹시 수척해졌는데 어디 아픈데는 없는가고 다정히 묻고나서 앞날의 자료묶음을 끌어당기시었다.

《아픈데가 없더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두사람분의 유골이 고구려양식의 무덤에서 나왔다니 말입니다.》

강진국은 눈길을 떨고 경련이나 인듯 부들거리는 두손으로 무릎을 쓸었다.

《수령님, 기대하신대로 일이 잘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강진국동무, 나는 동무를 나무람하라고 찾은게 아닙니다.》

그이께서는 손을 내저으시었다.

《단군발굴결과가 너무 뜻밖이어서... 그래서 사실 동무와 이야기나 좀 나누고싶어서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령님!... 행여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단군릉이 그렇게도 매정한 모습을 드러낼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고구려양식의 돌칸흙무덤만 아니라 해도 좋았었는데...》

강진국은 목소리가 갈리어 불같은 한숨으로 뒤말을 사무리었다.

《역시 묘지양식이 문제란 말이지요. 혹시 고구려시기에 단군묘를 자기네 식으로 이개축했다고 볼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강진국은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내 생각에는 묘지양식이나 유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두사람본의 뼈가 나온것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유골문제로 해서 전 여기로 오기전에 본의 아니게 딸자식을 울리기까지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딸을 울렸다는건 무슨 말입니까?》

《수령님,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일이지만 단군릉이 너무도 무참히 기대를 저버린게 안타까운 나머지 제가 리성을 잃었던탓입니다. 단군연구에 평생을 바쳐온것을 후회까지 했으니 희망하던 무용도 포기하고 혼기까지 놓치면서 절 도와나선 딸자식이... 수령님, 제가 그만 망녕이 들었었습니다.》

《가만 가만 강진국동무, 진정하십시오. 나는 지금 좁 동무의 그 귀염둥이 딸이 무용계에서 한몫할 줄로 알았는데 혼기까지 놓치면서 동무의 단군연구를 돕는다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것 같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저오기 의아쩍은 눈길로 강진국을 바라보시었다.

어느새 그이의 육친적이고 따뜻한 인자함과 너그러움에 스스럼없이 끌려든 강진국은 마음속깊이에 간직된 천만가지의 시름겨운 일들을 일시에 죄다 아뢰고싶은 충동에 다잡혔다...

강진국이 울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에는 어지간히 밤이 깊었다.

기진맥진해서 제 방의 팔걸이의자에 몸을 묻는데 십년가까이나 아래벌인 안해가 홍차를 끓여가지고 들어왔다가 항공편으로 온 편지봉투를 내주었다.

《옛그제 왔어요. 천홍세 그분이 보내오셨군요.》

강진국은 순간에 닥치는 반가움으로 해서 금시 우울해있던 얼굴이 확 밝아지며 부들거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천홍세!... 그는 매해 한번씩 조국에 들려가는 것을 어기지 않는 중학시절의 지기이다.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기업이 파산당하자 그는 오래전에 남녘땅을 떠나 지금 저 남아메리카의 한 교외도시에서 자그마한 레코트회사를 경영하고있다. 우연히 《조선》화보를 통해서 역사학 후보원사에 교수, 박사인 강진국에 대한 사진과 기사를 보고 천홍세가 옛지기를 찾아온것은 3년전이었다.

황해도땅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난 강진국이 나이들어 소학교를 마치고 향학열에 불타서 서울에 올라가 고학으로 중학교를 다닐 때 변변찮은 기업가의 아들인 천홍세(그도 병으로 신고하다가 스무살을 넘겨서야 중학교에 들어왔다.)가 이모저모로 많이 도와주었다. 둘이 다 나이가 많았던 사정도 있었지만 장차 역사학에 정통하여 잃어진 단군을 찾는데 한생을 바치려는

강진국의 뜻높은 열망이 대종교의 신자인 천홍세와의 우정을 두터이했는지 모른다. 그는 지금도 대종교의 신자로서 단군천왕을 착실히 숭배하고 있다.

어느 력사시간이었다. 알팍한 은테안경을 코에 건 말상의 일본인력사교원이 일본이 조선에 와서 10여년간에 걸쳐 30여권이나 되는 방대한 《조선사》를 편찬해주어 《렬등한》 반도인들도 이제는 자기의 력사를 체계화할수 있게 되었으니 마땅히 감지덕지하게 여겨야 할것이라고 지껄여댔다.

당장 속이 뒤틀려오른 강진국이 울컥 자리를 차고 일어나 그 알량한 《조선사》에 금구무결의 위력을 가지고 3천년간 룡성변영해온 단군조선의 력사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는데도 감지덕지하게 여기라니 말도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뜨리었다. 하자 그자는 단군이란 한갓 꾸며낸 신화적인물이기때문에 단군조선이란것은 존재한적이 없는 허황한 나라라고 억죽거리며 씨부령대었다.

《아니, 그것은 너무도 파렴치한 망언이요.》

강진국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듯한 분노의 아픔에 심장이 조여들고 손이 떨렸다. 그는 커다란 주먹등이 터져서 피가 흐르는것도 아랑곳 않고 책상을 탕탕 두드리며 울분을 토했다.

《당신이 요즘 나온 〈동아일보〉를 보거나 했는가? 거기에는 〈단군룽수축기성회〉가 발족되어 저 평양 강동의 단군릉을 수축하고있다는 자랑스러운 소식이 실렸소. 슬기로운 우리 민족사를 모독하는 당신은 당초에 력사교원이 아니라 력사의 위조자요, 당장 사죄하고 교단에서 물러가시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하여 학교에서 쫓겨난것은 일제의 어용력사교원이 아니라 강진국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진국은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의 소식을 좇아 우선 평양의 강동으로 갔다.

매마침 번듯하게 수축된 단군릉에 술한 사람들이 하얗게 모여들어 붐비었다. 사진사를 초청하여 단군기적비앞에서 기념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강진국은 단군의 업적을 높이 찬양한 기적비의 글자들을 가슴울렁이며 한자한자 뜯어보았다. 부지중 반만년의 원시조인 단군이 일제침략자들에 의해 말살되고있다는 참을길없는 분통이 끓어올라 그는 기적비를 와락 그러안고 태를 치며 울었다. 단군을 부르며 오열을 터뜨린 이름모를 청년의 모습에 몹시 감동되었던지 사진사가 철컹 한장을 눌렀다. 지금도 누렇게 퇴색한 그 사진을 볼 때면 당시의 울분이 그대로 살아올라 가슴이 뻘근해진다.

고향으로 돌아간 강진국은 농사를 짓는 한편 깊숙이 간수한 옛적의 력사문헌들을 달창이 나게 보면서 제나름대로의 조선고대사연구에 전심전



력했다. 그러다가 해방후 서른살을 넘긴 장정나이에야 **김일성** 종합대학 역사학부에 입학하였었다...

《영?!》

알팍한 미농지우에서 흐르고있는 눈에 익은 글자들을 더듬어나가던 강진국은 갑자기 가슴이 후두둑 떨리었다.

천홍세가 편지를 심장병원에서 쓴다는것이 아닌가. 워낙 가지고있던 심장발작증이 심해졌는데 의사들은 1년간 까박 움직이지 말고 몸조리를 잘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어마어마하게 위협한다, 그래서 아마도 이해에는 조국에 가볼것 같지 못하다는것이였다.

답답한 마음에 행여 위안이라도 될줄 알았던 천홍세의 편지에서 불길한 사연을 접한 강진국은 완전히 녹초가 되어 의자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었다. 순간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17세기 무명화가의 그림속자인 《룡을 낚는 사나이》가 기다리거나한듯 그의 시선을 잡아끌었다.

나무와 바위너설에 두발을 역세게 뻗디디고 긴 낚시대로 신비스런 룡을 낚는 텃석부리사나이, 인젠 룡을 끌어내치기만 하면 되는 저 사나이가 정말 부럽다. 아직 자신은 단군을 신화와 전설속에서만 찾아해매는 불우한 처지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적지 않은 친지들이 역사학연구에서 너무도 고집스럽고 끈질기다 하여 《곰》이라는 별명까지 듣고있는 그더러 단군을 찾는 일이 평생에 실현할수 없을지도 모르는것인데 그만 포기해버리라고 진정으로 권고했다. 하늘의 별을 따오겠다는 부질없고 무모한짓이라고 뒤에서 횡설수설하는 축들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로는 지향한 목표를 향해 꺾끗이 나아가는 담이 크고 정열적인 만만찮은 《곰》에 대해서 동정어린 감동을 표했다.

보름전에 강동으로 떠날 때만 하여도 강진국은 저 텃석부리사나이에게 의기양양해서 호통질했다.

《이사람 텃석부리, 입자만 룡을 낚는다고 뽐내지 말라구. 어쩌면 우리도 이번에 유구만만년력사에서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 2000년을 낚아낼것갈네.》

그런데 애절한 기대를 참혹하게 문질리운 처참한 꼴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래, 입자, 기고만장해서 떠나가더니 도대체 뭘 큰길 낚아냈나?》

족자속의 텃석부리가 코방귀를 끼며 비웃는듯싶어 강진국이 장탄식을 하며 머리를 싸쥐는데 방문이 소란스럽게 벌럭 열리면서 키가 시원하게 쭉 빠진 딸 미화가 숨이 턱에 닿아 헐떡이며 달려들어왔다.

《아버지, 걱정하시던 문제가 풀릴것 같아요.》

《?!...》

강진국은 뉘나간듯 멍한 눈빛으로 딸을 쳐다보았다.

《아버지, 너무 실망하실건 없어요. 지금껏 저희들이 룡에서 가져온 토양을 초보적으로 분석해보았는데 단군룡이 석회암지대에 자리잡았고 또 그 룡의 토양이 중성이기때문에 뼈가 화석화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지층에서는 2백만년을 헤아릴 정도로 오랜 사람의 뼈도 보존된 사실이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강진국은 한순간 그 어떤 행운에 대한 절박한 기대에 차서 두눈을 빛내이다가 다시 한숨을 지었다.

《고맙다 애야, 이 아버지의 피로운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네가 여태껏 인류학연구실에 불박혀있었구나.》

강진국은 딸의 착한 마음이 눈물겨웁게 헤아려지면서 눈시울이 확 달아올랐다.

《아버지, 뼈가 보존될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이상 그 유골이 단군의것일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야.》

강진국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표지양식도 그래 유물들도 그래 모두 고구려때의것이거든. 허니 결국 그 유골은 고작 오랜것이라 해도 고구려 그 누구의것일게다.》

《그렇다면 아버지...》

당장 올라가미 되여 곧추 바라보는 딸의 두눈귀에 알릴듯말듯한 잔주름살들이 잡힌것을 띄여보는 순간 강진국은 흠칠 몸을 떨었다. 어쩌면 선살가까이에 이르러서야 늦둥이로 본 저 외딸이 인물잘나고 똑똑하기로 소문났건만 서른살을 넘기도록 여태껏 혼사를 이뤄주지 못했던가 하는 미묘하고 날카로운 애수가 찌릿하게 가슴속을 저미는것이였다.

담알형의 살색고운 얼굴에 목이 상큼하게 빠지고 한쪽편만이 쌍가풀이 진 크고 맑은 눈 그리고 도톰한 작은 입에 늘 발랄한 웃음이 떠도는 당돌하고 고집스런 딸 미화는 유치원시절부터 무용을 잘했다. 어느해인가 설맞이공연때에는 독무를 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치하를 받았으며 중학교시절에는 전국학생소년들의 예술축전에서 특출하게 무용을 잘하여 1등을 한적도 있다.

사람들은 그가 장차 나라의 무용계에서 한몫할것이라고 장담했고 음악무용대학에서는 그를 데려다 키울 속심을 내놓고 말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딸의 전망이 너무도 확고하고 현란한것이어서 강진국도 여간만 마음이 흐뭇하지 않았다.

그 딸이 중학교를 졸업할무렵의 어느날 저녁에 갑자기 아버지처럼 역사학을 전공하겠다고 고집부렸다. 왜 그처럼 열렬히 희망하던 무용을 쫓겨버린다는거냐며 강진국은 아연해서 짐짓 엄한 억양으로 물었다.

딸의 대답인즉 며칠전에 쉰 60돌 생일때에야 아버지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굳이 확신하시는 우리 민족사의 반만년을 지금까지 정립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피로와하고있음을 알았다는것, 그래서 자기도 력사공부를 착실히 해서 아버지를 돕겠다는것이였다.

강진국은 두눈뿌리가 쿡 쭈서났다. 귀염둥이 철부지로만 여겨왔던 딸자식이 너무도 대견하고 어른스럽지 않은가.

사실 강진국은 필생의 목표를 성취하지 못한 뼈아픈 자책감때문에 환갑연이 다 뭐냐고 한사코 손을 내저었다. 그런데 안해와 친척들이 무가내로 우겨서 별수 없이 예순다섯나이생일날에 소박한 환갑연을 맞았다. 그때 취중에 70나이를 눈바투 바라보는 인생행로를 더듬으며 제 가슴속을 어이는듯하는 고충까지 솔직히 털어놓았던것 같다. 그게 딸의 가슴에 웅이처럼 맺혀 이처럼 큰 용단을 내리게 하는 충동으로 되었으니 놀랍기도 하고 후회막심하기도 했으나 통털어 장한 딸을 두었구나하는 기쁨으로 목이 콕 메였다.

그 딸이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한지도 어언 십년세월이 넘었다. 지금에 와서 딸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언제인가는 선뜻 미궁속의 심연같은 비밀을 드러내고야말것이라는 광망적인 생각으로 흥분하는 초학도가 아니다. 그래서 가끔 통삼아 자신이 그냥 무용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대단한 무용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했다. 그런 딸을 강진국은 조금도 나무람게 생각하지 않았다. 되려 딸의 찬란한 장래가 자신으로 하여 실현될수 없었다는 야릇한 상실감이 가슴이 아팠고 몹시 미안한 생각까지 들곤한다.

인물잡난 처녀들이 항용 당하기 마련이지만 깨끗한 총각들이 앞다투어 미화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하지만 미화는 한사코 도리머리질을 했다. 아직 단군을 찾지도 못했는데 원 내가 벌써 시집을 가다니... 랑정하게 앵돌아져버리는세에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 그만 혼기를 놓쳐버렸다.

그랬던 미화가 지난해 구월산에 올라가 단군유적들을 조사발굴하다가 그만 벼랑턱이 허물어져 내리는바람에 나딩굴었는데 그를 들쳐업고 내쳐 병원까지 달려간 제대군인 로총각과 뜻밖에 정분이 났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의 졸업생인, 말이 적고 건장한 그 총각은 유적들을 개건복구하는 평양 어느 기업소에서 일하고있다...

《결국은 그 룡이 단군의것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

강진국은 목구멍이 지지는듯 아파나서 헛기침만 잦았다.

《그러니 지금껏 사람들이 가짜단군을 숭배해왔

단 말씀이지요?》

《슬픈 일이지만 그렇게밖에 대답할수가 없구나.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는 단군이 더는 어쩔수없이 허황한 인물이었다는것을 자인해야 하는 자신이 더없이 가련하게 여겨진다.

나는 오늘 평생 처음으로 하늘에 발붙이는 재주도 없는 주제에 하필이면 단군연구에 미련을 가지고 달라붙었을게 뭐냐 하는 후회를 했다. 갈 길은 룡원한데 인제는 인생의 저물녘에 선 자신이고보니 눈먼 중 갈밭에 선 심정이구나.》

《아버지!》

갑자기 딸이 애절한 목소리로 짜내는듯 부르짖고 있는 맥을 잃고 풀썩 주저앉으며 강진국의 두손을 잡아흔들었다.

《그럴수 없어요. 아버진 지금 진실을 말씀하시는게 아니지요?... 기분이 상해서서 거짓을 말씀하시는거지요?... 그렇지요, 아버지?》

단아하던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고 눈물에 젖어 이그러진것을 마주보는 순간 강진국은 가슴이 쩡 얼어드는것 같았다.

간절한 기대와 공포와 원망의 빛이 한데 어울려 허둥거리는 두는, 바로르 떨고있는 자그마한 입술... 강진국은 자신의 실책을 놀라움게 의식했다. 함부로 내비치지 말았어야 할 속마음을 너무도 속절없이 쏟아놓은것이다. 이 아버지를 돕겠다고 현란한 미래가 약속된 희망과 포부를 단호히 철회하고 력사학에 스스로없이 뛰어들었고 혼기까지 놓친 귀중한 딸에게 자신이 이제껏 한 말이 모두 날카로운 비수로 되었을것이라는 생각에 몸서리가 치졌다.

《애야, 용서해라. 이 아버지가 인젠 망녕이 들었나보다. 실없는 소리를 망탕 चे치는구나.》

딸은 두어깨를 더 세차게 떨며 서럽게 소리내어 울었다.

그때 누군가 밖에서 조용히 출입문을 두드렸다.

딸이 황황히 눈물을 닦고 열어준 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부관이 빙그레 웃으며 들어섰다...

《단군릉발굴사업이 기대와 어그러지는바람에 이래저래 동무가 이밤에 고충이 컸구만. 어쩐지 동무가 피로움으로 해서 편한 잠을 자지 못할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내가 찾았었는데 잘한것 같소.》

강진국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으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혼자말씀처럼 나직이 뇌이며 담배를 붙여무시였다.

《그처럼 열망하던 무용도 포기하고 혼기를 놓치면서까지 단군을 찾는 애국적인 일에 아버지를 도와나섰다니 그 딸이 정말 기특하고 훌륭합니다. 그런데 동무가 장탄 수심에 빠져버리니 나도 기분이 상하는데 평생 먹은 마음을 지금에 와서 후회하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으니 그 딸이 얼마

나 가슴아팠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각에도 그냥 울고있을지 모릅니다.》

강진국은 목에 큰 추를 달아매거나 한것처럼 머리가 깊이 숙여졌다.

《나는 좀전까지 동무를 처음 만났던 일을 추억했더랬습니다. 그때는 학계에서 서리맞고도 꾀꾀하던 동무의 그 똑심이 강하게 여겨졌고 또 꼭 해내리라는 믿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죽지부러진 매가 되어서야 안되지요. 물론 이 나라가 생긴이래 어느 시대의 그 누구도 똑똑히 밝혀놓지 못한 유구만만년력사의 시원을 30년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찾지 못했다고 동무를 나무람할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무도 나도 이제는 80고령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은 사정없이 흐르지 우리 대에 반드시 찾아내야 할 단군은 나타나지 않지... 그런데 단군연구의 권위자인 동무까지 신심과 용기를 잃고 탁당실망해있으니 이게 어디 일이 됐습니까.》

**김일성** 동지의 강한 빛이 번뜩이는 눈빛과 나직하나 준절한 억양에서 감출수 없는 불만과 눌러참으시는 노여움을 느낀 강진국은 회오와 가책으로 온몸이 화끈 달았다. 때없이 목구멍에 뜨거운 것이 그들먹히 차오르고 다잡을새없이 두눈에 눈물이 핑 어리었다.

어제도 오늘도 자신에 대한 그이의 믿으심 것처럼 확고하고 뜨거웁건만 단군을 꼭 찾겠다고 다진 맹세를 30년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현하지 못했으니... 장부일언이 중천금이라는 설말의 뜻에 비취봐도 이보다 더 불효막심하기 짝없는 일이 어디있겠는가. 하건만 이 죄스럽고 미천한 자신이 장밤 고뇌에 빠져서 시달릴것을 넘려하여 친히 몸가까이 불러주고 따뜻한 정으로 만시름을 가져주시니 30년전 그날처럼 그이의 넓은 품에 안겨서 소리내어 울고싶었다.

불꺼진 담배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김일성** 동지께서 문득 예지의 섬팡이 번쩍이는 안광으로 강진국을 곧추 건너다보시었다.

《강진국동무, 딸이 동무더러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 유골이 수천년동안 보존될수 있다는 과학성이 확고히 담보된다면 단군의 유골일수도 있다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조금도 믿지 않았던 이른바 <기자표>를 해방후에 파보니 그속에서 후세의 벽돌조각과 사기조각밖에 아무것도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의 민족시조가 묻혔다고 믿어온 단군릉에서는 진짜유골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증시해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오랜 옛적부터 굳이 단군묘로 믿어 온 단군릉에서 나온 유골이니 틀림없이 단군일수 있다는 립장에서 신심을 가지고 감청해보시오. 명실공히 자기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라야만이 인민이 창조한 력사가 자기의 웅심깊은 비밀을 고스란히

내어줄것입니다.》

계속하시여 그이께서는 조선사람의 선조가 이 땅에서 생겨날수 있었던 고생물학적바탕과 전제가 충분히 다 마련되었다는것이 중시된 이상 이제는 단군의 실체만 과학적으로 증명되면 반만년의 민족사를 떼떽하게 정립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원탁우에 놓여있는, 강진국이 주관하여 집필했던 《조선전사》2권을 펼치고 한대목을 읽으시었다.

《〈요컨대 단군신화는 의심할바없이 고조선의 건국사실을 반영한 건국신화이다. 그 건국년대를 기원전 24세기로 보겠는가 하는것은 아직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있지 못하다. 그 해답은 장차 발굴소개될 고고학적자료들에 기대를 거는수밖에 없다.〉... 동무네들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단군릉에서 나온 유골이 명백한 해답을 줄것입니다. 우리 인민이 단군묘라고 가르친 립에서 나온 그 유골이 절대로 다른 그 누구의것일수 없습니다.

나는 틀림없이 그 유골이 우리 민족사가 공백으로 남겨두고있는 2000년을 해명해줄것이고 따라서 동무네들이 고조선의 건국기년을 기원전 10세기까지밖에 더 끌어올리지 못한, 참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시정하고 당당한 립장에서 <조선전사> 고대편을 다시 집필하여 반만년민족사의 건국년대를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강진국은 그이의 말씀 한마디한마디가 자신의 머리에, 심장에 글자처럼 명백히 아로새겨지면서 그처럼 절망적으로 생각되던 유골이 금시 눈앞에 2000년을 떠받들고 불쑥 솟아올랐듯한 량만적인 환상에 휩싸였다. 어찌나 가슴이 울렁이는지 숨쉬기가 막 가뻔다. 그이께서 밝혀주시는 위대한 주체사관의 아득한 높이에 이끌려오른 그지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보니 험오와련민의 정으로 얼굴이 뜨거웠다. 그이의 부르심을 받기전만 하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믿으심과 기대를 저버리게 된다는 정신적공포와 도덕적전율의 허탈감에 완전히 지쳐버려있던 자신이 아니었던가.

지극히 심중하고 팽성한 탐구의 나날이 흘렀다.

력사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실체와 과학적인 근거로 보증되고 확인될 때에만 그것이 진실한것으로 고증될수 있다. 그런것만큼 모든 고대력사가들은 엄격하고 세밀한 검토와 분석 그리고 열정적인 논쟁의 소용돌이속에 낮과 밤을 이어갔다.

고대사연구를 전문하는 실마타에서는 산더미같이 쌓인 옛문헌들속에 파문쳐 가랑잎밑에 떨어진 좁쌀알 찾듯이 자자구구를 따져갔으며 인류학연구실에서는 단군릉의 지질학적특성과 물리화학적

성질, 그 미세한 모든 요소들을 하나하나 중시하며 분석실험에 열중하였다. 뭐니뭐니해도 년대측정실이 가장 긴장했다. 아차 실수로 한 나라 력사의 수백년이 없어질수도 있고 덧붙여질수도 있는 참으로 책임적인 일이었던것이다. 유골의 감정을 유능한 전문가들이 현대물리학의 첨단기술의 하나인 전자상자성공명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운명적인 첫 감정결과가 나오는 력사적순간에 력사학자들은 모두 년대측정실문앞에서 봄비였다.

과연 유골의 절대년대치가 어떻게 나올것인가? 유골의 절대년대치에 따라 단군의 실재가 결정되고 나아가서 반만년이라는 우리 민족사의 진실성여부가 밝혀지게 되는것이다. 격동적인 기대와 초조감 속에 순간순간이 지겹게 흘렀다.

문득 출입문이 활 열리더니 측정실장이 실성한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문턱을 넘어서서는 혁 흐느끼며 두손을 높이 쳐들었다.

《동무들, 5011년이 나왔소!... 애틀 태우던 2000년이 분출했던 말이요!》

일시에 환성이 터져올랐다. 기쁨에 겨워 열썩안고 소리내어우는 사람들도 많았다.

두번째... 세번째... 여러 달에 걸쳐서 30회를 거듭할적마다 매번 5천년을 넘는 년대가 나왔다.

유골의 감정결과에 기초해서 력사학자들은 단군 및 고조선에 대한 연구를 다그치였다. 서로 제나름의 일가견을 가진 학자들의 견해상 차이도

물론 없지 않았으나 대체로 순조롭게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어떻게 되어 료동 그 어디의 왕검성에 있을것이라고 여겼던 단군릉이 평양의 강동에 있게 되였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명백한 과학적론거를 세우기가 힘들었다. 력사연구소의 어느 실에서 장수왕이 평양으로 전도하면서 동명왕릉을 이개축할 때 왕검성에 있던 단군도 함께 옮겨와 이개축했을것이라는 론거를 내놓았는데 모두들 신통한 견해라고 찬성했다.

강진국은 그 론거가 두가지측면에서 불만스러웠다. 우선 왕검성이 료동 그 어디에 있다는것이 아직 명백히 확증되지 않았다는것 그리고 더우기는 고고학적으로 놓고볼 때 고조선의 대표적 문화유물인 고인돌무덤이 평양부근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있는것이 주지의 사실로 된 조건에서 단군이 료동땅에 묻혔다가 옮겨와 이개축되였다고 단정할수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였다. 하면서도 자기의 불만을 담보할만한 그 이상의 립증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유골의 감정결과와 단군 및 고조선에 대한 연구자료를 곧 80고령의 년세에도 머나먼 조국의 북단으로부터 남단에 이르는 여러 도의 만풍년든 농촌들을 현지도하시느 위대한 수령님께 올리였다.

단군유골의 감정결과가 5011년이 나왔다는 보

고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력사학자들이 그동안 수고가 많았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우리 민족사의 반만년이 드림없이 확고한 과학적기초를 가져야 하는것만큼 이번에는 다른 최첨단물리학연구기관에서 유골감정을 다시 해보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30회의 감정결과에 나온 절대년대수치가 이제 달리 나올리 없으련만 우리 민족사에 티끌만한 흠집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쓰는 그이이시였다.

다른 유력한 기관에서 유골에 대한 두번째감정을 시작한지도 상당한 날자가 흐른 9월의 어느날 저녁, 문헌고증으로 연구실에 불박혀살다싶이하던 강진국은 오래간만에 딸 미화의 부축을 받으며 집에 들어섰다.

윤씨가 반겨맞아주었다.

《정말 고마운 단군이웨다. 아버지도 그래 딸도 그래 늘 울적해서 들어오더니 오늘은 명절날처럼 붕 뚝수다래.》

《어찌 기쁘지 않을텐가.》

강진국은 가슴후련하게 꺾꺾 웃었다.

《오늘 나라에서 저에한테 준박사의 학위를 주었어. 이제는 당당한 력사학 준박사따님이라니깐.》

미화는 고운 눈매로 할기죽 강진국을 치며보다 말고 윤씨의 두손을 꼭 부여잡는다.

《어머니, 아버지를 축하해주세요요. 아버지는 오늘부터 나라의 력사학 원사랍니다.》

한동안 집안이 다잡을길 없는 기쁨으로 들썩거리였다.

강진국은 긴 다리를 성큼성큼 옮기여 자기 방에 들어가 폭신한 팔걸이의자에 몸을 묻었다. 대뜸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족자속의 텃석부리사나이가 눈길에 잡힌다. 강진국은 어쩐지 그와 말을 걸고싶은 즐거운 충동이 일었다.

《임잔 여전히 룡을 낚느라고 수고하는구만. 임잔 언젠가 낚더러 뭇 낚아왔느냐고 코방귀를 뀌며 시까슬렀겠다. 흥, 우린 지금 민족의 원시조를 찾았어. 반만년 민족사의 빈공간으로 애틀 태우던 2000년을 낚아냈단 말일세. 그러니 우리가 임자를 이겨먹은셈일세.》

담배 한대를 붙여물고 몇모금 맛나게 빠는데 앞치마를 두른 미화가 더운 김이 물물 오르는 차잔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와서 앞탁에 놓고는 앞치마주머니에서 항공편으로 온 길다란 편지를 내들었다.

《천홍세선생한테서 온 편지예요. 며칠전에 왔으면서 어머니가 주시더군요.》

《이런 반가울데라구야... 어서, 어서 읽어라!》

강진국은 조급한 마음에 두손을 뚝뚝 내저었다.

미화는 앞탁건너의 의자에 단정히 앉아 봉투속에서 알팍한 미농지의 편지를 꺼내들고 쟁쟁하

게 읽어내려갔다.

보고싶은 진국이 이 사람아, 임자가 보내준 편지를 기쁘게 받아보았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편달속에 임자네가 끝내 우리 배달민족의 시원으로 되는 단군천왕을 찾아내는데 성공했다니 너무도 뜻밖의 일이어서 꿈처럼 믿어지지 않는구만.

나는 가슴에 차오르는 흥분과 걱정을 누를길 없어 감히 이렇게 부르짖었네.

《단군천왕이시여, 순간이나마 기운을 내시여 이 세상에 부활하시라! 그래서 수천년세월 신화적인물로 버림받아오던 당신을 유구반만년력사의 원시조로 재생시켜주신 불세출의 위대한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 주석님께 감사의 절을 드려주소서!》

편지를 쓰고있는 이 순간에도 나의 마음은 민족의 녀인 단군천왕이 실재한 인물로 부활한 민족의 성지 평양으로 훨훨 날아가고있네. 아니, 서둘러 차비를 해서 인츰 떠나겠네...

《그러니 원참, 천홍세 그 사람이 인제는 병마를 깨끗이 털고 일어난게로구나. 이런 기쁜 일도 있담.》

강진국은 손수건을 꺼내어 별정계 짓물린 눈구석을 꺾꺾 짖어내었다.

《나보다 한살 우인 그 사람이 덜컥 심병으로 누워버렸다기에 다시 보지 못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군했는데... 됐다, 어서 계속 읽어라!》

...이번 걸음에 안해와 자식들도 모두 데리고 가겠네. 그네들도 대종교의 신자인 이 사람의 단군천왕을 꼭 보고 오겠다고 야단이구만.

진국이, 이 사람이 안정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의사들의 끈덕진 위협도 마다하고 떠남은 결코 병이 호전되어서가 아닐세. 호전되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병이 더 악화되어가는것 같구만. 나이가 나이니만치 자신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구... 그래서 더구나 지체함이 없이 떠나려고 결심했네.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께서 우리 단군천왕을 부활시켜주신 민족의 성지 평양에 가서 조국의 향기를 마음껏 맡고 임자도 만나면 어쩐지 이 병을 말끔히 털어버릴것으로 여겨지고...

《아니, 원 그러니 그 사람이 병이 나아서 오는게 아니군그래. 이런 변이라구야.》

강진국은 잔뜩 우거지상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다가 한숨을 내몰고 머리를 끄덕이였다.

《하긴 병이 대순가. 그 사람이 신봉하는 단군이 세상에 재생했으니... 단군이 병석에 누웠던

그 사람을 일으켜세웠구나. 그래, 그래 와야지.》

앞탁에 놓여있는 전화종이 따르릉 울리였다.

무심히 전화를 받던 딸이 급해맞아하며 자리에서 튕겨나듯 일어나 송수화기를 내밀었다.

《아버지! 아버지 빨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진국은 금시 심장이 밖으로 뛰어나올듯한 감동과 환희에 충만되어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시를 정히 갖추고 송수화기를 받아들였다.

《수령님, 옥체건강하셨습니다까?》

《고맙소, 동무도 건강했습니다까?... 동무한테 기쁜 소식을 전하자고 왔습니다. 좀전에 단군유골에 대한 두번째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24회나 해보았다는데 역시 동무네처럼 5011년입니다. 웬일인지 두번째감정에 들어간 다음 내내 년대가 달리나올가봐 처음보다 더 초조했더랬는데 이제는 만사름이 놓입니다. 내 너무 기뻐서 오늘밤에도 처음 감정결과가 나왔을 때처럼 또 잠들지 못할것 같습니다. 하긴 이런 기쁜 일로 해서 몇밤을 지새운들 뭐람니까!》

인정미가 넘치는 그이의 확 트인 호탕한 웃음소리가 한동안 수화기의 진동판을 울리였다.

강진국은 한 력사학자에 불과한 자신이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유골의 두번째감정결과도 5011년이 나왔다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있는것이 꿈처럼 놀라와 어리둥절해졌다. 어쩔새없이 두눈뿌리가 쿡 찡어나면서 뜨거운 눈물이 뚫어올랐다.

자기는 이 순간까지도 30회의 감정으로 확인된 유골의 절대년대치가 아무렴 달라질수 있겠느냐는 배심으로 걱정하지 않았었다. 하나 두번째감정결과가 어찌다가 처음과 달리 나올가봐 순간도 마음놓지 못하였으니 이 나라 민족사에 대해서 그이께서는 얼마나 다심하고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계시는것인가!

한동안 수화기에서는 종이장이 번져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강진국동무, 동무네들이 연구종합한 단군 및 고조선에 대한 자료를 다 보았습니다. 자료를 통하여 동무네들이 단군유골의 과학적실체가 확증된 조건에서 고조선문제에 관한 기성견해를 전면적으로 검토한 노력의 흔적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명백히 할 문제가 있습니다.》

강진국은 나직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랭철한 준절함이 강하게 울리는 그이의 말씀에 저으기 긴장해졌다.

《동무들이 단군릉이 고구려양식의 돌칸흙무덤으로 된것이 동명왕릉을 이개축할 때 고구려사람들이 민족시조의 묘지를 자기네 식으로 이개축한것으로 본 론거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단군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룡동지방에 있으며 단군이 죽어서 묻힌곳도 거기 어디였는데 427년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여 동명왕릉을 이개

축할 때 단군도 옮겨온것으로 생각하고있는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견해가 역사적사실과 맞지 않을뿐아니라 료동지방이 서북조선보다 문화가 앞선것으로 보는 사대주의사관의 표현이고 나아가서 조선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는 그릇된 주장이기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강진국동무가 단군조선의 수도 왕검성이 료동에 있기에 단군을 거기서 옮겨왔다는 론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했다더구만.》

《수령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도 주체사관에 철저히 서서 문제를 똑바로 고찰하지 못하다나니 왕검성이 평양이라는 확고한 견해를 내놓을수 없었습니다.》

《옳게 말했습니다. 노루는 잡아논 노론데 동무네들이 민족주체성의 견지에 확고히 서지 못한 결과 문제를 옳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이께서는 단군릉과 단군의 유골이 평양지방에서 나왔으며 단군과 관련한 전설과 유적들이 많고 역사기록들에서도 단군이 평양에 도움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다고 한만큼 자신께서는 고구려가 평양지방을 개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상의 도움을 찾아서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에 다시 돌아온것으로 본다고 하시고나서 조금이라도 달리 리해되는것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보자고 겸허하게 말씀하시였다.

자신들이 그이의 뜻을 너무도 따르지 못하고있는 가책으로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강진국은 목이 꽉 잠겨들어 겨우 말씀올리였다.

《수령님,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위대한 주체사관의 립장에 서지 않으면 저희들 력사가들이 크나 작으나 아무 일도 치르지 못한다는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언젠면 저희들이 수령님의 뜻을 원만히 따르는...》

《됐소 됐소... 정말 이번에 동무네들이 단군릉 발굴과정을 통하여 주체사관의 립장에 확고히 서가는것이 무엇보다 기쁘오. 내 이제 인차 동무네 력사학자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단군및 고조선 연구와 새 단군릉건립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인츰 새로 건립할 단군릉자리도 나가보겠소. 그때 단군을 찾느라고 수고한 동무들도 다 만나보고... 참 정말 강동무네 그 기특한 딸도 잘 있습니까?》

《네... 수령님의 배려로 그애가 오늘 력사학 준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원사로 승격한 날에 딸도 준박사라... 큰 경사구만, 축하합니다! 이제는 단군을 찾아놓았는데 나라위해 헌신한 그 귀한 딸의 잔치도 차려줘야지요.》

그 순간 옆에 서있던 미화가 흠칠 몸을 떨더니 그만 실성한 사람처럼 강진국의 어깨에 와락 매달려 울음을 터뜨리였다.

강진국도 북받치는 오열로 해서 간신히 말씀을 렴다.

《수령님,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합니다. 년로한 몸에 각별히 건강에 류의하십시오.》

그이의 전화는 끝났으나 강진국은 오래도록 송수화기를 든채 두어깨를 세차게 떨었다.

해는 벌써 아침안개가 그물그물 걷히여가는 수정천우에 높이 떠서 밝고 따스한 빛을 뿌렸다.

눅눅하게 습기가 배여있는 산기슭의 나무와 풀들이 이슬방울을 반짝이며 향기롭고 신선한 기운을 풍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9시경에 단군릉으로 나오시였다. 이틀간이나 일군들과 강진국내 력사학자들을 부르시여 장시간에 걸쳐 우리 민족사정립에서와 룡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고도 오늘은 또다시 귀중한 시간을 내어 단군릉에까지 몸소 나오신것이였다.

진회색 중절모에 까만 코트를 입은 그이께서는 이미 룡에 나와있던 정무원총리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지도간부들과 력사학계의 관록있는 원사, 후보원사, 교수, 박사 그리고 단군릉발굴에 동원되였던 연구사들의 인사에 밝은 미소로 답례하며 일일이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시였다.

단군기적비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그이께서는 거기에 새겨진 글자들을 주의깊게 보는 첫순간부터 몹시 감동되시였다.

일제의 단군말살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던 그 수난의 시기에도 민족의 얼을 지키여 허물어진 단군릉을 수축하고 이처럼 단군의 업적을 높이 찬양한 기적비까지 세웠으며 그 모서리에 자그마한 이름 석자만 남긴 못사람들의 공헌이 참으로 값높게 헤아려지시였다. 그들의 애국적소행이 눈물이 나게 고마워지면서 그들 한사람한사람모두를 아득히 멀어져간 세월의 흐름속에서 일일이 다 찾아내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싶으셨다.

《동무들, 이걸 보시오!》

기적비를 어루쓸어보며 하시는 그이의 음성은 다잡을수 없는 흥분에 겨워 몹시 높았다.

《어떤 사람은 10원을 기부했습니다. 나라없는 우리 인민이 일제식민지의 도탄속에서 한푼두푼 모아 단군릉을 수축하는데 기부한 자금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 10원이 백만원에도 비길수 없이 많은것입니다. 이 기적비를 보면 단군릉수축에 당대 유지들도 적지 않게 참가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군을 민족시조로 신봉하는 우리 인민의 애국의 념이 정견과 신앙, 재산유무의 차이를 초월하여 뜨겁게 고동쳤다는것을 말해줍니다. 이처럼 우리 인민은 죽을지언정 민족의 념을 절대로 버리지도 빼앗기지도 않는 애국심이 강한 인민입니다. 세계가 열백번 변한다 해도 단군의 후예인 우리 조선민족의 념은 절대로 변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록 높이가 두메터도 되나마나한것이지만 우리 인민의 값높은 애국의 녀이 하나로 모아진 축도라고 생각하니 나에게는 이 기적비가 산처럼 커보입니다.

이 기적비를 새로 건립하는 단군릉앞에 번듯하게 세우시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녀을 지켜내고 애국충정을 다한, 여기에 이름 석자밖에 남기지 않은 이 고마운 사람들을 력사가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합시다.》

강진국은 자기도 모르게 놀라움의 탄성이 나왔다.

어쩌면 저 자그마한 단군기적비가 웅장하게 개건될 새 단군릉앞에 세워지리라고 꿈에나 생각했던가. 이 나라 인민들의 자그마한 애국적소행에 대해서도 귀중히 여기여 영원히 빛내여주시는 그이의 한없이 따뜻한 은정의 빛을 받아 단군기적비가 부지중 이 세상을 짝 채우며 커지는것 같았다.

《강진국동무, 단군에게 들썩워진 신화적감투를 벗기려고 평생토록 심혼을 기울인 소원이 성취되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김일성** 동지께서는 정겨운 미소를 지으시고 옆에 서있는 강진국의 어깨를 짚으시였다.

《옛그제 만났을 때에도 내 말한바있지만 동무네들이 단군릉발굴을 통하여 주체사관에 철저히 쏘기에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게 억지로 료동에 가져다놓았던 왕검성이 이제는 자기의 진짜고장인 평양지방으로 돌아와 든든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동무들, 력사의 주인이고 창조자인 인민을 하늘같이 믿고 따랐기에 우리는 오늘 끝내 천하를 얻었습니다. 참으로 단군릉을 발굴하고 단군유골을 찾아낸것은 우리 나라 고고학의 위대한 승리이며 조선민족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이제는 단군을 원시조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단일민족으로 이 땅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왔다는것을 떳떳이 자랑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룡이 자리잡은 토양의 물리화학적성분을 비롯한 제반 인류학적연구결과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청청한 목소리로 해설을 여무지게 한 처녀가 바로 강진국의 딸이라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저으기 대견해하시였다.

《현란한 무대에서 동무를 볼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대를 이어 력사학 준박사가 된 동무를 여기 단군시조앞에서 만나게 되었구만. 장하오, 정말 장해.》

미화는 한순간 너무나도 큰 영광에 어리둥절해 진듯싶더니 뜨거운 눈물로 젖어버리는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고 내쳐 흐느껴울었다.

《울지 마오. 단군시조를 찾느라고 수고했는데 이 기쁜 날에 활짝 웃어야지 울긴 왜 우나... 아버지한테서 동무의 이야기를 다 들었었소. 아마 동무가 그냥 제 포부대로 나갔더라면 지금쯤 무용제의 해성으로 이름떨쳤을지도 몰라. 하지만 절대로 후회하지 마시오. 동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했소. 민족사의 시원을 찾는 일에 희망찬 꿈도 바치고 혼기까지 놓치면서 아글타글 애를 태워온 동무의 애국적공헌에 대해서 력사가 잊지 않을것이요. 언제인가 아버지한테서 들었는데 좋은 사람을 배필로 정한것 같더구만. 이제는 아버지도 동무도 평생소원을 성취했으니 커다란 공지의 자랑을 안고 가정도 이루라구. 부디 행복하시요.》

그이께서는 끝없는 감격과 행복에 겨워 흐느껴우는 미화의 어깨를 다독여주신후 걸음을 옮기시였다.

《동무들, 이제는 새로 개건할 단군릉자리를 가봅시다.》

그이를 우러러 깊이 고개숙여 인사를 올리던 미화는 옆에 있는 강진국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어깨를 떨었다.

《전... 전 꿈처럼 믿어지지 않아요... 어지간히 력사학에 눈을 뜬 지금에 와서... 허황한 단군때문에 제 꿈이 짓밟혔다고... 상심 많으신 아버지를... 은근히 원망까지 했더랬는데... 그런 이 딸더러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사의 시원을 찾는 일에서 큰일을 했다고... 력사가 잊지 않을것이라고 과분하게 평가해주시니...》

강진국도 이 순간에만은 자식앞에서 용케 삼켜 버리곤하던 오열을 구태여 참아내느라고 신고하지 않았다. 자신도 아이들처럼 영영 소리내여 울고싶도록 다잡을수 없는 몸부림이 나왔다.

《딸아, 참 훌륭하게 말했다. 그이의 위대한 주체사관의 빛발속에 오늘의 이 거대한 민족사적성과가 기록되었건만 눈부신 영광의 마루에 솟아오른것은 놀라웁게도 우리들이구나. 진정 그이께서 위대한 주체사관으로 앞길을 밝혀주시여 이 아버지의 평생소원이 이뤄졌고... 참 나를 도와 꿈도 버리고 혼기까지 놓친 너도 행복의 절정을 맞게 되었단말이다.》

목메여 부르짖던 강진국은 그만 온몸을 우둘우둘 떨면서 단군기적비를 와락 다그어안았다.

(민족사의 시원을 찾게 된 지금에 와서 나는 력사앞에 자랑차게 말하고싶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 동지는 명실공히 민족사의 뿌리를 찾아주신 우리 민족의 위대한 시원이시며 우리 인민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공지높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정녕 그렇다. 그이께서 불면불휴의 정력적이고 탐구적인 사색

과 빛나는 예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슬기로운 민족사의 뿌리를 찾아주지 않으셨더라면 유구한 반만년력사에서 2000년의 공백을 영영 메꾸지 못했을것이다. 그이의 위대한 령도의 빛발속에 이 사람도 인생의 저물녘에 이르러 끝내 민족사의 뿌리를 찾은 한사람으로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고목생화가 아니고 무엇인가!)

강진국은 60여년의 지나간 세월이 지나 다시 이 단군기적비를 붙들고 울고있는 자신을 놀라웁게 의식했다.

어쩌면 이같이도 하나의 기적비앞에서 자신이 두번씩이나 눈물을 흘리고있는것인가? 나라를 빼앗겨 민족의 시조도 잃었던 뼈아픈 수난의 그 세월에는 망국노의 설음과 울분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긴 피눈물이었다. 하나 지금 이 시각에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긍지높은 민족적자부심에 넘쳐 민족사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마운 은정에 목이 메어 운다는 그지없이 행복하고 환희로운 충동에 더 눈물이 세차게 복받친다.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사람들은 이 단군기적비앞에서 슬기로운 이 나라, 이 민족을 력사의 자주적인간으로 높이 빛내여주신 위대한 그이의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릴것이다.

하지만 단군기적비여, 수수천년이 지나도 다시는 네가 수난당한 민족의 설음에 찬 눈물을 영영 보지 못할것이다. 정녕 다시는!

## 영생의 불빛

김일규

한해가 천년인듯 기다려지던  
그 소원의 언덕에서  
만민의 눈빛 다 모아오는 절정에서  
불빛이 흐른다  
영생의 불빛이 흐른다

자애깊은 아버지의 미소앞에 선듯  
먼길 가셨던 아버지를 뵈옵듯  
우러르는 마음조차 따듯해지는데  
《금수산기념궁전》의 불빛이여

언제 한번 마음속에 꺼진적 없어  
배짱이 썸숯았고  
한번 누리에 비껴가도  
천만리 앞길을 밝혀준 불빛

억압의 철쇄가 이 강산에 무거울 때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고  
침략의 먹구름도 다 쳐갈린  
정의의 번개불을 불러온  
백두의 등불에 이어진 불빛이여

저 불빛 비치여  
우리 사는 세월은 어둡지 않아라  
80평생 밤을 밝힌 불빛이라지만  
영원한 세기의 해돋이를 불러온  
태양의 불빛이여

수령님 영생의 빛  
주체의 진리가 타오르고  
반만년 력사의 안개도 헤치고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빛내준 불빛  
시대와 인민의 숙망우에  
고귀한 의리와 덕망으로  
우리의 장군님 반들어올리신  
위대한 영생의 불빛이여

불빛이 흐른다  
위대한 사색이 흐른다  
위대한 구상이 이어진다  
고귀한 리념과 철의 진리로  
숭고한 사랑과 덕성으로  
위인의 사업은 세월의 한계가 없나니

오, 새로운 저작과 회고록을 집필하시는  
그 활달하신 붓소리도 안고  
국경이 없이 모여오는 사람들을 만나시여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지구를 울리시는 그 음성도 안고

불빛에 흐른다  
우리의 더 큰 행복이 태어난다  
희망찬 인류의 미래가 설계된다  
수령님은 사업을 계속하신다



## 《개선》호는 다시 떠난다

리범수

1

상패한 물향기 풍기며  
해풍은 불어스치고  
이른아침의 잔잔한 군항은  
번들거리는 파도무늬 펼쳤다

물우에 떠있던 흰안개도  
기슭으로 골짜기로 소리없이 사라지고  
환희와 기쁨의 물결은 일어  
감격의 도가니로 들끓는 군항이여!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그이를 모신 은백색 《충성》호는  
천만가닥 광망을 창파우에 뿌리며  
군항에 들어선다 배고동높이

군항은 환희로운 푸른 물결에  
그이의 영상을 비껴담았다  
담대한 체구  
해풍에 날리는 머리칼  
예지의 광원인 번쩍이는 그 시선

이윽고 함에서 내리신 그이  
만세소리 환호소리 터져오르는  
군항의 부두가를 걸어가신다  
전사들이 드리는 꽃다발도 받으시고  
영접나온 장령들의 인사도 받으시며

그이의 흥분어린 시선이  
쭉- 군항을 일별하실 때  
그이의 마음속 어디선가  
가벼운 탄성이 울려나온다  
- 아 《개선》호!

순간 그이의 심중에 일어서는  
뜨거운 회억의 물결이여!  
수령님을 맞이하던 개선의 그날  
- **김일성**장군 만세!  
- 조선독립 만세!  
그날의 목메인 만세소리가  
그이의 가슴에 메아리친다

전사들이 웨치는 환호성에서  
그날의 감격을 받아안으시며  
《개선》호에 오르신 그이

갑판의 강철판을 올리시며  
끝추 걸으신다 함선 복도길

아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개선하던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갔건만  
그날의 수령님을 뵈옵는듯  
그이께선 류다른 감회에 젖으시여라

- 여기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셨던  
그날의 함장실입니다  
해군장령 학준의 안내로  
그이께선 함장실에 들어서신다

현측에 잇대여놓은  
윤기흐르는 량수책상  
밤색가죽을 씌운 장의자며  
침대와 옷장 선풍기의 사물함...

잠시 방안을 둘러보신 그이께서  
팔걸이의자에 앉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일을 보시던  
그날의 책상과 마주하시고

그 무슨 생각에 잠기셨는가  
두손을 무릎우에 올려놓으시고  
책상우에 시선을 얹으신채  
그이께선 말씀이 없으시여라

수령님 생존하실 때  
늘 이렇게 마주앉으시여  
두분께서 담화를 나누시던  
못잊을 나날들을 그리시는가  
당건설과 군건설  
사회주의운명과 그 미래  
인민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  
조국통일...

때로는 두분께서  
지구를 함께 돌아보시고  
때로는 인류의 마음속을  
함께 열어가시며  
주교받으신 그 이야기  
크고작은 그 모든 세계여!

마치 엇그제 다녀오신

다박술중대며 너성해안포중대  
이제 가보실 그 어느 구분대며  
공장과 농촌 그리고 과학원...  
생각하고 구상하신 그 모든것을  
수령님께 자상히 말씀드리시는듯

-저 침대가 개선하실 때...  
학준이 손짓하며 말머리 떼자  
가벼이 머리를 끄덕이신다  
학준의 뒤말을 알고계신다는듯  
이윽고 그이의 시선이 가닿으신다

벽에 달려있는 해상시계에  
원형판을 달리는 시침과 분침이  
작작작... 소리를 내며  
세월의 흐름을 알려드린다  
수령님 개선하신 그때로부터  
어느덧 50년이 지나갔음을

그이의 시선은 다시 옮겨져  
등그런 현장을 바라보신다  
하늘빛 바다빛이 한데 어울린  
현장너머 아득한 시공간으로  
그이의 추억을 나래쳐간다

## 2

《가자, 조국으로!》 - 재촉하던  
뜻깊은 력사의 배고동소리  
《가자, 조국으로!》 - 배전을 떠밀던  
그날의 파도소리 들으시는듯  
그이께선 조용히 함장실을 거니신다

부관은 담배를 꺼내드리고  
학준이 재떨이를 내놓았건만  
손에 드신 담배갑을 매만지실뿐  
종시 성냥을 긋지 않으시여라

언젠가 수령님 들려주시던  
개선의 그 이야기에서  
그날의 화폭을 그려보시는듯  
지금 그이의 눈앞엔 떠오른다  
갑판에 서계시던 수령님 모습

백두의 풀물오른 군복을 입으시고  
혈전만리 헤쳐온 군화를 신으시고  
허리에 권총을 드리우신채  
쌍안경을 쳐드신 수령님  
다가오는 조국땅을 그리시는가

이윽고 갑판을 둘러보시는  
수령님의 걱정어린 그 목소리

- 동무들 우리는 드디어  
강도 일제를 몰아내고  
이렇게 조국으로 가고있소!

김책, 최용건, 안길, 김일,  
오진우, 림춘추, 최춘국...  
수령님 우리러 갑판에 둘러선  
지휘관들 전사들의 눈언저리에  
뜨거운 감격이 젖어흐른다

아, 조국으로!  
조국을 잃은 그 설음  
조국을 다시 찾은 그 기쁨을  
투쟁속에 체험하지 못하고서야  
그 어이 말하라 개선의 감격을

흐르는 눈물을 닦을념도 없이  
투사들은 그이 품에 와락 안겼다  
《사령관동지!》  
《사령관동지!》

열네살 어리신 그 나이에  
조국을 찾기전엔 돌아오지 않으리라  
압록강기슭에 굳은 맹세 남기시고  
20성상 헤쳐온 광복의 길이어!

조국아 잘 있거라!  
다시 만나자 동포여!  
피눈물 뿌리며 떠난 조국을  
다시 찾아 돌아오는 이 길은  
얼마나 멀고도 험난했더냐

병깊은 강반석어머님을  
끼니도 없고 눈비가 새는  
외로운 초가집에 남겨두시고  
원정의 먼길 떠나신 수령님

차디찬 가을바람에  
느릅나무 아지도 몸부림치던  
어머님 묘소에 무릎 꿇고 었드시여  
《어머님!》 《어머님!》 - 목놓아 흐느끼시던  
눈물의 그 강을 건너야 했고

- 사령관동지가 이대로 가면  
조선이 망합니다

축한을 만나시여 의식을 잃은  
수령님의 옷자락 흔들던 대원들에게  
- 모든것을 동무들에게 맡기오!  
한마디 남기고 두눈을 감으시던  
절망의 그 고개도 넘어야 했고

《혁명》이 혁명을 《타도》하던  
반 《민생단》의 가시발을 헤치며  
동강과 보천보의 화불도 높이  
남패자와 무산지구를 거쳐  
울기강을 건너 소할바령 넘어  
피바다 불바다 헤쳐 몇만리

피어린 시련의 극한점에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 겪으시며  
마침내 개선의 이 길을 열어주신  
만고의 영웅 **김일성** 동지

그이의 옷자락을 적시며 적시며  
투사들이 흘리는 뜨거운 눈물  
그것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피를 흘리고 목숨도 바친  
그런 사람만이 흘릴수 있는  
심장의 진한 연소물이었고

그것은 조국이 얼마나 귀중하고  
조국으로 다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시련에 찬 길인가를  
뼈속에 사무치게 깨달은 사람만이  
온 넋으로 뿌리는 아름다운 구슬이었다

...눈물속에 감격속에  
시간은 얼마나 흘러갔던가  
만리창파를 넘고 넘으며  
《개선》호는 달린다  
조국으로 조국으로 달린다

배전의 란간에 혹은 포탑결에  
여기저기 모여선 항일투사들  
개선의 감격 끝이 없듯이  
주고받는 이야기도 끝이 없구나...

이야기를 듣고있던 한 대원  
십드렁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 배로 가는것도 좋지만  
비행기로 가는것만 하겠나  
나로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조국으로 가게 됐었는데...

가볍게 한숨을 쉬는  
두번째 이야기의 주인공  
그는 락하산선수로 소문난  
항공육전대의 박동무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대원들 영문 몰라 눈길 모으는데  
담배쌈지 꺼내어 마라초를 말며  
박동무 엮어가는 말

...그날 아침  
항공육전대는 정렬했더라  
이제 사령관동지 나오시여  
출격명령을 내리시리라

이제 출격명령 내리면  
함경산줄기와 랑림산줄기  
태백산줄기에 락하산을 타고 내려  
근거지를 꾸리고 무장대 무어  
진격하는 부대들과 합세하리라  
조국해방의 최후성전에...

신끈을 조여매고  
락하산 예비산도 다시 살피고  
저 멀리 숲속의 공지에서  
비행기는 으르릉 발동을 걸었다

비장한 각오와 흥분으로  
가슴한껏 부푸는 그 시각  
웬일인가 급히 달려온 지휘소 연락원  
사령관동지께 보고드린다

보고를 받으신 사령관동지  
정렬한 대오앞에 나오시여라  
정어린 눈길  
환희에 넘친 그 음성

- 동무들 방금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조건 항복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그처럼 오만하게 기승을 부리던 일제는  
《대본영》의 완전패망을 자인하고  
드디어 우리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 **김일성** 장군 만세!  
- 조선독립 만세!  
초목도 감격에 설레이고  
흐르던 강물도 격랑을 일으키라!

가슴과 가슴을 서로 안으며  
얼굴과 얼굴을 서로 부비며  
울고웃던 그 순간이여!  
투쟁의 그 보람 그 환희여!

그날의 환희에서 돌아온  
박동무의 목소리 아쉬움에 젖었구나  
- 다 타게 되었던 비행기를  
그놈의 《천황폐하》때문에...  
그놈이 며칠후에 손을 들어도  
우리 부대가 서울을 해방하는건데...

-하하하...

누군가 유쾌한 웃음끝에  
진심으로 동정하는 말  
- 거참 듣고보니 섭섭하게 됐군  
《조선총독부》지봉우에  
박동무가 선참으로 붉은기를 쫓는건데...

랑만에 넘친 이야기 싣고  
해방의 크나큰 감격을 싣고  
파도를 헤가르는 함선우에서  
누군가 소리친다 - 곱등어떼다!

마치 개선영웅들께 인사를 하듯  
몸뚱이를 솟구고 머리 저으며  
함선을 따라오는 곱등어들을  
웃음어린 눈길로 보시던 수령님

- 동무들, 우리 나라 바다에는  
갖가지 물고기가 가득차있소  
이제 우리는 저 많은 물고기들을  
인민들이 마음대로 먹게 할것ियो  
우리가 15 성상 피흘려 싸운것도  
인민들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닌가

잠시 생각에 잠기셨던 수령님  
- 참 얼마전 상륙작전에서  
오동무가 잘 싸웠소  
놈들의 요새를 본때있게 족쳤거든!

그이의 치하말씀에  
웬일인가 오동무는 머리숙여라  
- 사령관동지, 저보다 봉천동무가...

- 음, 봉천이...  
참 아까운 동무를 잃었소  
락하산을 타고 적구에 내려  
요새를 습격하는 전투에서  
돌파구를 열고 희생되었지  
조국해방을 몇시간 앞두고 그만...

그이의 음성은 갈리시고  
대원들의 눈가엔 더운 눈물 고이는데  
그이께선 뒤집을 지신채  
천천히 갑판을 거니시여라

얼마나 많은 혁명선열들이  
성스러운 해방전에 목숨을 바쳤는가  
김혁, 차광수, 오중흡,  
마동희, 권영벽, 리제순...

우리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넋이 헛되지 않게  
인민의 새 나라를 일떠세우리라

그들이 흘린 피가 영원히 식지 않게  
인민의 락원을 쫓피우리라...

생각에 잠기셨던 그이께서  
문득 몸을 돌리시며 물으시여라  
- 참 봉천동무의 아들이 있었지  
그애 이름이 뭐라고 했던가?

- 리학준이라구  
지금 근거지에 남아있습니다  
김책동지의 대답을 들으시며  
그이께선 머리를 끄덕이신다

- 음, 그래, 학준이라구 했지  
그애들을 빨리 데려와야 하겠소  
철호동무랑 남아있는 녀대원들이  
우리 소식을 손꼽아 기다릴거요!

- 김정숙동지가 근거지에 남아서  
수고가 많을것입니다  
녀대원들의 학습도 말아보시구  
애들도 돌보셔야 하니까요

녀대원 순옥이의 말에  
그이께선 미소로 수궁하신다  
- 학습을 하는건 좋은 일ियो  
우선 조선에 대하여 알아야 하오  
이제 해방된 조국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소  
그래서 정숙동무에게 과업을 준거요  
그동안 학습을 많이 시키라구말ियो!

수령님의 그 말씀 들으며  
투사들의 생각은 깊어갔더라  
...지금 근거지에는 그분께서 계신다  
백두광명성 그분께서 계신다

아, 그분의 탄생을 맞던  
그날의 감격 어이 잊으랴  
뜨거운 백설도 축복의 꽃보라 뿌리고  
백두의 밀림도 설레며 환호하던  
민족의 대경사여!

겨레의 희망이며 미래이신  
그분을 맞이할 조국강산아  
너는 하늘땅도 줄수 없었던  
크나큰 대행운 받아안았거니

수령님 펼치신 백두의 기상  
철의 의지와 담력을  
한몸에 지니신 백두의 아들  
아, 광명성 광명성이여!

우리 어이하면 그분을  
조국으로 무사히 모실수 있으랴  
하늘이여 땅이여 바다여  
너의 힘과 지혜를 모아 보내라  
산을 허물고 강을 메워서라도  
그분을 안녕히 모셔오리라

투사들의 간절한 그 마음 담아  
김책은 정중히 말씀드렸다  
- 사령관동지  
우리가 조국에 돌아가면  
즉시 이 배를 돌려보내겠습니다  
아직도 일제의 패잔병들이  
살인방화를 일삼고  
철교와 차굴들을 파괴하는 형편에서  
근거지에 계시는 그분들을  
배로 모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

언제나 충신의 좌석을 지키는  
김책의 그 마음 헤아리신 수령님  
- 동무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나도 찬성입니다

그이께선 저 멀리 파도너머  
애틀한 시선을 보내시여라  
근거지를 떠날 때 언덕길에서  
손저어 바라시던 백두광명성  
그분의 모습을 그리시는가

하건만 투사들의 심장속에  
숭고한 의리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이의 뜨거운 음성이여  
- 우리 봉천동무를 대신하여  
학준이를 잘 키웁시다

듣는가 선렬들이여  
몸은 비록 갔어도  
피줄을 이어주고 넋을 살려주시는  
그 품속에 전사는 영생하리니

오 조국이여!  
조국이여 너는 아느냐  
우리 얼마나 위대한분을  
너에게로 모시고 가는가를

생사의 기로에 떨어졌던 너를  
재생의 광명으로 비쳐주시고  
숨져가던 너를 안아일으킨  
해방의 은인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

조국이여 조국이여!  
어머니조국이여!  
그이께 허리 굽혀 절을 드리라!  
끝없는 감사의 인사드리라!

### 3

추억은 추억의 파도를 넘고  
《개선》호는 개선의 배길을 달려  
어느덧 조국땅 가까운 바다우에  
장군님의 마음은 가닿으신다

...소박한 연회상이 차례진  
함장실에 대원들은 모여앉았다  
방안을 둘러보신 수령님께서  
너대원 순옥이를 부르시여라  
- 그걸 좀 가져오오!

수령님 분부대로  
순옥은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밀영에서 배낭속에 넣고 떠났던  
술 두병

- 별로 차린것은 없지만  
식사나 함께 하자고 동무들을 불렀소  
이제 조국땅에 들어서면  
동무들은 각지로 떠나게 될거요  
그러니 이 술은 송별주라고 할가

대원들의 눈길은 일시에  
책상의 술병에 쏠리는데  
잔마다 술을 부으시던 수령님  
- 이 술은 우리가 떠날 때  
정숙동무가 보내준거요!

바다물을 술잔에 다 부은들  
그 어이 무거우랴 이 술잔보다  
위대한 두분의 향기  
두분의 인간미가 담긴 이 술잔

술은 술이여도  
만주광야 눈보라에 얼어들었던  
마음속 고드름을 다 녹여주는  
사랑의 보양주!

술은 술이여도  
흘린 피 뿌린 땀  
흘려간 청춘을 되찾아주는  
인생의 부활주!

화기어린 식탁을 둘러보시며 하시는  
수령님의 음성은 뜨겁게 울린다

투쟁으로 빛나는 혁명의 길을  
투쟁으로 이어갈 래일에 대하여...

...이제 조국땅에 들어서면  
잊지 말라 조국땅엔 아직  
당도 없고 정권도 없고  
우리의 군대도 없다는것을

잊지 말라 건당 건국 건군  
우리가 해야 할 3대과업을  
여기 모인 동무들 매 사람이  
우리 당 우리 정권 우리 군대임을

그 누구의 손에도 매이지 말라  
그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말라  
우리 당의 첫 파견원들이여!  
우리 혁명의 전권대표들이여!

명심하라! 앞에도 뒤에도  
《혁명가》 《애국자》의 탈을 쓴  
정치야심가들의 지뢰원이 있고  
으스스한 지하실과 골목들에서  
반혁명의 비수가 뒤따르고있음을

그이께선 함경북도 파견원에게  
차근차근 일러주신다  
- 거기 가면 길주 명천 《농조》사건때  
《전향서》를 쓴 최가놈도 있고  
《자선》운동을 한다면 왜놈에게 붙어먹던  
황가놈도 있을거요  
그런자들을 주의해야 하오

그이께선 평북도 파견원에게  
친히 술잔을 들려주시여라  
- 동무들이 공작지에 가서는  
술을 피해야 하오!  
술은 실수와 사촌간이고  
파오가 알을 쓰는 시궁창이요!

그다음 그이께선 젊은 대원에게  
웃음어린 음성으로 이르시여라!  
- 만약 장가를 가겠거든  
함께 싸운 동무들의 방조를 받소  
혼자서 궁궁이를 하면  
곰보도 미인으로 보일수 있거든  
하하하...

호탕하고 소탈하신 그이 웃음에  
대원들의 마음 흥에 겨운데  
현창으로 비껴든 아침노을이  
식탁을 물들인다 붉은 빛으로

- 해돋이다!  
- 조국의 첫 아침이요!  
대원들의 환성을 들으시며  
그이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신다  
- 동무들 갑판으로 나가봅시다!

김푸른 수평선에서  
출렁... 둔중한 복을 울리며  
커다란 불덩이가 불쑥 솟는듯  
붉은 해는 베고있던 물결우에서  
번쩍 머리를 들어올린다

태양은 은파도 금파도로  
거창한 바다를 장식해주고  
가없는 하늘과 광활한 대지에  
황홀한 노을빛 나래를 펼치여라

쌍안경을 눈에 대이시고  
하늘땅 바다를 굽어보시던 그이  
그이의 시선은 가닿으신다  
그림처럼 안겨오는 조국강산에

천리해안선 굽이굽이에  
은빛 백사장 붉게 피는 해당화  
기묘한 바위들과 무성한 송림  
산과 바다 바위와 숲이  
절경을 펼친 명승의 나라여!

강도 일제를 몰아낸 금수강산에  
우리는 세우리라 우리의 손으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나라  
통성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솟는 해  
아름다운 조국산천 부감하시며  
명상에 잠기셨던 수령님께서  
대원들을 미덥게 바라보신다

- 동무들, 우리도 어둠을 밀어제끼고  
온 누리를 밝게 비치는 해발과 같이  
인민의 머리우에 조국강산에  
새 삶의 밝은 빛을 뿌려줍시다!

태양은 찬란히 솟아오르고  
황금빛 바다는 출렁거린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음성을  
천만년 노래불러 전하고싶어...

#### 4

끝없이 달리던 추억의 배길  
잠시 멈추셨는가

이윽고 담배 한대 뽑아드시고  
성냥을 그으신 **김정일**장군님  
- 선수 침실에 들어가봅시다!

선수침실 좁은 입구에  
부관은 어깨를 내밀었다  
- 안됩니다 최고사령관동지!  
경사가 급해서 못들어가십니다

수직으로 곧추 내려간  
층계를 잠시 살피신 그이  
- 수령님께서도 내려가보시었는데  
내라고 왜 들어가지 못하겠소

두개의 현창에서 흘러든 햇빛이  
아늑히 침실을 비치는데  
비좁은 책걸상사이로  
그이께선 다가서신다  
아래층 첫번째 침대앞으로

말씀이 없으신 그이의 심중엔  
그 어떤 감회가 소용돌이치는가  
침대 가장자리도 살펴보시고  
담요도 만져보시던 장군님  
문득 뒤에 선 학준이를 돌아보신다

- 동무를 보니 생각나누만  
그때 동문 여기서 갔지  
그런데 한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를 움켜쥐고 킁킁거리더라 말ियो

- 제가 말입니까?  
학준은 얼굴을 붉혔다  
그이께선 우스개소리도 잘하시고  
통답도 퍼그나 즐기시는분

하지만 그이의 말씀은  
통답도 우스개소리도 아니여라  
정신력의 거인이신 그이의 기억력을  
한마디 비상하다는 표현으로는  
너무도 범박하고 미흡하거니

어쩔수 없는 포로감에  
학준은 변명할길 바야 없는데  
그이께선 웃음기를 띄우신채  
자초지종 말씀을 이으시여라

...개선의 감격속에 밤을 새시며  
잠들지 못하시던 어머님께서  
- 너 왜 그러느냐?  
학준의 바지를 만져보시는데

잠에서 깨어난 한 너대원  
- 이 너석 바지에 오줌을 썼구나!  
가벼이 눈을 흘기자  
학준은 얼굴을 찌프렸다 울상이 되어

학준을 가슴에 안아주신 어머님  
다정히 머리를 쓸어주셨다  
- 오줌은 무슨 오줌  
바지안에서 더운 땀물이 나왔지  
그렇지요 학준이?

학준은 킁 웃으며  
어머님의 목을 그러안았다  
- 온종일 갑판에서 뛰놀았으니  
얼마나 피곤하겠니  
그래도 멀미를 타지 않았니  
이다음 해군대장감이야  
그렇지요 학준이?

다정한 어머님의 그 말씀에  
- 응!- 학준은 머리를 끄덕이는데  
어머님은 학준의 바지를 벗기시고  
가벼이 엉치를 두드리신다  
- 어서 담요속에 들어가거라  
내 이제 새 바지를 만들어주마!

결에 학준이를 눕히시고  
배낭속을 뒤지시던 어머님  
검정치마폭을 가위로 베여  
밤새 지으셨다 학준의 바지

이제 새날이 오면  
그립던 조국땅에 가닿으리니  
그 어이 젖은 바지를 입혀  
학준이를 조국땅에 올려세우라

아직은 철없는 학준이에게  
아버지의 비보를 알릴수 없었거니  
조국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만난다고  
눈물로 웃음으로 달래시던 어머님

조국으로 돌아오던 마지막 그밤에도  
일손을 놓지 못한 어머님 사랑  
온 나라의 학준이를 안아주시던  
그 사랑 꽃피난 새벽

민날의 추억을 되새기며  
장군님은 그려보시여라  
새 바지를 입고 손뼉을 치며  
좋아라 뛰놀던 학준의 그날의 모습  
- 동무와 나는 이 배에서  
조국의 등대를 처음으로 보았소!

머리를 번쩍 든 리학준장령  
- 장군님 생각합니다  
새 바지를 입고 등대를 바라보던  
그 새벽이 생각납니다

...아직은 미명  
해님이 길차비 서두를무렵  
조국땅이 보고싶어 조국땅이 보고싶어  
갑판에 올랐던 그 새벽

저 멀리 파도너머  
어둠속에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다시금 반짝이는  
한점의 불빛

그 무슨 불빛일까  
포구로 돌아가는 고기배인가  
갈길 잃고 헤매이는 난파선인가  
의문을 풀길없던 학준이

- 어머니 저기  
웬 불빛이 보여요!  
그 부름소리 들으시고  
갑판에 오르신 김정숙어머님

잠시 불빛을 바라보시더니  
기쁨어린 음성을 터치시여라  
- 등대다 등대!  
조국의 등대다!

어머님은 선실을 향해  
소리치신다  
- 동무들 어서 갑판으로 나오세요  
조국땅에 들어서는 이 순간을  
우리 애들이 영원히 잊지 않게  
조국의 등대를 보여주자요  
자 보아라 저 등대가  
조국의 등대란다

마디마디 뜨겁게 외우시는  
어머님의 그 말씀 새기시며  
그 얼마나 숭엄한 걱정이 차올랐던가

등대여 조국의 등대여!  
너의 외로운 그 불빛은  
구원의 손길을 기다려 기다려  
문밖에 나와 배고파 울고  
추위에 떨던 불쌍한 고아-  
설음 많던 조국의 눈빛이 아니냐  
신음 많던 조국의 그 마음 아니냐

너의 발밑에서 출렁이는 바다엔  
조국의 눈물이 고여흐르고  
너의 가슴에 감도는 안개속엔  
조국의 한숨이 서려있었다

너의 가슴에 철썩이는 파도소리  
온몸의 피방울에 불을 붙이고  
온몸의 기름방울 모아 태우며  
조국을 불러 몸부림치던  
이 나라 인민의 통곡소리 아니더냐

하지만 등대여 네 오늘은  
해방의 그 감격 불빛에 안고  
미래의 태양을 남먼저 맞았거니  
너의 불빛에 보내는  
축복을 받아안으라  
아 등대여!  
조국의 등대여

그 축복을 받아안으며  
등대는 더 밝게 빛을 뿌렸다  
조국의 새 아침을 불러부르며...  
찬란한 해돋이를 불러부르며...

## 5

철썩, 처절썩...  
파도는 배전에 출렁거리며  
장군님의 심중에 서려 감도는  
추억의 여울을 잠재우는가

함선 갑판우에 나서신 그이  
그이의 번쩍이는 그 시선이  
눈부신 광원의 그 빛발처럼  
함상의 모든것을 투시하신다

소해부이며 소해기재들  
기관총이며 함선고사포들  
구조와 성능 사거리들을  
찰나에 머리속에 거머쥐신다

예민한 감각  
민감한 포착력으로  
잠시 함선의 전모를 둘러보시며  
그이께선 낱알이 해부하신다  
배의 속도며 무장상태  
복잡한 제원들과 작용원리들을

마치 군사과학 전문가인듯  
마치 이 배의 설계자인듯  
그이의 다박 다식 다재함을  
그 어느 지도자가 감히 따르랴



언제 어디서나 그 무엇에나  
막힘없는 지식과 실력으로  
자신의 권위를 담보하시고  
자신의 령도력을 추동하시고  
자신의 예지를 부흥시키시나니

이제 장군님의 그 구상속에  
장군님의 그 손길아래  
얼마나 더 높이 머리를 들라  
무적필승의 우리 무장력!

그날을 내다보시며  
그이께선 다시금 강조하신다  
- 해군 함대의 무장장비를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화하라!  
이것이 수령님 바라시던  
해군무력 건설사상이며  
자신의 의지라고-

장군님의 그 말씀 새겨들으며  
학준의 감정은 숨엄해졌다  
수령님의 천부적 그 기질  
그 사상 그 령도 그 덕망을  
온몸에 그대로 체현하신분

언제나 그분의 정책적특질은  
변함없는 일관성에 있나니  
수령님의 그 유훈 빛내가시는  
드팀없는 일관성에서  
우리는 본다, 우리는 안다  
**김일성**-그이는 **김정일**동지  
**김정일**-그이는 **김일성**동지이심을

인류정치사는 말해주더라  
지도자 정치가의 조석변으로  
혁명은 좌우경의 진통을 겪고  
인민들은 우환속에 모대기고있음을

하지만 수령님의 유훈  
변함없이 받드는 그 한길로  
우리 혁명은 승승장구하거니  
장군님의 가르치심 따르는 길에  
무엇을 가리랴 서슴어하라

학준의 그 마음 헤아리시며  
그이께선 이르신다 일군들에게  
- 나는 당과 군대를 거느리고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로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할것이며  
우리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나갈것입니다!

장군님의 결심  
그것은 환상적인 추리의 결과가 아니다  
그 누구의 의사를 윤색함도 아니다  
그 누구의 환심을 모으려는  
미사려구는 더욱 아니다

장군님의 결심  
그것은 수령님의 《개선》호를  
주체위업완성의 항로로 이끌어가시는  
그이의 예지와 담력  
신념과 의지의 결정체이거니

백두의 기슭을 떠나온  
조선혁명의 전투함  
《개선》호의 성스러운 항해가  
어찌 여기서 끝났다 하랴

통일조국의 령수  
위대한 령장 **김정일**장군  
그이를 사령탑에 높이 모신 조선혁명의 배는  
끝까지 항해를 계속하리니

불테면 불어오라!  
엄혹한 《압살》의 광풍이여  
일심단결의 그 포화로  
우리는 너를 짓부시리라

밀려올테면 밀려오라!  
사나운 《제재》의 검은 파도여  
우리의 힘과 의지가 뻗친  
철갑의 배머리 높이 쳐들고  
우리는 나가리라 너를 맞받아

대양의 풍랑이 다 덤벼들어도  
그 어떤 황색의 해류가 스며들어도  
주체의 뜻을 단 우리의 전투함은  
항로를 바꾸지 않으리라  
항해를 멈추지 않으리라

력사의 방향타를 잡으신 그이  
지구의 머리우에 걸터앉아  
이리 굴리시고 저리 굴리시는  
백두령장의 그 기상으로  
병사들을 부르신다 침로 곧바로!

해풍에 옷자락 가버이 날리시며  
근엄히 서계시던 **김정일**장군  
그이께선 학준이를 여겨보시며  
민음어린 음성으로 이르시여라  
- 학준동무 언젠가 수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봉천동무는 갔지만  
그가 남긴 아들이 있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말이요  
우리 함께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광복의 《개선》호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개선》호로 만듭시다

크나큰 그 사랑 그 믿음  
달아오른 가슴에 불을 지켰는가  
불타는 심장의 열풍을 담아  
학준은 힘차게 보고드렸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수령님의 조국광복 《개선》호를  
장군님의 혁명위업완성의 《개선》호로 만들것을  
장군님께 엄숙히 맹세합니다!

학준이 삼가 드린 충성의 맹세  
그 맹세에 화답하는가  
촬영대로 가시는 장군님 우러러  
부두에서 함상에서  
만세소리 만세소리 터져오른다

전사들의 그 환호에 받들려선가  
기발이 날린다 기발이 날린다  
사령탑마루에 전사들의 머리우에  
최고사령관 기발이 날린다

수령님 조국으로 개선하실 때  
사령탑에 날리던 붉은기려가  
수령님의 그 뜻으로 붉게 물들고  
수령님의 그 위업 기폭에 담은

성스러운 최고사령관 기발이여!  
끝나지 않은 《개선》호의 항해길을

어서 가자 부르는듯 이끄는듯  
해풍에 펄럭이는 그 기발을  
전사들은 머리들어 우러르거니

기발이여 그대 부르는 길에  
넘지 못할 격랑이 있으랴  
기발이여 그대 이끄는 길에  
가닿지 못할 기슭이 있으랴  
주체위업의 최후승리도  
그대의 기폭에 안아오리니

영광의 《개선》호여!  
이제 너는 다시 떠난다  
수령님 모셨던 그날의 사령탑에  
**김정일**장군님 다시 모시고

광복의 새날을 싣고온 그날처럼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개선》호는 떠난다 다시 떠난다  
아름다운 희망의 그 기슭으로

아 조국이여 조국이여!  
그대는 들으리라 들으리라  
마지막 그 기슭에 닿을 내리고  
높이 울리는 《개선》호의 고동소리  
감격에 목메인 그 교통소리를...

## 김일성주석을 노해하노라

인사를 드리노라  
80 평생 혁명의 장검을 높이 드시고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께

걸음걸음 시련의 날바다 앞을 막는  
광복의 성전  
철의 의지로 난관을 이겨내시고  
조선의 참된 아들딸들을 이끄시여  
자유독립의 새봄을 안아오시던 나날  
전설같은 이야기 수없이 전해졌거니  
그이의 불멸의 업적  
만민은 소리높이 칭송하노라

인사를 드리노라  
해방된 조선을 진보어로 떠미시며  
존엄높은 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창조의 영웅 백승의 령장께

## 아벨리노 에쓰꼬르씨아 쉰이가

주체의 기치로  
위력한 기계군단의 동음 울리시며  
현대적도시를 일떠세우시고  
주체의 빛발로  
만민을 광명의 세계로 이끌어가시는  
그이는 향도의 태양

영광을 드리노라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할  
그이의 귀중한 생애  
그이의 불멸의 업적  
만방에 길이 전하며  
끝없이 솟구쳐 바다로 흘러가는  
맑은 샘처럼  
아름답게 피어나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아 위대한 스승만을 길이 따르리라  
(필자는 니까라과시인임)

# 세월과 더불어 영원히 전해질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전설

장권표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혁명설화들이 널리 창조되고 보급되고 있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서거하시였으나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심장에 간직된 신념과 의지의 표현이며 우리 현실생활의 반영이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창조된 백두산전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되새겨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흠모하여 창조된 혁명설화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의 역사적시대의 다양한 사건들과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으나 이 불멸의 설화들에 공통적으로 지향되고 있는 사상은 어버이수령님을 하늘이 내신분으로 절대화하고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형상하고 있는 백두산전설의 주제사상적내용과 신화적인 형상이 잘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전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들속에서 창작되고 전해진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구전작품이다. 수령님을 형상한 수많은 전설이 창조되어 백두산전설군을 이룬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진정에 넘치고 열광적이었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보여준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백두산전설은 인민들속에서 창작된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구전작품으로서 백두산전설군을 이룬 사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당시 인민들의 존경과 흠모의 마음이 얼마나 열광적이었는가 하는것을 가슴뜨겁게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전설을 백두산전설이라고 부르는것은 백두산이 혁명의 성지인 동시에 조선민족의 유구한 민족사의 운명을 안은 조종의 산으로 신성시하여온데 있다.

백두산의 산골짜기와 봉우리, 강과 시내, 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바위와 돌맹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백두산의 줄기줄기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가 아로새겨져 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들은 백두산에서 조국광복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칭송하는 수많은 전설을 창조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백두산전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전설적영웅으로,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형상하고 있다.

《**김일성** 장군님은 참으로 하늘이 낸 령장이시다. 사대부들이 나라를 망치더니 이제야 장군님께서 우리 힘으로 독립할 옳은 길을 밝히시여 조선민족의 광복의 시운이 열리였다.》

《조국의 북쪽하늘에 밤이면 류다른 새별이 솟아나 밝은 빛을 뿌려주곤 하였는데 그 새별이 백두산우에 내려와 앉아 장수가 나타났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김일성** 장군이다.》

《백두산에는 크나큰 바위 장군바위가 있는데 하루는 그 바위우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 호랑이는 위엄한 자세로 백두산하 땅을 굽어보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런데 장군바위에 호랑이가 앉았다 일어서니 우리 인민이 고대하던 바로 그 장수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김일성** 장군이다.》

**김일성** 장군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는 이 전설은 당시 우리 인민들속에서 구전으로 창조전송된 수많은 전설중의 한 레이다.

조선을 강점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의 귀중한 모든것을 약탈하였으며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학살하였다. 전민적인 3.1인민봉기, 6.10만세운동 등 반일항전은 결음마다 실패하여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줄 위대한 령도자가 없이는 승리할수 없다는 피의 체험과 교훈을 남기였다. 과연 조선을 구원할 위인은 없단 말인가.

바로 온 겨레가 몸부림치며 구원의 손길을 바라던 그때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에서 조국광복의 기치를 높이 드시

고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하늘이 내신분》, 《백두산의 장수별》, 《백두산의 호랑이》로 신격화한 전설들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여줄 위대한 령도자의 출현을 것처럼 목마르게 갈망하던 겨레의 소원이 드디어 실현된 한없는 기쁨과 열광적인 환호의 서사시였다. 바로 우리 인민은 백두산을 우러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암흑속에서 헤매던 조선을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 동방조선의 빛나는 새 아침을 가져오리라고 확신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백두산전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신 전설과 함께 일제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는 **김일성** 장군님을 칭송한 수많은 전설들이 있다.

《조선에 장군이 났다.

이 산봉우리에서 저 산봉우리로 훨훨 날아다니는데 하루사이에 천리만리를 이동한다.

이 장군이 바로 **김일성** 장군인데 축지법을 쓰신다. 축지법을 써서 백리길도 단숨에 다닐수 있으며 아무리 험한 준령이라도 가지 못하는 길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시여 동서남북을 날아다니시는데 한번은 왜놈들이 수없이 달려들었다. 이때 그이께서는 소나무잎을 뜯으시여 짧게 잘라서 샷갓에 넣고 돌리시다가 바람에 날리시니 그것이 전부가 군사되어 달려들던 왜놈들을 모조리 무찔렀다.》

《장군은 백두산에 계시는데 축지법을 아는 사람은 장군밖에 없다. 장군의 어깨에는 흰날개가 달려있는데 이것으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닐수 있다. 장군이 축지법을 쓰면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리며 구름이 덮이고 광풍이 인다. 그리하여 소낙비가 억수로 퍼붓게 되는데 장군을 해치려는자는 이에 혼쭐이 나서 죽고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의 탁월한 령군술을 신격화한 이러한 전설은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잦았나》, 《바위가 총탄이 되여》, 《하늘이 울고 지동이 인다》, 《총 한방 쏘지 않고》, 《술방울로 폭탄을 만드신다》, 《단풍잎을 띄우시고 두만강을 건느신다》, 《바람타고 다니는 대군》, 《총알에 눈알을 달아주신다》 등을 비롯하여 헤아릴수 없이 많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을 신격화한 이러한 전설은 자연지리적특성과 지형지물, 계절의

변화와 기상현상, 적의 기도와 약점을 천리혜안으로 통찰하시고 《신출귀몰》, 《동성서격》, 《일행천리전술》 등으로 적들을 죽치며 백전백승하는 탁월한 령군술에 대한 설화적형상이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전설적영웅으로 우러르며 창조된 전설은 우리 인민들자신의 창작으로 누구나가 다 그 창조자가 되고 전승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르며 창작된 백두산전설은 겨레의 심장에 광복의 횃불을 안겨주는 불멸의 기치로 조선사람들이 사는곳이면 그 어느곳이나 비상한 속도로 전파보급되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모여앉으면 남너로소 할것없이 백두산에서 싸우시는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전설로 뜻을 피웠다.

마을청년들은 여름밤이면 동쪽에 나앉아 북쪽 하늘에서 유난히 크고 반짝이는 별을 보게 되면 그것이 백두산의 장군별이라고 하면서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르며 조선인민혁명군참군을 열망하였다. 미래의 꿈을 안은 아이들은 마을의 좌상로인의 집에 모여들어 모기불을 피워놓고 밤이 지새도록 산을 주름잡으며 이산저산으로 훨훨 날아다니시며 왜놈들을 무리로 요정내는 신출귀몰한 장군님의 전설을 들으며 광복된 조국에서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김일성** 장군님전설은 일제에 의해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 죽음앞에 선 사람들에게도, 공장과 광산, 탄광들에서 고역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살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간 동포들에게도 민족의 넋을 잊지 않고 광복의 희망을 가슴에 품고 살게 하는 사상정신적지주로 되게 하였다.

일제시기 **김일성** 장군님을 하늘이 내신 민족의 태양으로, 민족해방의 구성으로 절대화한 이러한 숭배심은 이시기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지배한 기본관념으로 되어있었다. 백두산을 가까이하고있는 함경도지방의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다가도 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울면 **김일성** 장군님이 백두산에서 천기조화술로 왜놈들을 죽친다고 하였으며 하늘의 구름이 벗겨지고 쾌청하면 장군님께서 승전하고 백두산에 돌아가시었다고 하였다. 절대화된 이러한 숭배심은 인민들속에서 자연의 특이한 현상들을 놓고도 그것을 **김일성** 장군님과 관련시켜 해석하면서 조국이 해방될 날을 예언하는 전설을 창조하게 하였다.

해방전해에 금강산의 삼일포에 큰 벼락이 쳐서 바위가 깨지고 그 바위에 《암화》(어둠이 깨여

지고 광명이 온다는 뜻)라는 글자가 씌여졌는데 그것은 백두산에서 싸우시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오시여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알린것이다라는 전설이 창조되어 널리 보급되었다.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백두산에서 싸우시는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랐다.

우리의 해방전 세대들은 백두산전설을 들으며 **김일성** 장군님을 우러러 조국이 광복될 날을 확신 하였고 해방후에 자란 새 세대들은 백두산전설을 들으며 광복된 조국 오늘의 이 행복이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참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흠모하며 인민들속에서 창조된 백두산전설은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치던 겨레의 가슴에 광명과 희망, 조국광복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태양의 전설로 전파보급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전승되고있는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전설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백두산전설만이 아니라 조국해방전쟁시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창조된 전설도 전해지고있으며 또 계속 창조되고있다.

전설이란 다 아는바와 같이 옛날부터 전해오는 신비한 이야기이다.

인류력사는 시대와 민족앞에 큰 공훈과 업적을 남긴 위인에 대한 전설을 기록하고있으며 또 전해주고있다. 그러나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인들의 전설은 그것이 그 위인이 생존한 자기 시대 동시대인들의 창작인것이 아니라 그의 업적이 후세에 전해지면서 후대들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창

조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전설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역사에 있었던 지나간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직접 받으며 그이의 위대성을 절음마다 체험한 동시대 인민들의 창작이었다. 이것은 절세의 위인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우리 인민에게만 있는 현실이다. 전설의 신비는 현실의 논리로 쫓을 수 없는 비상한것, 기적적인것에 대한 현실의 반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사와 민족사 앞에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그이께서 지니신 그 위대한 인간적품모는 아직 역사가 전례를 모르는것으로 현실의 경험과 척도로는 쫓을 수 없는 비상한것이며 기적적인것이였다.

그러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태양으로 한세기에 강력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 전설적영웅으로, 인류의 리상이 실현된 지상 천국, 사회주의조선을 안아오신 온 세계 인민들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으로 숭상되고있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은 영원 불멸할 위대한 태양으로 상징되고있으며 하늘이 내신분으로 신격화되고있다.

우리 작가들과 전문가들은 백두산전설과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잊지 못해하는 전설들을 더 적극 수집정리하여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도 귀중한 혁명적인 사상정신적재보로 리용할수 있게 잘 발굴하며 그를 과학적으로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 악킴 씨무콘다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이시여  
당신이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주체사상의 빛발은 더욱 찬란해지고  
조선은 보다 살기 좋은 나라로 된것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이시여  
조선을 강력한 나라로 꾸리시고  
인민을 주인으로 키우신 당신께  
우리는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이시여

당신은 인류의 빛나는 귀감이십니다  
세계에 대한 당신의 령도를 찬양합니다  
조선과 세계의 청년들 손에 손잡고  
위대한 당신의 령도를 따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지도자이시여  
위대한 나라 조선에서  
새 세대들은 행복하게 자라납니다  
당신의 령도따라  
우리 영원히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필자는 잠비아사람임)

# 해와 달이 흐를수록

황승명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흐르는 세월속에  
조국의 또 하루가 예서 시작되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우러르며  
온 나라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만수대

얼마나 뜨거운 진정을 터치는가  
7 월의 그날부터 흘러온 날과 날  
아버이수령님을 찾고찾는  
그 숭엄한 발걸음 발걸음들이...

아, 눈을 감으면 잠이 오라  
해와 달이 흐를수록 더욱 그리워  
꿈결에도 어려오고  
자다가도 한밤중 문득 일어나  
또다시 달려오는 만수대언덕

오시였던 그날처럼  
새꽃이 핀 풍년들판에서  
아버이수령님을 목놓아 부르던 관리위원장도  
기적소리 높이 탄전에서 달려온 젊은 기관사도  
한마음으로 굽이치는 언덕이여

수령님을 우러르면  
환하게 미소하시는 인자한 모습만이  
해빛처럼 한가슴에 비쳐와  
머리위에 열린 저 맑은 하늘  
금나락 익히며 설레이는 산천에  
80 평생을 두고 가꾸고 자래우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로고  
그 위엄이 뜨겁게 안겨와라

수령님의 불멸의 뜻  
찬란한 주체의 빛받은  
20 세기 내 나라 내 조국을  
자주의 숨결로 고동치는 강국으로 일떠세웠거니

하늘도 땅도  
흐르는 세월도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이 시대여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여  
산천과 함께  
시대와 함께  
아버이수령님 이토록  
어제와 같이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는것 아닌가

**김정일**동지 계시여  
래일은 더 창창하다고  
그이 계시여 조국도 있고  
동무들도 있다고 하시며  
신심과 락관을 주신 수령님 말씀  
오늘에 다시다시 뜨겁게 새기는 마음이여

아버이수령님의 위대한 사상  
불멸의 업적을  
백프로 계승하시고 백프로 빛내가시는  
그분은 오직 한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

그렇더라  
**김일성**동지는 **김정일**동지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  
영원히 한모습으로 빛나는  
인민의 태양

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계시여  
아버이수령님 오늘도 계시고  
친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는 마음에  
변함없이 수령님을 우러러모시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천만년 영원히  
우리와 함께 조국과 함께 계시여라

## 《사향가》를 들으며

김원선

이른아침, 정화된 공기의 흐름을 타고 《사향가》 선율이 흐른다. 낮잠에도, 저녁시간에도 어디서나 방송을 통해 울리는 《사향가》...

《사향가》의 선율에 이어 방송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랑독한다.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광복과 부강발전,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다 바쳐오시다가 너무나도 애석하게 서거하신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며 인민들은 웃기며 여미고 회고록의 구절구절을 머리에 새긴다.

### 《사향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더불어 백두의 험산준령을 울리던 은은한 곡조가 오늘은 사회주의조국의 숨결이 되어 조국산천을 울리고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준다.

얼마전 우리는 기록영화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를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사향가》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려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르시는 노래를 들으며 우리는 모두 울었다. 《사향가》를 부르시는 생전의 위대한 수령님을 뵈옵게 되고 그 친절한 육성을 듣게 되니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사무쳐오고 노래에 담긴 절절한 감정에 한없이 마음이 격동되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혈전의 피어린 나날 손수 《사향가》를 지으시어 항일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민족의 념, 애국의 념을 심어주시고 그들을 원쑤격멸의 성전에 불러일으키시었다.

혁명군대원들에게도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고 처자와 형제가 있었다. 혁명투쟁에 떨쳐나설 때는 사랑하는 부모처자와 정든 고향산천과 기약할

수 없는 작별을 하여야 하였다.

그 누가 따뜻한 구들에서 부모처자를 거느리고 집안살림을 꾸려나가는것이 편안하고 좋은줄 모르랴!

하나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더 귀중한것은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민족의 운명이었고 고향의 지경을 벗어난 조국의 광복이었다.

조국이 없이 고향도 가정도 자신의 행복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기에 조선의 아들딸들은 도란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짓밟힌 조국땅을 찾기 위하여 분연히 일떠섰다. 그들은 광복위업을 위한 길에 나서면서 혈육의 바래움을 받으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고 잘 다녀오라고, 승리하고 돌아와 다시 만나자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는 어머니들의 부탁도 받았다.

혈육의 정어린 눈물, 자식들의 장래를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자애로운 음성은 결코 부드럽기만한것이 아니며 나약한것은 더우기 아니었다.

우리 어머니들이 흘린 눈물, 아들딸들에게 한 부탁의 말은 그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억센 마음을 키워주는 자양분이었고 그에 대한 믿음의 표시였다. 그것은 곧 민족애와 조국애의 발현으로 되었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에게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 친척들이 있었다. 봄이면 백살구꽃 하얗게 피어나는 아름다운 고향산천이 있었고 정든 마을사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녀사께서는 조국을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에서조차 살수 없어 정든 땅을 등진채 타향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오빠와 동생, 형님을 잃으시였으며 나중에는 귀여운 조카애마저 빼놓지 않으면 안되시었다.

인간이 당하는 고통중에서도 가장 아픈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신 녀사이시기에 석별의 아픔을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바꾸어 조국광복의 길에서 위훈의 창조자로 나서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혁명투쟁에 나

선 모든 청년공산주의자들, 항일유격대원들이 바로 이런 애국의 정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뜨거운 민족애, 열렬한 조국애를 지침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이라는 거대한 풍파속에서 더욱더 굳세어졌고 민족의 운명과 조국의 광복을 위한 길에서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한 혁명투쟁속에 일제를 타승하여 마침내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고 개선하시였으나 선친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돌아와 사립문밖에서 할머니를 뵈옵던 일을 회고하시면서 자신께서는 그때부터 남의 집 사립문에 들어설적마다 이 사립문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몇이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얼마인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립문들에는 눈물에 젖은 리별의 사연이 있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에 대한 목메인 그리움과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고 하시면서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제자매들이 조국광복의 제단에 생명을 바치였다고 회억하시였다.

정녕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을 안아올수 있은것은 그들이 지닌 민족애와 조국애에 기초를 두고있다고 할수 있다.

바로 항일혁명투사들의 이런 애국정신, 혁명정신이 그대로 담겨있어 《사향가》는 투사들의 투쟁과 생활과 함께 오랜 세월을 흘러왔다.

눈물 흘리며 바래주던 어머니, 잘 다녀오라는 부탁의 말씀, 돌돌 흐르는 작은 시대, 동생들 뛰놀던 모양... 귀에 쟁쟁히 울리고 눈에 삼삼히 안겨오는 이 모든것들은 헤어진 사람들과 고향산천

에 대한 그리움을 얼마나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는것인가!

꿈결에도 잊을수 없는 고향산천을 되찾고 광복의 그날 돌아가리라는 투사들의 념원은 실현되어 조국해방을 맞은지도 어언 50년이 되였다.

해방되어 반세기! 세월은 흐르고 조국은 영광에 찬 로정을 줄달음쳐왔다.

광복된 터전우에 꽃피난 인민들의 생활은 보람찼고 변천하는 조국의 모습은 거룩하였다.

민주건설, 정의로운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와 사회주의건설... 생활을 살찌우고 향토를 가꾸는 이 모든 일은 주체혁명위업이라는 성스러운 대업수행의 일환으로서 활기차고도 승리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우리 인민들이 누리는 생활과 투쟁의 길에서도 언제나 《사향가》가 울리였다. 《사향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감정을 담은것으로 하여 어제도 오늘도 삶의 길에서 뱉수 없는 노래로 되였다.

혁명선렬들이 개척하고 수행한 조국해방위업! 새 세대들이 이어가는 주체혁명위업!

혁명투쟁의 계주봉은 1세대 혁명가들로부터 후세대로 넘어와 오늘은 혁명의 2세, 3세들이 주인으로 되였고 4세들이 후비군으로 자라고있다. 혁명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즐기치게 이어진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혁명의 진군길을 다그치고있다.

오늘도 래일도 울릴 민족애와 조국애의 송가 《사향가》는 내 나라, 내 조국의 번영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 가사

# 우리의 영생

홍현양

어머니 사랑이 천만자식 키우듯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해빛이 있네  
그 사랑 그 해빛은 **김정일**동지  
우리의 영생은 그 품속에 있네

불라는 언덕에 한줄 흙이 되여도  
그 모습 빛내여주는 조국이 있네

그 빗발 그 조국은 **김정일**동지  
우리의 영생은 그 품속에 있네

소나무기상이 눈속에서 푸르듯  
폭풍도 꺾지 못하는 신념이 있네  
그 신념 그 기상은 **김정일**동지  
우리의 영생은 그 품속에 있네



## 꽃강냉이 한이삭을 놓고

박영이

오늘 우리 인민들은 생활의 계기마다에서 아버지 수령님의 따사로운 그 품을 한없는 걱정속에 그려보곤 합니다.

날이 가고 철이 바뀔수록 새로운 감회속에 되새기군하는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그 사랑,

조국해방 50돐을 눈앞에 둔 어느날 저녁이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구호관철로 들끓는 수도의 분위기에 취하여 한결 흥그러운 마음으로 퇴근한 나에게 어머니가 삶은 꽃강냉이 몇이삭을 큰 접시에 담아 내놓으며 맛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위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중년기를 벗어나는 지금까지도 각근하여 고스란히 남겼다 주는 올해의 첫물이었습니다. 금방 쪄낸 모양으로 엷은 오사리 한접데기를 그대로 쓰고있는 강냉이이삭에서는 더운 김이 물물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기바쁘게 그 한이삭을 집어 들고 오사리를 벗겼습니다. 올해에도 작황이 좋아 살이 오른 노란 알들이 뾰족한 이삭끝까지 촘촘히 박혀있고 연밤빛수염까지도 몇오리 붙어있는 꽃강냉이는 보기에다 무척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구수하고 들큰한 꽃강냉이내가 삼시에 방안가득 서렸습니다.

(벌써 꽃강냉이철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나의 눈앞에는 팔뚝같은 이삭들이 늘어진 강냉이바다가 밟혀왔습니다. 텔레비존을 보니 올해에도 여느해와 같이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는 풍년이 들어 강냉이대마다 통통하게 물이 오른 이삭들이 무겁게 달렸습니다. 그러니 철이 오자 이렇게 나에게도 알찬 꽃강냉이 이삭들이 차례진것입니다.

탐스러운 이삭을 들고 굴리던 나의 생각은 어느새 낮에 보았던 한쪽의 사진으로 옮겨졌습니다.

산뜻한 여름양복에 채양넙은 모자를 쓰신 아버지 수령님께서 허리가 치게 자라 설레이는 무연한 강냉이밭을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만족스레 바라보시는 모습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시기 바로 열아흐레전, 1994년 6월 19일 온천군 금당협동농장 강냉이밭머리에 계시던 아버지 수령님의 영상,

레년에 보기 드물었던 가물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관개수단들을 동원하여 관수도 하고 때를

놓치지 말고 이삭비료도 주는 등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잊을수 없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날의 그 간곡하신 가르치심은 올해에도 알찬 열매로 여물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첫물 꽃강냉이가 우리들, 인민들의 밥상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 풍년을, 이 기쁨을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수령님 기뻐오신 그 모든 로고를 생각하면 마땅히 우리모두가 가장 잘 익은 첫물 꽃강냉이를 고르고팔라 아버지수령님께 먼저 올려야 할것인데 수령님은 우리결에 안계시고 우리들만 받아안게 되었으니...

아,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정녕 우리들의 이 기쁨을 보실수 없단 말입니까?

나는 저도 모르게 줄줄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마음속으로 수령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꽃강냉이를 어루쓰는 나의 머리에는 어느해 늦은 여름에 있는 사실이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그때 량강도일대를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독일의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를 만나주시었습니다. 그날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자신께서 대홍단농민들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시며 못내 기뻐하시었습니다.

그가 무슨 선물이기에 주석님께서 그리도 기뻐하시는가고 묻자 수령님께서는 이제 알게 된다고 하시면서 손수 우등불을 피우시고 꽃강냉이 몇이삭을 구우신후 그에게 들려주시면서 이것이 농민들에게서 받은 큰 선물이라고 기쁨속에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는 너무도 감격이 커서 《주석님, 어찌면...》 하고는 더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행렬차》에 오르시여 인민들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신 수령님, 인민을 위하여 피바다, 불바다 천만리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이시기에 소박한 농민들의 정성이 깃든 몇이삭의 꽃강냉이에서 풍년든 강냉이작황을 그리시며 그리도 기뻐하신 것이었습니다.

따스한 김이 피어오르는 꽃강냉이를 바라볼수록 생각은 끝없이 깊어지기만 하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백두산시절을 생각하시며

때없이 유격대시절의 《어머니》로 부르시던 장철구 어머니의 집에 들리시어 장작불에 통강냉이죽을 썰달라고 하여 잡수시던 수령님, 우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 쓰시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농법도 안겨주시고 몸소 농업전선의 사령관이 되시어 삼복의 무더위도 동삼의 강추위도 아랑곳없이 농장벌을 찾아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셨고 때로는 꽃강냉이 한이삭으로 때식을 이으시면서 험한 포전길에서 찬이슬을 맞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한평생 쉬임없이 이어가신 그길은 조국땅 북변의 산간마을로부터 서해의 무연한 연백벌 이름없는 농장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뻗어있어 내 나라, 내 조국의 그 어디에 가나 수령님의 자옥은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것입니다. 하여 수령님을 뵈옵고 가르치심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 얼마이고 수령님의 거룩하신 발자취를 전하는 불멸의 사적비들은 또 얼마입니까.

80고령의 그 나날들에도 씨앗을 묻는 이른 봄부터 풍년든 작황을 거두어들이는 마가울까지 농민들과 더불어 들에 사시면서 온 나라 들판의 농사를 지도하여주시는 수령님을 우러르며 이제는 농장길을 그만 걸으시고 편히 쉬시기를 온 나라 인민들과 농민들이 그리도 간절히 소원했건만 그이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감해인 지난해에도 정초부터 농민들과 함께 계시면서 농사일을 두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니 인민 위해 바치신 그 사랑,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기울이신 그 로고가 그대로 알알이 풍년곡식으로 영글은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수령님께서 선선한 들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농촌의 들길을 밟으시며 잘된 강냉이대들이 비바람에 넘어질세라 걱정도 하시고 결실

이 좋다고 기뻐도 하시며 농민들속에 계시는것만 같습니다.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고 농촌길우에서 새날을 맞고보내시며 커가는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시던 우리 수령님같은분은 정녕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찌 먹는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사회주의체도의 모든 갈피마다에는 공기처럼, 햇빛처럼 아버지수령님의 로고에 젖은 사랑과 은덕이 깃들어있지 않은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투쟁의 걸음마다 언제나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품과 따뜻한 손길을 온몸으로, 폐부로 깊이 느끼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은덕은 오늘날이 아니라 래일도 영원히 계속될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그 사랑과 은덕을 새래 새롭게, 더 뜨겁게 절감하게 될것입니다.

한것은 아버지수령님과 꼭 같은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인민모두를 변함없이 따사로운 그 품에 안아주고계시기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 계시여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수령님의 아버지손길은 끝없이 끝없이 미쳐올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령도하시여 더욱 위대하고 더욱 부강하게 번영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과 더불어 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생활과 마음속에 영원히 주체의 태양으로 살아 빛나십니다.

눈물에 젖은 나의 눈빛에서 내 마음을 읽었는지 어머니도 서서히 눈굽을 찍는것이였습니다. 아니, 어머니도 그 걱정속에 함께 있었던것입니다.

우리 모녀는 한이삭의 꽃강냉이를 어루쓸며 오래도록 앉아있었습니다.

## 가사

## 승리자의 추억

김석천

즐거웠던 날은 때로 잊혀도  
어려웠던 날은 잊히지 않아  
초행길을 열며 걸어온 우리  
지나온 길 자주 돌아다보네  
아 추억은 아름다워라  
승리자의 추억은 아름다워라

얼음덮인 산밭 넘기도 했지  
피호르는 강도 건너서 왔지  
힘겹다고 그 길 에돌았다면

우리 어찌 밝게 웃을수 있으랴  
아 추억은 아름다워라  
승리자의 추억은 아름다워라

우리 지닌 추억 이어놓으면  
내 조국이 걸은 력사가 되리  
신념으로 지킨 붉은 기폭은  
추억중에 제일 소중한 추억  
아 추억은 아름다워라  
승리자의 추억은 아름다워라

## 벼락맞은 《청와대》

조국통일은 겨레의 제일가는 희망이며 소원이고 생명이다. 그렇기때문에 통일을 반대하는 사대매국노들에 대한 증오심은 활화산과도 같은것이다.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의거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서울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피하는 사대매국노들의 소굴인 《청와대》를 볼 때마다 《벼락을 맞고 뒤흔들놈들!》 하고 분노를 터뜨리곤 한다고 한다.

그들의 기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언젠가 《청와대》가 벼락을 맞았다. 그것도 대낮에 두번씩이나 벼락을 맞았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천벌이 아닐가?

그날 《청와대》 입구의 전주대와 그안의 한 건물에 벼락을 맞는통에 거기에 있던 《경호용》연막탄이 터져 폭음과 함께 시꺼먼 연기가 타래쳐 올랐고 안팎에서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하많은 건물중에서 어떻게 골라 골라 피뢰도당이 둥지를 틀고있는 《청와대》만 벼락을 맞았을가. 그러고보면 하늘도 결코 무심치 않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청와대》로 말하면 이름은 푸른 기와를 넣은 집이라는 뜻이다.

일제시기에는 《청와대》에서 《조선총독》이 살았고 해방후에는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은 리승만, 박정희를 비롯한 력대매국노들이 들여박혀 갖은 못된짓을 다하였다. 악당들의 소굴인 《청와대》를 이전에는 《경무대》라고 불렀었다.

이런 악명높은 《청와대》를 두고 어찌 하늘이 노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지금 서울한간에서는 이 사실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돌아가고있는데 그가운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구심점으로, 통일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르며 따르는 남녘민중들의 끝없는 추앙심이 낳은 전설도 있다.

서울에는 《달동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빈민촌들이 많다고 한다.

자리에 누우면 천정에 뚫린 구멍으로 밤하늘의 달이 보인다고 하여 그 누군가가 빈민촌과는 어

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빈민촌의 대명사로 되어 출판물에서도 《달동네》라는 이름을 종종 보게 된다고 한다.

어느 한 《달동네》에 마음이 어질고 착한 순영이라는 녀성이 아이 셋을 데리고 살고있었다.

그에게는 한해전만 하여도 억대우같은 튼튼한 남편이 있었다. 그들은 비록 《달동네》에 살기는 하였으나 서로 의가 좋아 가정에는 언제나 단란한 분위기가 넘치고있었다.

그런데 남조선피뢰도당이 도시를 정리한다고 하면서 그들이 살던 빈민촌을 강제로 철거시키는 바람에 한지에 나앉은 그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겨울이 거의 다 되어서야 어느 한 다른 《달동네》에 거접하게 되였었다.

그들은 거기서도 몇달을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였다. 그 《달동네》가 있는 땅을 어느 회사사장놈이 샀는데 그놈은 《구사대》를 동원하여 거기서 인민들을 내몰고는 불도젤로 판자집을 마구 밀어버린것이였다.

두번씩이나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남편은 더는 참을수가 없었다. 남편은 《달동네》사람들과 함께 서울시청에 찾아가 항의도 하고 지어 《청와대》에 고소도 하였으나 당국은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남편은 손에 닥치는대로 쟁기를 들고 마을사람들의 앞장에서 회사사장놈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러자 《구사대》놈들은 쇠몽둥이로 마을사람들을 닥치는대로 내리쳤다. 남편은 쇠몽둥이에 머리를 맞고 그자리에 쓰러졌다. 마을사람들이 그를 업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으나 이미 그는 저세상 사람이 되고말았다.

줄지에 끝날같은 남편을 잃고 세아이의 홀어머니가 된 순영녀성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것만 같았다.

《아이고- 날 두고 혼자 가시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아이고-》

녀인의 곡성은 듣는이들의 가슴을 허비였다.

그러나 돈없고 권세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

에다 하소할데도 없었다.

순영이는 자기도 죽으려 하였으나 어린것들이 붙쌍해서 그럴수도 없었다.

그는 할수없이 남자들도 살아가기 험악한 세상에서 아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생업에 나서지 않을수 없었다.

이렇다할 기술과 기능도 없는 순영은 항구적인 취업은 불가능한것이어서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의 도움으로 로점상을 차려놓았다. 그리하여 구차한 생계나마 근근히 이어가게 되었다.

아이 셋을 데리고 로점상으로 네식구가 살아간다는것은 여간만 힘든 일이 아니였다.

그러던 어느날, 순영이와 로점상인들에게 청천벼락이 떨어졌다. 로점상이 《거리질서를 어지럽히고 도시환경미화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서 그것을 일제히 단속, 근절하라는 괴뢰당국의 지시가 내려진것이였다.

《복지사회》를 건설한다고 떠들어대던 당국이 가장 빈곤하고 불안한 생활상황에서 허덕이는 로점상을 철거시키는데 대한 결정을 내린것은 그들을 로상에서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것이였다.

더우기 순영이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로점상을 폐지하면 당장 입에 풀칠조차 할수 없는 형편이여서 그것은 난파선에서 바다에 뛰여내린 사람한테서 구명대까지 빼앗는격이였다.

로점상인들은 《로점상철폐 절대반대!》의 구호를 들고 일제히 일어나 싸웠다.

당국은 경찰을 내몰아 그들을 무참하게 탄압하였다.

순영은 앞이 캄캄하였다.

장차 어떻게 살아갈것인가?

그런데 화는 쌍으로 온다고 설상가상으로 그에게는 또 한가지 불행이 덮쳤다.

그날 거리에서는 미제와 괴뢰도당의 민족분열책동을 규탄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있었다.

통일을 부르짖으며 자주, 민주를 위해 떨쳐나선 대학생들에겐 당국은 경찰을 동원해서 최루탄을 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것으로 대답하였다.

이에 격분한 대학생들은 성난 사자와도 같이 달려나가 놈들과 투석전을 벌리였다.

학교에 갔던 나어린 막내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 대오에 들어서서 함께 따라갔다.

어린 마음에도 대학생형님들이 하는 일이 옳은

것 같았고 자기도 그들처럼 싸우고싶었던것이다.

그런데 대학생들속에 섞여 작은 발자국을 내짚으며 쿵쿵 뛰어가던 막내는 그만 놈들이 마구 쏘아대는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대학생들이 그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후에 이 소식을 전달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순영녀성은 금시 심장이 멎는듯싶었다.

최루탄을 맞은 막내의 귀엽던 얼굴은 보기도도 끔찍했다.

막내는 마지막힘을 모아 가느다란 숨을 겨우 내쉬고있었다.

《애야, 엄마가 왔다. 어서 눈을 뜨렴.》

아무리 애타게 게 찾고 불렀으나 막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다.

순간 순영녀성의 눈에서는 불씨가 튀졌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어느놈이 죽였느냐? 내 아들을 내놓아라!》

그는 거리로 달려나갔다.

《내 아들을 내놓아라. 어느놈이 죽였느냐?》

그의 입에서는 연방 이런 웨침이 터져나왔다.

그는 저도 모르게 《청와대》로 향하였다.

《이놈들아! 내 아들을 내놓아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청와대》가 보이는 길 한복판에 서서 녀인은 두팔을 벌리고 절규하였다.

그러자 교통경찰이 녀인을 끌어갔다.

《나라? 이놈들아! 놓지 못하겠느냐?》

그날, 밤이 퍼그나 깊어서야 순영녀성은 교통경찰대에서 풀려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순영녀성은 이 쉼은 사정을 어디에도 하소할데가 없었다.

하늘도 무심하고 땅도 야속하였다.

《이 망할놈의 세상.》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못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 멀리 북녘하늘에서는 류별나게 큰 별 하나가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저 별, 저 큰별이 항도성이 아닐까?》

몇해전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모여앉아 《이북의 밤하늘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별과 함께 친애하는 **김정일**장군님별이 떠서 밝은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인민을 위한 정사를 베푸시는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항도성이고 구심점이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순영은 저도 모르게 북녘하늘에 솟은 큰별을

향해 부르짖었다.

《별님, 큰별님! 미국놈과 한짝이 되어 돌아가는 저 <청와대>놈들에게 벼락을 내리게 해주옵소서..》

그가 두팔을 벌리고 이렇게 웨치자 갑자기 그 별이 더 밝은 빛을 뿌리었다. 그의 기원이 별에 닿았는가.

하늘은 높아도 낮은데서 하는 말을 듣는다 하더니 정말 그런것 같았다.

그 다음날이었다.

청청한 서울의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구름장이 짙어졌다.

당장 비를 쏟을듯싶었다. 하늘에서 번개불이 번쩍하더니 전등이 울었다. 그와 동시에 《청와대》쪽에서 지끈 딱!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다.

《청와대》가 벼락을 맞는 소리였다.

《청와대》입구의 전주대와 그안의 한 건물이 두 번쩍이나 벼락을 맞아 거기에 있던 《경호용》연막탄이 터지는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일부함원에 오월비상》이라 한 녀인의 권한에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더니 정말 순영녀성의 원한이 하늘에 닿아 하늘에서 《청와대》에 벼락을 내린것이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날 구름이 백두산쪽에서 날아왔는데 그것은 **김정일** 장군님께서 정일봉마루에 오르시여 천하를 굽어보시다가 악행을 일삼는 《청와대》놈들에게 벼락을 내리게 하신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말에 근거를 달았다.

바로 그해 《청와대》가 벼락을 맞은 그날이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어느 한 인민군 군부대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고 한다.

그때 군부대책임일군인 장령은 최근 분계선에서의 미군과 피뢰군의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였다.

남조선피뢰도당은 미국과 함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벌린데 뒤이어 또다시 《독수리90》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광란적인 북침전쟁소동을 일으키고있었다. 그런데 놈들은 또 계속하여 서울과 주변지역에서 피뢰군, 경찰, 《향토예비군》 등 14만여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방패90》전쟁연습을 벌려놓았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분계연선에서는 놈들의 무

장도발책동이 더욱 우심하였다.

얼마전 북남고위급회담때에도 우리 공화국정부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긴급문제로 제기하는것과 함께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사단급이상의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놈들은 대화의 막뒤에서 북침을 노린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을 항시적으로 벌리고있었다.

보고를 받으신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몹시 격하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고 한다.

《매우 고약한놈들입니다. 시대와 겨레의 념원에 역행하는 놈들의 처사는 7천만 우리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후 갑자기 어디선가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번쩍거리고 천둥이 울었다고 한다.

금시 한소나기 쏟아질듯싶었다.

장령은 고지에 오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비를 맞으실것 같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짜르릉! 짜르릉! 연거퍼 천둥소리가 울렸다.

하늘을 올려다보던 장령은 놀라서 눈을 크게 흘렸다.

머리우에 뒤덮였던 검은 구름은 무엇을 덮치려는데 남쪽으로 황황히 밀려가는것이였다.

이윽고 먼 남쪽에서 쿵 쿵르릉 하는 천둥소리가 포성마냥 은은하게 들려왔다. 그제야 장령은 후-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이런 일이 있는지 며칠 안되는 어느날, 장령은 신문을 보다가 한 기사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고 한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부대에 오셨던 바로 그날 낮에 《청와대》가 벼락을 맞았다는 소식이 실렸던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연한 일치라고 하겠는가.

사람들은 호풍환우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풍운조화를 부리시여 놈들에게 벼락이 내리게 하신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군한다.

그후부터 피뢰도당은 《청와대》를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은밀히 준비를 하고있다고 한다.

피뢰도당에 대한 원한과 원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언제 또 《청와대》에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겁을 먹은것이라고 하였다.



## 동트는 새벽에

밤은 깊어가고있었다.

수도의 거리에 달리던 차들도 뜨음해지고 고층 살림집의 창문들에 밝은 불빛도 하나둘 꺼져갔다.

첫눈이 덮인 극장 정원의 나무들도 깊은 잠에 취한듯 조용히 서있었다.

1972년 11월 29일밤은 어느덧 흘러가고 새날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대극장에 나오시여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마지막시연회를 보시며 최종적인 수정대안을 밝혀주시고 떠나신 지도 퍼그나 시간이 지났으나 무대에서는 한참 가극연습이 진행되고있었다.

창작가, 예술인들은 누구나 지치고 피로했다. 그러나 누구 한사람도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웃고 떠들며 긴장하게 사색하고 창조활동을 벌려나갔다.

어느덧 시간은 새벽 3시를 가까이하고있었다.

이때 창조현장의 어느 한 방에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연출가를 찾으시는 전화였다.

연출가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것을 느끼며 급히 전화를 들었다.

(지금이 몇시인데 아직 그이께서 주무시지 않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정다운 음성이 울리었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가사들을 다시 읽어보았는데 2장 2경에 나오는 노래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가사에서 <갈수록 더하는건 슬픔뿐이요, 쌓이고 쌓이는건 천대와 멸시>라고 한것을 <쌓이고 쌓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라고 고쳐야 하겠습니까.》

그이의 말씀을 받아적으며 연출가는 목이 메여 아무 말쑈도 드릴수 없었다.

몇시간전까지 친히 극장에 나오시여 가극창조를 지도해주시고 떠나가신 그이께서 새벽 3시가 지났는데 아직도 가극형상문제를 두고 심려하시면서 한밤을 지새우고계신단 말인가.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웠다.

연출가는 그이께서 고쳐주신 가사를 다시 입속

으로 외워보았다.

원래 가사는 이렇게 되어있었다.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불쌍한 우리 신세 너는 아느냐  
갈수록 더하는건 슬픔뿐이요  
쌓이고 쌓이는건 천대와 멸시

그런데 경애하는 그이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치면 이렇게 된다.

달아달아 처량하게 밝은 저 달아  
불쌍한 우리 신세 너는 아느냐  
쌓이고 쌓이는건 슬픔뿐이요  
갈수록 더하는건 천대와 멸시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 단순한 단어의 자리바꿈이 아니라 가장 적중하고 정확한 표현이고 뜻도 깊어졌으며 형상성도 풍부해졌다.

그야말로 주옥같이 다듬어져 단어들이 이제야 빈틈없이 제자리에 들어앉은 가사를 되새겨보며 연출가는 크나큰 감동에 잠기면서 한편 자책의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시실 이 가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 작가, 작곡가, 연출가, 배우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굴러질대로 굴러져 다듬어질대로 다듬어졌기때문에 바늘끝만한 빈틈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전문가들도 완벽한것으로 치부한 거기에서 바로 빈틈을 발견하시고 더 완벽한 경지에도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그이의 예지는 얼마나 놀라움고 비상히 높은 경지에 이른것인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계속하여 혁명가극의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련결하였는가고 물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경계문에서 <철용은 감옥에서 탈옥하여 혁명군이 되었다>를 <철용은 감옥에서 탈옥하여 혁명군으로 자랐다>로 고치는것이 좋겠습니다.

등장인물소개에서도 의사라고 하면 현대감이 나므로 약방주인이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연출가는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며 가극을 이루는 장면 하나로부터 글자 하나, 음부 하나까지 관심을 둘리시여 높이 이끌어주시는 그이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하여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사실 분김에 지주집에 불을 지르고 잡혀갔다가 탈옥하여 혁명군에 들어간 철용이를 두고 어떻게 단순히 《되었다》로만 하겠는가. 거기에는 의식상 낮은 단계로부터 혁명적세계관이 선 혁명가로 자라기까지의 피어린 과정이 놓여있는것이니 《자랐다》로 하는것이 정확할뿐아니라 깊은뜻이 담겨지게 되는것이다.

그이께서 걸어주신 전화를 받고난 연출가의 생각은 깊어졌다.

사실상 혁명가극은 누구나 완성된것으로 생각하고있었다.

이제 새날이 밝으면 위대한 수령님을 보시고 첫 공연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이 마지막밤마저 지새우시며 혁명가극을 완벽한 경지에 이끌어올리시기 위해 로고를 바쳐가시는것이 아닌가.

연출가의 눈앞에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창조사업을 진행해온 129일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그 짧지 않은 기간 어느 하루 한 시도 그이의 지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날이 없던가.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새우신 그 수많은 밤과 밤을 거쳐 이처럼 온 세상을 뒤흔들수 있는 명가극이 태어났음을 후손만대를 두고 전해야 하리라고 그는 가슴뜨겁게 생각하였다.

## 자전거산보

### 채동규

30 분쯤 예돌아 스프링 스프링  
퇴근길에 의례히  
나는 포전길로 자전거산보 나서군한다  
이른아침 논머리에서 걸어올린  
바지가랭이도 내리지 않은채

마을에서 포전길  
그 멀지 않은 길도 넘려하시여  
몇해전 수령님이 보내주신  
사랑의 자전거 아닌가  
바친 사랑 묻은 땀이 무르익는 포전길이  
오늘은 즐거운 산보길이 아닌가

피로도 건듯 풀고  
또 하루 내가 가꾼 들풍경도 즐기며  
이런저런 추억도 하고  
가지가지 희망도 싹틔우며...

오늘도 모든것이 신비롭기만 하다  
물감처럼 퍼져가는 초저녁노을아래  
검푸르게 일렁이는 한여름 들란  
멀리 또는 가까이에, 머리위에 또는 발부리에  
온갖 모양과 빛갈과 소리들의 엇갈림

하냥 맑은 바람에 옷자락 날리며  
강냉이 이삭패는 사이로 슬쩍슬쩍 누벼가는  
재미란  
향토를 가꾸는 사람만이 맛볼수 있는것  
하나 줄지어오는 양떼들을 헤치고싶지 않아  
나는 잠시 들길에 내려서기도 한다

이런 때 내가 청춘인것이 다행이기도 하다  
자전거 앞바퀴에 파랗게 오른 풀물을 보며  
《인생은 푸르다》 시제목도 하나 골라내니  
밤낮없는 창조와 생활의 드바쁨속에서도  
이런 흥그러운 시간 보내는게 스스로 놀라웁다

아니, 하 많이 피어나는 생각의 불길로 하여  
내 머리속은 뜨거웁다  
내 안겨사는 어머니대지  
조국의 안녕과 부강을 바라는 소원으로 하여  
내 가슴은 그들먹하다

아 자전거산보길의 모든것이  
나의 열렬한 감격 자아내거니  
노을타는 누리를 향해 고개를 추켜들면  
이 이름없는 공민의 숨줄이고 냇의 전부인  
내 나라, 내 조국의 숨소리가 분명코 들려온다

이 거대한 포옹속에 몸을 맡기며  
나는 어쩔새없이 눈곱 적신다  
더더욱 복되여질 조국의 래일을 축원하여  
고느직한 들가운데 너뿐 앞드려  
아, 열백번 절이라도 하고싶어진다

언제나 조국앞에 진실하리라  
사심없이 조국 위해 분투하리라  
내 마음 정히 가다듬는 자전거산보!  
바친것 있어 부끄럼도 없이  
붉은 노을 휘저으려 가슴도 부풀어  
나는 자전거 발디디개 채우 밝는다  
래일을 향하여!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광범한 군중이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굳게 단합되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었습니다.》

김정일

수기

## 《김일성장군 만세!》

항일혁명투사 박광선

해마다 8월이 오면 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백두밀림을 넘나들며 일제와 싸우던 잊지 못할 나날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곤한다.

조국해방 50년이 되는 올해 8월을 맞고보니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해주시려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며 한평생을 보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사무쳐와 저려오는 아픈 마음을 달래일길 없다.

높푸른 하늘에 밝게 빛나는 태양도 어언 반세기전의 그날처럼 눈부신 빛을 뿜어 일제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던 승리의 그날을 련상케 하고 곳곳에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보노라면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며 메아리쳐가던 그날의 환호성이 귀전에 쟁쟁한 가운데 나의 눈앞에는 젊으신 수령님의 영상이 더더욱 또렷이 새겨질뿐이다.

수령님을 그리며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수도의 거리거리들에서 명절분위기에 잠겨 흥뜬 새 세대들의 모습들을 띄어보노라니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행복한 오늘의 사회주의락원을 그려보며 일제를 치고 간고한 전투와 행군으로 나날을 보내던 그런 피어린 싸움의 길이 앞에 있었다는것을 저들이 잊지 않을가 하는 로파심이 슬그머니 들기도 한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잔근심이려니 하면서도 나는 50여년전 8월의 그날을 다시한번 이야기하고싶은 마음에서 이 펜을 들었다.

1945년 8월 9일 새벽.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세우신 작전계획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에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최후공격작전을 개시할것을 명령하시였다.

《동무들! 공격이요!》

《조국해방작전이 개시되였소!》

누군가의 웨침소리에 우리는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그때 우리는 남벌리에 대한 습격전투를 진행하고 나서 출발진지에 돌아와있던참이였다.

잠시후 지휘원동무가 사령관동지께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신데 대하여 격동적으로 전달하였다.

우리는 곧 결전장으로 내달렸다.

우리가 일제침략군의 혼춘요새를 점령하고 곧장 두만강을 향해 진격하는 때에 린접부대동무들은 《경흥(은덕)요새구역》으로 돌진하고있었다.

청학일대에서 적들이 집요하게 저항하고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놈도 남기지 말고 다 족쳐버려야 겠다고 으버르는데 청학은 물론 경흥(은덕)이 해방되였다는 기쁜 소식이 연방 전해졌다.

우리가 혼춘요새를 점령할 때 《경흥(은덕)요새구역》이 녹아났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작전전술적조치에 따라 적들의 견고한 《요새구역》들이 하루아침에 물먹은 흙담벽처럼 썩썩 무너져나갔다.

《경흥(은덕)요새구역》이 우리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도 빨리 조국땅에 들어서자고 공격속도를 높이고 또 높였다.

8월의 찌는듯한 무더위에 군복어깨는 소금버께가 두터이 쌓이고 그우에 또 땀구멍을 낼것 같은 소낙비가 쏟아져 한벌 쪽 씻어버리면 이번에는 또 포연과 흙먼지가 한벌 쌓여 찻찻해졌다.

온몸이 땀, 먼지, 소낙비, 포연에 뒤범벅이 되였지만 오직 총만은 튼튼히 부여잡고 목에서 쇠비린내가 확확 풍겨날 때까지 우리는 달리고 또 달

리였다.

사실 우리의 진격속도는 적들의 야수적만행을 목격한 뒤부터 더욱 빨라졌다. 《혼춘요새구역》의 중심인 혼춘을 해방하고 시내에 돌입했을 때였다.

우리는 시내북판에 있던 혼춘감옥에서 놈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고 치를 떨었다. 감방안에는 한 시간전에 놈들이 죽인 수다한 시체들이 아직 채 식지도 않은채 있었던것이다.

우리는 이 격동적인 시각에 희생된 사람들을 부여안고 다시금 천백배의 복수를 다짐하였었다.

그 길로 우리 대오는 더욱 진격속도를 높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부대에 주신 공격목표를 향해 우리는 혼용쪽으로 달리였다.

우리가 혼용의 대안인 대팔령에 이르니 놈들은 여기서 결사전을 할 태세로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우리는 배후타격과 정면공격을 유기적으로 배합하여 숨쉴틈이 적들을 답새기였다.

놈들은 먼저 체놈들의 지휘부가 녹아나고 그다음 정면공격을 일시에 받게 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제멋대로 발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무모한 저항을 하지 말고 당장 항복하라고 소리치며 계속 공격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적들은 더는 건딜수 없었던지 갑자기 사격을 멈추고 항복하였다.

적장교들중의 한놈이 전장의 한복판으로 군도를 두손에 높이 받쳐 들고 걸어내려왔다. 그뒤를 이어 적병들이 줄레줄레 총을 들고 내려오더니 항복의 뜻으로 들고있던 총들을 무더기무더기 쌓기 시작하였다.

맨앞에서 내려오던 적장교놈은 우리들앞에까지 와서 두손으로 군도를 받쳐든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우리는 대팔령전투이후 곧 혼용으로 진격하게 되었다.

대팔령에서 두만강에 건너놓은 혼용교를 지나면 혼용땅인데 혼용일대는 이때 일제놈들이 최종방어선이라고 할 지경으로 병력을 집결하고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있는곳이었다.

혼용에 있는 깃탈산에는 일제놈들이 큰 군수창고들을 많이 지어놓고 두만강연안 국경일대의 저들의 《요새구역》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군수물자를 저장하고있었고 그뒤에는 마유산이 솟아있었다.

놈들은 이미 1년전부터 이곳에 저들의 병력을 집중하고 이 일대를 튼튼한 보루로 다져놓았다.

나는 부대로부터 몇몇 동무들을 데리고 먼저 두만강을 건너가 혼용일대의 적정을 탐지하며 특히 깃탈산을 끼고있는 마유산일대의 적력량배치정형을 시급히 정찰할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

일제침략자들은 대팔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받자 곧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로를 차단하려고 혼용교를 폭파해버리었다.

8월 9일 오전에 혼용교가 폭파되니 그러지 않아도 두만강이 불어난 때라 부대의 진격에 일시장애가 조성되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는 혼용을 해방하자면 먼저 적들이 지탱하고있는 마유산, 월명산을 손에 넣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혼용일대는 개활지대이고 그 주변의 산들은 적들이 다 차지하고있으니 우리가 공격하는데는 매우 조건이 불리하였던것이다.

더우기 일제는 혼용교를 폭파하는 동시에 마유산, 월명산 일대에 제 79, 제 127 사단관하 부대들을 새로 배치하고 유리한 산악지형에 의거하여 아군의 진격을 저지시키려고 시도하였다.

때문에 혼용을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마유산과 월명산계선의 적들을 격멸소탕하여야만 하였다.

부대에서는 우리 정찰조를 파견하면서 될수록 은밀하게 행동하여 적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할뿐 아니라 시간이 매우 급하니 속한 시간내에 적정을 알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때 적들은 마유산꼭대기에 저들의 감시초소와 지휘부를 두고있었다.

우리 정찰조는 두만강물이 몹시 불어난 조건에서 작은 고무배와 구명대를 가지고 은밀하게 적들이 주시하고있는곳에서 조금 상류쪽으로 올라가 두만강을 도하하였다.

이곳은 강변이 절벽으로 되어있어 아군이 진격하지 않으리라고 타산하고있었던 모양으로 경계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

사실상 우리 정찰조와 같은 적은 인원은 여기에 발을 붙일수 있지만 대부대는 여기로 올수가 없는곳이었다.

우리는 무전기를 가지고 강을 건너온 다음 깊은 개골이라고 불리우는 마유산 뒤편 산골짜기로 깊이 들어가 적들의 뒤에서 정찰을 시작하였다.

일제침략군놈들은 대팔령이 녹아나고 우리의 진격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불원간에 치렬한 전투가 있으리라는것을 예견하고 그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나는 일본군복으로 얼른 갈아입고 적들속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한데 놈들은 며칠전에 여기로 온 놈들이라 지형지물에도 익숙치 못하고 또 여러곳에서 모아왔는지 저들끼리도 서로 다 알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나는 이런좋은 기회를 타서 우리 동무들과 함께 놈들이 포진지를 다진다, 교통호며 참호를 더 손질한다 하고 부산을 피우는데를 빼앗아 뚫고 들어가 여기저기를 술술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한데 어느놈도 우리를 눈치채지 못하고 저마다 제일이 바빠 헤덤비고있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적들의 방어시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중에는 적군 지휘부의 위치를 알아내었다.

이때 우리는 적들의 정신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되었다.

적군 지휘부가 자리잡은 마유산꼭대기에 올라서니 저 멀리 류다섬의 강냉이밭이 한눈에 안겨오고 혼춘시내도 보일뿐아니라 두만강 대안에서 진격하는 아군의 전장터도 보이였다.

이런 조건에서 적장교놈들이 이제 있게 될 전투를 놓고 최후를 각오하고있든듯 갑자기 전체 인원에게 (그때 이 산에만도 2개련대이상의 병력이 집결되어있었다.) 새옷을 공급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신발로부터 양말, 내의, 군복, 모자까지 다 새로 공급하느라 벅적 고았다.

당장 가렬한 전투를 앞에 두고 이렇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새옷을 받은 적병들도 어리둥절한 모양 수군덕거렸다.

그중 한놈이 《죽은 다음에 누가 새옷을 입혀주겠는가. 그래서 다 새것으로 갈아입고 죽자는거

야.》 하고 말하였다.

결국 놈들은 패망을 똑똑히 알고도 발악하려는 심산이었다.

우리는 곧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가지고 무전으로 부대에 보고하였다.

그날은 8월 11일이였다.

나무가 무성한 산중턱에 무전기를 설치하고 먼저 적지휘부의 위치를 보고하였다.

부대에서는 우리의 보고를 받자 즉시 강력한 포사격을 들어대였다.

마유산에서 두만강 대안까지는 약 10 리도 채 못되었다.

11일 밤에는 공격하는 아군부대가 두만강을 도하여 마유산, 월명산 계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하였다.

전투는 치열하였다. 그러나 먼저 지휘부가 녹아나는바람에 놈들은 혼란이 일어나 대단히 견고한 영구화점이 있었지만 어찌지를 못하고 각개동작을 하기 시작하였다.

12일, 13일까지 놈들은 발악하였으나 끝내 마유산, 월명산에 시체더미를 쌓고 패배하였다.

놈들은 나중에 마유산밑에 있는 철도선, 도로, 강냉이밭 세 계선에 3선으로 저들의 방어인원을 배치하였지만 우리와의 육박전에서 몽땅 녹아났다.

그때 적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았던지 전투후 그것을 미처 거두지 못해서 마유산, 월명산 계선은 송장썩은대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적 2 개련대가 거의 전멸되다싶이한 치열한 전투였다.

우리는 이 지역의 패잔병무리도 완전히 소탕하고 훈용, 새별 일대를 해방하였다.

다시 부대는 남양, 회령 방향으로 달리였다.

우리는 8월 15일까지 자기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였다.

이 시기 다른 부대들도 각기 자기가 맡은 구역들을 해방하였다.

린접부대는 《선봉-라진요새구역》을 돌파하였으며 다른 부대는 동흥진에서부터 서토문자, 두황자, 금창으로 노도와 같이 내달렸다.

백두산지구에 집결된 부대는 국내 중심깊이로 뚫고들어갔으며 적의 《동녕요새구역》을 돌파한 부대는 동녕, 로혹산, 라자구 방향과 목릉방향으로 진출하였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발을 맞추어 적배후에서 전인민적항쟁의 불길이 료원의 불길처럼 타버렸다.

우리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손에 총과 지어 곡괭이, 낫과 몽둥이를 들고 따라나서는 수많은 무장인원들과 만났으며 해방의 감격에 목메여 울고 웃으며 만세를 부르는 인민들과 상봉하였다.

우리가 새별군에 들어갔을 때 온 군이 떨쳐나

와 만세를 부르는데 그 광경은 참으로 눈물없이 는 볼수 없는 화폭이였다.

얼굴에 주름투성이인 늙은 할아버지가 베감투를 쓰고 막대기에 가까스로 의지하고 서서 자꾸만 눈물을 흘리며 《소원을 풀어주어 고맙소. 내 벌써 바깥출입을 하지 못한지 오랜데 오늘은 성큼 일어서서 나왔소. 이제 만세를 부르다 죽어도 한이 없소.》 하며 그냥 또 울었다.

아들딸을 다 일제놈들의 《토벌》에 잃고 홀로 된 늙은이라고 하였다.

한 녀인은 아래도리를 발가벗은 아이를 안은채 물동이를 길가에 놓고 물이라도 마시라고 권하며 기뻐서 울고있었다.

어떤 녀인들은 꽃강냉이를 한합지 찌이고 나와서 이 강냉이라도 한이삭 들라고 손에 쥐여주었다.

《사람이 살다 이런 날도 있소구려. 해방을 보는 날이 오다니!》

《이게 꿈은 아니겠지요. 분명 생시가 맞지요?》

거리와 거리, 마을과 마을, 온통 기쁨에 설레이는 이날, 이 기쁨을 보지 못하고 간 사람들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는 한 마을에 이르러 모여온 사람들에게 간단히 선동연설을 하였다.

일제통치 41년간의 암흑의 세월은 끝났다는것, 오늘의 이 해방을 가져다주시기 위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우리들을 진두에서 지휘하고 계신다는것, 이제 오래지 않아 장군님을 높이 모신 새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모두 잘살게 된다는것을 알려주었다. 인민들은 우리의 연설을 듣더니 박수를 크게 치며 만세를 불렀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해방 만세!》

거리와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만세의 환호성이 멀리멀리 메아리쳐갔다.

먹지 않아도 자지 않아도 좋았다. 누구를 보아도 마주 웃고싶은 이날이였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조국은 해방되였다.

강도 일본제국주의는 무조건 항복하였다.

승리자의 패감은 싸워본 사람만이 안다.

열여섯살부터 손에 총을 들고 나섰던 나는 만 16년만에 일제가 망하는 날을 보았다.

기쁜날 우리는 희생된 동지들을 그려보았고 준엄하였던 나날도 돌이켜보았다.

참으로 잊을수 없는 나날이였고 기다리던 이날이였다.

우리는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고 또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새 나라, 새 조국을 건설할 커다란 희망과 포부로 가슴 설레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빨리도 흘러갔다. 흐르는 세월 강물과 같다더니 해방의 그날로부터 어언 5

0 년이라는 년륜을 새긴것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흘러도 어찌 가슴 벅차게 안아보던 8 월의 그날을 잊을수 있으랴.

잊지 못할 그날을 되새기느라면 가는곳마다에서 인민들과 함께 목청껏 부르던 《**김일성**장군 만세!》의 웨침소리가 심장깊이에서 터져나온다.

《**김일성**장군 만세!》

우리 혁명의 1 세들이 부른 이 환호는 주체혁명

위업완성의 길에서 대를 이어 불리워질것이며 위대한 《**김정일**장군 만세!》와 더불어 영원한 **김일성**조선의 찬가로 될것이라고 크게 확신한다.

나는 우리의 새 세대들이 혁명의 선배들이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결사옹위한것처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받들어 천세만세 **김일성**민족의 존엄을 길이 빛내여주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치는바이다.

## 머리를 숙이노라

-한 외국인 건축가가 부른 노래-

성해룡

나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기아와 영화가 뒤섞인  
디팡스의 《현대거리》를 지나  
야심의 승벽이 하늘에 치솟은  
시카고의 마천루를 날아넘어  
내 지금 서있는곳은...

아슬아슬한 건축미에 매혹된 백만장자들이  
눈부신 황금을 나에게 제공하며  
비행기로 초청장을 실어보낼 때  
력사의 명인이냐 된듯싶었다

허나 내 여기  
그 뉘의 부름받고 온곳이 아니여라  
그 뉘의 떠밀음에 온곳 또한 아니여라  
깊은 밤 별빛에 이끌린 나그네처럼  
새로운 교리에 매혹된 신자처럼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찾아온 사람

믿으려니 나에겐 너무도 아름답다  
무더운 한여름 한쌍의 두루미인양  
빙상무용의 나래펼치던 그 어린것들이  
근로자의 자손들이 옳단 말인가

정녕 옳단 말인가  
억만금의 진주보석주단을  
제집 프락 거닐듯 밟고 지나던  
젊고 살결맑은 그 산모가  
흔한 건설자의 머느리라 하던 달이

나는 과연 누구에게  
한생 별당을 지어 바쳤는가  
아, 피롭구나  
기형의 점과 선으로  
대재벌의 비위를 맞춰온 건축의 모독자  
황금의 노예가 된 이 가궁한 불행아여

문노니 아득한 세계건축사여  
페타사원의 으리으리한 성상을 우리려  
념불처럼 외우던 지상천국을  
누가 어디에 일떠세웠는가

말해다오 네 갈피 헤쳐  
한사람의 왕과 왕후의 무덤을 쌓으며  
수십만의 노예가 수십년 목숨을 바친  
기제의 헤오프스 피라미트군이  
파연 인류에게 무엇을 선사했던가

아니구나 여기는  
내 오색조명 관광하는 카운다에 취해있을 때  
문밖에선 나의 친구 실업자 토마스가  
나렁구는 짐함속에 잠든채 숨지던  
《자유》의 한지가 아니구나  
참말로 땅우의 락원이구나!

내 이제 더 묻지 않으리다  
나에게 쏟아지던  
황금의 가치로는 계산되지 않는  
그 거대한 궁전들이  
보통 사람들의 자식들에게  
어떻게 통채로 안겨지는가를

오, 인민에게 한생 바치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그 뜻으로  
참건축의 새사를 펼쳐가는  
조선의 건축가들이여  
인류건축창조의 행운아들이여

그대들앞에  
내 한생 젖히고만 살아오던  
이 머리 깊이 숙일 때  
참된 점과 선을 깨우쳐준 그네들의 조국에  
세계의 건축사가 머리를 숙이노라

## 류다섬 외 1 편

### 리정택

놓고싶지 않은  
소중한 그 무엇처럼  
두만강도 랑팔을 벌리고 꺼안은것 같구나  
버들숲 정다운 류다섬이어

초가이영 없는 작은 집 두채  
티없이 정갈한 프락에 들어서니  
금시 그날의 우렁우렁한 수령님 음성  
젊으신 수령님의 모습도 문득 비울듯  
마음은 한없이 숨엄해지누나

급게 단장한 단발머리처럼  
초가이영은 해빛에 빛나고  
매혹칠한 벽체는 살결처럼 밝은데  
문들은 조용히 닫혀있구나  
열리면 금시 그날의 화폭도 펼칠듯이...

버들아지마다 눈망울이 방긋이 웃던 날  
두만강물소리도 높던 그날  
오시였어라  
젊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강도 일제의 칼부림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 안아일으키시려  
찾아야 할 내 조국 해방전에  
사선의 고비 넘고 헤치시며  
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신 그 이듬해

오시여  
억압의 채찍에 피멍든 인민들의 마음도  
터갈린 손등도 쓸어주시고  
우러러 목메이는 공작원들  
지하소조책임자들에게  
혁명투쟁의 방도도 가르쳐주시며

신심과 희망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  
그날의 호탕한 웃음소리도 들려오는듯하구나

류다섬 류다섬이어  
그날이 있어  
북변의 이름없던 작은 섬마을이  
온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고  
아버이수령님 그 자옥 못잊어  
세월을 넘어 찾아오는 발걸음도 끝이 없구나

그리워  
못내 그리워  
오늘도 초가집앞에 서니  
수령님 모시였던 그날처럼  
마음속엔 말못할 뜨거움이 차오르고  
그날의 수령님앞에서 새 임무도 받아안은듯  
맹세도 새롭게 다지게 하누나

내 나라 그 어느곳인들  
수령님 발자취 어리지 않은곳 없다면  
지경이 끝나는 북변의 한끝에서  
항일의 날 수령님 자옥어린 마당에 서니  
멀고 외진곳  
강가의 작은 섬마저 한품에 다 안고  
피어린 혈전만리 헤쳐오신  
수령님 생각에 가슴은 뜨거워라

아 정녕  
이 뜨거운 마음 영원히 식지 않으리  
만대에 빛날 수령님 업적 길이 전하며  
오늘처럼 이 순간처럼  
수령님앞에 자신을 세워보며  
충효의 한생을 빛내여가리라!

## 나는 알았네

열풍이다  
사막에서 황토먼지 휘감아올려선  
높다란 집 창문을 두드리고  
온통 하늘을 뒤덮는다  
비구름인가 불구름인가  
눈조차 뜰수 없구나

아, 뜨거운 이국의 바람속에서  
무더운 열기속에서

내 느끼는 마음이어  
바라는 소원이여

단풍든 금강우에 비낀 한점의 푸른 하늘이  
향산에 흐르는 꿀맛같은 바람이  
얼마나 얼마나 날 못건디게 부르는지  
이 한순간만이라도 다시 서고싶은  
내 조국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조국인줄  
나는 알았네  
일년내내 안개끼는 도시여

거리를 거닐면서  
발바닥 뜨거운  
사막우의 도시를 거닐면서

## 인민이 호응한다

김명철

우리의 기발처럼  
하늘 가득 노을이 퍼지는 이 아침  
새로운 활기에 넘쳐  
일터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니  
문득 뜨거운것이  
가슴에 북받치는 뜨거운것이 있노라

그것은 당이여!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그대 오늘 높이 추켜든 구호가  
인민의 표대로 되였다는 생각  
보다 큰 승리에로 부르는  
그대의 힘찬 목소리에  
인민이 떨쳐나섰다는 생각

보라  
저 당창건기념탑 건설장  
물보라 흘날리는 철골의 숲을  
군민이 어깨결고  
로반을 다져가는 문수-런못도로 건설장에서도  
그대에게 드리는  
신념의 노래가 울리고있나니

그대의 부름 받들고  
발동소리 우렁차게 들을 누벼가는  
저 기계화초병들에게  
혁명에 대한 신념은 묻지 말라  
필필이 비단천에  
정성을 수놓아가는 저 직포공들에게도  
묻지 말라 조국에 바치는 사랑을

격량이 앞을 막아도  
대양을 헤쳐가는 우리 무역선단은  
그대가 짙어준 항로 바꾸지 않으리라  
일감은 아름답도  
날을 따라 치솟는 우리의 연제들우엔  
그대 정해준 날자를 앞당겨  
준공의 꽃테프 줄줄이 드리우리라

탄전의 갱막장  
쉽없이 돌아가는 착암대차들이  
그대의 숨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두줄기 은빛레루  
긴긴 렬차의 기적소리도  
그대의 발구름타고 메아리치나니

그 무엇을 서슴코 무엇이 두려우랴  
그대의 사상은 진리  
그대의 위업은 정의  
그대가 결심하면  
한마음 굳게 뭉쳐 그 결심대로만 하는  
좋은 인민을 가진 당이여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여  
오로지 인민을 위해  
한생을 다 바치신 수령님은 가시였어도  
수령님과 꼭같이  
또 한분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신다는  
크나큰 행복이 우리에게 있노라  
더없는 영광을 우리 인민이 누리노라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영광이 얼마나 빛나는가를  
심장으로 깨우친 우리 인민이기에  
내 나라의 부강과 번영  
내 조국의 창창한 미래를 부르는  
그대를 받들고 그대 따라 나아가나니

오, 당이여!  
폭풍 사납고 가는 길 험난할수록  
혁명의 북소리로 누리를 떨치라  
주체의 기치 높이 90년대 언덕을 넘자  
그대와 더불어  
반세기 눈비속을 승리로 헤쳐온  
우리가 호응한다  
인민이 호응한다

## 명제해설

《극적인 이야기는 긴장감이 있어야 하고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강한 견인력을 가져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극적인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극절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강한 정서적견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극적인 이야기의 세번째 특징을 이룬다.

충격적이고 극절이 있는 이야기는 다 긴장감이 있고 정서적견인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충격적이라는 말자체가 사람의 감정에 대한 강한 자극을 말하는것만큼 그 밀접한 연관성을 부인할수는 없다. 그러나 일정한 차이가 있다.

정상적인 생활의 흐름이 깨여지고 예상이 뒤집어지는 충격적인것, 일정한 극절이 있는것이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긴장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것이 아니며 또 그 정도도 개별적인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법이다. 어디까지나 인물들이 겪는 그 충격과 극절이 그대로 독자들에게 옮겨져 독자자신의 심리정서적 충격과 극절로 전환되여야 한다. 이로부터 긴장감과 정서적견인력 문제는 작품과 독자사이의 감정적연계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극적인 이야기의 미학적특징을 규정하는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진 문제로 된다.

이야기의 긴장감은 주인공에 대한 깊은 공감과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을 보는 흥미가 하나로 결합될 때 생기는것이다. 그러므로 극적인 이야기가 긴장감과 흥분을 불러일으키는것으로 되자면 세가지 요구가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로, 주인공에 대한 깊은 공감이 조성되여야 한다.

독자에게 강한 공감을 주지 않는 긍정인물은 아무리 그가 충격적인 극절을 겪고있어도 보는 사람에게 별로 큰 충동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그러므로 극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이 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주도록 그의 성격과 생활을 잘 그려주는것은 극적긴장감조성의 첫째가는 조건으로 된다. 자주적인 인간전형은 더 말할것도 없고 복잡한 모순에 찬 인간전형을 그리는 경우에도 그에게 일정한 공감이 갈수 있는 인간적바탕을 진하게 주지 않으면 극적긴장감을 안겨줄수 없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에서 최현덕, 차홍기들의 운명선을 따라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극적긴장감을 안겨주는것은 이 인물들이 비록 반동적인 반공, 반복의 길로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했으나 주관적으로나마 민족적량심, 인간적량심을 지니고 《애국》, 《애족》을 한다고 모대기고있는 사람들이기때문이다.

그들의 주관적인 《애국》, 《애족》의 리상과 어느정도 결백한 도덕적량심에 대한 일정한 리해가 있기때문에 그들의 운명선에 주어진 충격적인 사건과 극절 앞에서 독자들도 극적긴장감을 가지고 열렬한 정서적태도를 취하게 되는것이다.

둘째로,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가 조성되여야 한다.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는 주인공에 대한 공감에 기초하여 생겨난 그의 운명의 전도에 대한 독자들의 요구와 념원을 말한다. 이 기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대가 허물어지거나 또는 충족될 때 강한 정서적느낌을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사건발전이 아무렇게나 되어도 좋다는 식의 태도를 가진 독자에게는 아무리 극속에서 이야기가 뒤집히고 충격적인 극절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런 극적감흥이 조성되지 않을것은 뻔하다.

사건발전에 대한 기대는 생활의 논리에 따라 극을 잘 조직해나가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형상세계에 스스로 이끌려들어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 적극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할 때 이루어진다. 생활의 논리에 어긋나게 극이 조잡하게 꾸며지면 극속에서 펼쳐지는 생활을 믿지 않게 되고 그러면 자연히 극적기대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극을 꾸미는 수가 얹아서 뒤가 뻘드름히 내다보이게 되여도 극적기대가 조성되지 않는다. 작가는 생활의 진실로써 독자를 끌어당기고 그로 하여금 작가와 함께 주인공의 운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사건발전의 전망을 두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창조적으로 환상하게 만들어야 하는것이다.

셋째로,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을 보는 흥미가 조성되여야 한다.

작품에서는 상식적인 생활이 자리잡을 공간이 없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생활만 련이어 제시되면 예술적흥미는 고사하고 오히려 독자를 괴롭히게 되는 법이다. 작품에서는 끊임없이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이 펼쳐지면서 독자들이 극세계에 무한한 흥미를 가지고 잠겨들게 해야 한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이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커다란 정서적견인력도 그것이 화면이 바뀔 때마다 흔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활세계를 펼쳐놓고 민족과 개인의 운명문제에 대한 심오한 철학적분석을 가함으로써 작품을 감상하는 전과정에 시종일관 관중의 심증을 틀어잡고 놓아주지 않는데 있다.

여기서 새로운 생활의 의미를 옳게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는 볼수 없는 이색적인 생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새롭다는것은 풍부한 의미를 안고있다. 자기가 늘 그속에서 살고있는 친근한 생활이라 하여도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그속에 담겨진 생활철학을 새롭게 받아안을수 있게 된다면 새로운 생활로 된다. 텔레비

존련속극 《백금산》에 펼쳐지는 생활은 결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새》 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바로 우리들자신의 생활인것으로 하여 친근하다. 그러나 그 낯익은 생활은 작가의 예리한 미학적안목에 의하여 조명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우리앞에 나타난다. 그것이 견잡을수 없이 형상세계속에 우리가 잠겨들게 한 매력으로 되었던것이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극적인 이야기는 강한 긴장감과 정서적흥분속에 보게 되는 이야기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은 극적인 이야기가 가지는 미학적특징을 그의 정서적견인력의 견지에서 밝히춤으로써 극적인것과 극성에 대한 독창적이고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 청춘들의 심장은 높뛰다

장원준

한가슴에 받아안기엔  
너무도 크나큰 믿음이어라  
그 깊은 뜻 피와 살속에 다 새기기엔  
이 한 심장이 모자라는듯만싶은  
당창건 50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구호

구절구절 외울수록  
청춘의 힘과 용맹은 끝없이 나래치나니  
내 걸어온 혁명의 자욱으로 나이를 재인다면  
행복을 누려온것밖에 없는  
나는 새 세대 청년

오, 눈시울 뜨겁구나  
위대한 수령님 창건하신 우리 당의 품속에서  
궁지높이 살아온 청춘들아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청춘들을 불러주신  
**김정일**장군님의 깊은 뜻이어

부강한 내 나라의 미래를  
청춘들의 푸른 열정과 슬기속에 내다보시며  
산같은 기대를 담으시고  
날을 따라 바다같은 영광만 베풀어주시는  
아버이장군님

그때문에 진정 그때문에  
가슴은 이리도 뜨겁던가  
몰아치는 세월의 폭풍을 맞받아나갈 때에  
우리 당이 믿은것은 청년들  
수많은 나라 꽃나이 인생들 시들어갈 때에  
청년들을 굳게 믿은것은 오직 우리 당

그렇더라, 언제나 당은 우리를 믿노라  
오늘도 우리 당의 방조자로  
시대의 청년영웅으로 떠받드는 그 믿음 안고  
위훈의 불꽃 하늘 가득 당에 가득 피워올리며  
당을 받드는 전위부대의 영예 떨치며  
영광의 축전장으로 우리 억세계 달리어가리니

사랑에 보답이 따름은 마땅한 도리  
그 믿음 목숨과 바꿀수 있으랴  
일떠서라! 청춘들아  
수령님 개척하신 주체위업 대를 이어 완성하며  
혁명의 1세대 2세대들처럼  
**김정일**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영원한 성벽  
500만의 총폭탄되여

한몸이 그대로 창조의 금자탑되여 솟으라  
험한 산 날벼랑을 막아 언제를 세우며  
파도 사나운 바다를 메워 오곡을 익히며  
온 세상이 부럽도록 부강한 내 나라 건설하는  
길에  
청춘들이여, 당의 힘이 되자

오, 정녕  
당중앙위원회 구호를 받아안은 오늘  
500만 청춘들의 심장은 높뛰거니  
위대한 장군님두리에 뭉친 일심의 대오속에서  
나는 피끓는 가슴을 내져힌다  
당창건 50돐의 축전장으로 곧추 뻗어간  
승리의 그 길을 힘차게 걸으며  
우리 당이 안아올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

-장편소설 《높은 목표》 (박찬은)에 대하여-

최연경

장편소설 《높은 목표》를 무척 기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한것은 물론 소설가에게 있어 만아들파도 같은 첫 장편소설을 독자들앞에 내놓은 작가를 축하해주고 창조의 기쁨을 함께 하고싶은 진정에서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덮자마자 끝펜을 들어 이 편지를 쓰게 된것은 단순한 축원의 심정에서만이 아니고 많은 점에서 소설에 공감이 가기때문이며 또 작가와 허심하게 의견을 나누어보고싶은 충동을 느꼈기때문이라고 해야 할것입니다.

제가 소설을 읽고 무엇보다도 좋게 느낀것은 오늘 시대와 혁명이 요구하고 우리 당이 바라는 절실한 문제를 내세우고 여기에 심오한 해답을 주려는 작가의 진지하고 고심어린 탐구정신을 뚜렷이 엿보게 된 문제입니다.

소설형상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장편소설 《높은 목표》는 현대기술을 모르면 기술자들이 당에 충성다할수 없다는것을 종자로 삼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전면제기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당이 언제나 중시해왔고 현시기에 와서 특별히 더 관심을 돌리고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습니다.

**《인테리의 과학기술문화지식수준은 나라의 과학기술문화발전수준입니다. 나라의 과학기술문화발전은 인테리의 실력에 달려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과학기술문화지식수준은 나라의 과학기술문화발전수준이며 나라의 과학기술문화발전은 지식인의 실력에 달려있는것입니다.

바야흐로 21 세기를 눈앞에 바라보고있는 현시대에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오직 최신과학을 개척하고 최첨단기술을 개발하여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불굴하는 의지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정력적으로 탐구할 때에만 참답게 애국애족할수 있고 충성할수 있습니다.

기술을 떠난 기술자의 충성이란 있을수 없으며 실력이 빈곤한 과학자의 애국이란 빈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된 충성, 참된 애국은 높은 실력에 있습니다.

장편소설 《높은 목표》는 주인공인 기사장 신

신석을 비롯한 성강공작기계공장의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이 친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하고 기술혁신운동과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최첨단기술인 수자식조종공작기계공장을 개발해나가는 보람찬 투쟁에 대한 진실한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시대를 제기하고 우리 당이 요구하는 이 절박한 문제를 전면제 내세우고 그에 훌륭한 사상예술적해답을 주고있습니다.

주인공을 비롯한 새 세대의 과학자, 기술자와 로동자들은 공장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공화국창건기념일까지 수자식조종공작기계공장을 조업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하여 수자조종반들의 개발을 위한 기술혁신운동과 과학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갑니다.

그들은 생산계획에만 매달려 낡은 생산방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진부한 립장과 견해를 타파하고 아직 그 누구도 해본적 없는 특수부속가공분담제를 대담하게 발기하여 새 공장개발과정을 끝 기술혁신과정으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는 과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어이 당이 제시한 높은 목표를 실현해나가는것입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하나의 거창한 기술혁명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자력갱생하고 간고분투하여 티탄에 의한 초정밀바이트 개발과 분말야금법연구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수입원료에 의거하지 않으며 원가를 낮추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갑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최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간고하고도 보람찬 이 투쟁을 통하여 그들은 마침내 최첨단기술공작기계공장의 본보기를 창조할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훌륭히 수행하고 충성의 보고를 드립니다.

친히 공장조업식에까지 참가하시여 충성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동무들이야말로 하늘의 별을 맨처음 따내린 첫 《조상》들이며 당당하게 현대기술개척의 자부심 높은 선구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십니다.

이처럼 소설이 제기하고있는 혁신적인 문제와 그의 심오한 해결과정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관철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고무추동하는데서 참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작가가 현시기 시대와 혁명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우리 당이 절실하게 바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올바른 해답을 줄수 있는것은 당의 뜻을 진심으로 받들고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우리의 노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투쟁하며 진지하게 현실을 체험하고 연구한 귀중한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을 읽고 마음에 든것은 또한 작가가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창조한 주인공들의 성격형상입니다. 저는 주인공들에게 반해서 소설을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매력은 오직 성격의 매력에서만 올수 있는것입니다.

주인공 신신석을 비롯하여 발명가 정신애, 분말야금법을 연구한 노동자 최준기 그리고 최준기의 애인인 선반공 장미화와 수자조종선반공 박대복 등 특히 새 세대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의 형상은 성격의 대가 바로섰을뿐아니라 인간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매력적인 산 개성들로 그려지고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작가가 성격형상을 인간학적으로 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주인공 신신석은 퍼그나 마음에 드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예술영화 《열네번째 겨울》에서 만났던 녀성과과학자 류설경이 이후로는 과학자, 기술자의 전형으로서의 그중 뚜렷한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독자들의 마음을 끄는 주인공의 매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를 두고 얼마간 생각해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여 그가 우리 소설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나이지긋하고 경험도 많은 그런 류형적인 기술지도일군이 아니라 재능있고 생기발랄하며 전도유망한 젊은 미혼의 미남자이며 더구나 그에게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따르고있다는 거기에 못처녀들과 청년들, 사람들모두의 마음을 끄는 특유한 매력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늘의 별도 따내리려는 원대한 포부와 희망에 넘치는 청춘시절, 게다가 우리 나라 굴지의 공작기계생산기지인 특급기업소의 기사장이라는 당의 크나큰 신임, 시대의 척후병, 최첨단기술의 개발자된 보람찬 궁지와 영예...

그가 가슴에 안고사는 이 모든것은 그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매혹시키는것입니다.

더구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젊은 기술일군을 성강공작기계공장의 기사장으로 임명해 주시면서 그가 최첨단기술개발의 험치 않은 길을 열어가야 할 무거운 임무를 안고가는데 청춘의 넓은 가슴을 쪽 펴고 희망에 넘쳐 높이가 더 높이나라라고 비행기를 태워 저 푸른 하늘가에 띄워주

라고 열정에 넘쳐 말씀하신것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치고 이런 주인공을 부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독자들은 처음부터 선망의 눈을 가지고 주인공을 눈여겨보게 되는것입니다.

청춘은 참으로 좋은것입니다. 그들의 어깨에 조국의 오늘과 래일이 걸머지워져있기때문입니다.

물론 작가가 대담하게 청년기사장을 주인공으로 택한것은 작품의 종자를 꽃피우는데서는 물론이고 주인공형상에서 류형성을 깨치고 소설의 견인력을 보장하는데서나 우리 시대의 주인공들인 청년들을 보람찬 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데서 참으로 좋은 시도라고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인공의 성격미가 곧 청춘에만 있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내 나라, 내 조국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주체의 념을 가슴에 뜨겁게 안고사는 인간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겠다는 애국의 열정으로 가슴불태우는 청년이며 자기 생애에 더없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한생을 깡그리 바쳐가는 참된 과학자이고 기술지도일군입니다.

그는 기술자에게서 중요한것은 첫째도 둘째도 높은 책임성과 높은 자질이라고 생각하며 당이 맡겨준 공작기계제작에서의 최첨단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작전안은 한장의 종이장우에 써놓은 계획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목표이며 당에 바치는 자신의 의리와 도덕과 량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로 이런 포부와 리상, 삶의 신념을 가지고 최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한 작전을 지휘하고 실현해나가는데 자신을 깡그리 바치며 자기에게 차례지는 밤시간마저 아까워 하루 네시간의 잠시간을 세시간으로 줄여가며 일하고 공부합니다.

그는 또한 이런 포부와 리상, 삶의 신념을 가지고 헌신적인 동지적사랑과 지혜를 다해 10년 세월을 두고도 성공하지 못한 정신애의 티란에 의한 초정밀바이트 개발을 끝내 성공케 합니다.

그는 또한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기에 그 누구도 믿지 못해하는 최준기의 분말야금시험을 믿고 도와주고 이끌고 고무하여 끝내 성공케 합니다.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최첨단기술을 개발하려는 신석의 이 견인불발한 투쟁의 기초에는 자기에게 것처럼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대에 기어이 보답을 드리려는 웅심깊은 충성심이 놓여있고 분전을 아끼고 시간을 앞당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려는 애국의 열정이 맥박치고있다는것을 작가는 웅당하게 강조하고있습니다.

소설을 최첨단기술을 하루빨리 개발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기술로써 받들려는 신석의 투쟁을 재래식방법에 매달려 생산만 다그치려는 보수주의와의 심각한 갈등속에서 보여줌으로써 형상의 의의를 더욱 뚜렷이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재래식방법을 고집하는 기술부기사장 구만식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심각한 투쟁을 통해 잘 그려지고있습니다.

구만식은 우리 시대의 부정인물의 전형입니다.

그는 생산문제를 취급한 다른 소설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것과 같은 보신주의자이거나 소극적인 인간도 아니며 자기 사심을 앞세우면서 뛰여다니는 그런 저열한 인간은 더구나 아닙니다.

그는 신석의 아버지 신성민과 함께 30 년을 하루같이 공작기계생산에 바쳐왔으며 조직력도 있고 신석의 새 기술작전도 리해할만큼 기술적자질도 일정하게 가지고있습니다. 하기에 그는 신석기사가장이 대담한 특수가공분담제를 제안해나섰을 때에도 그것을 자기의 오랜 기술사업에 마지막 큰 몫을 새겨넣을수 있는 좋은 일감으로 접수하고 선뜻 지지해나서는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려운 기술혁신을 동반해야 하는 특수가공분담제가 난관에 부딪치고 시간이 흘러 생산계획수행이 촉박해지자 신심을 잃고 점차 그것을 포기하는데로 나갑니다.

그는 정신애가 연구하는 티탄에 의한 초정밀바이트와 최준기의 분말야금법에 대하여서도 현실성이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수입해올것을 제기해나섭니다. 초정밀바이트만 보아도 티탄은 매력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도 굵어들지 않아 세계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다는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구만식은 60년대나 70년대에는 그래도 참을수 있었던 진부한 생산방법을 새로운 기술의 시대인 80 년대에 와서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견해와 립장이 신석에게 용납될수 없는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두사람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게 쌓여온 모순과 갈등은 마침내 폭발됩니다. 심지어 구만식은 기술부기사장으로서 분말야금시험을 위한 최준기의 시험로를 불도ջ로 밀어버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것입니다. 최첨단기술의 개발자가 될 대신에 진부한 생산방법에만 매달리는 구만식과 같은 인간이야말로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 관철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기술일군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의 부정을 옳게 발견하고 그와의 심각한 갈등속에서 긍정적주인공의 성격을 그림으로써 높은 목표를 내걸고 비약하려는 그의 형상을 더욱 부각시킨것은 작가의 진지한 탐구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신석의 형상을 두고 꼭 부언해야 할것은 그와 정신애와의 사랑선을 기본으로 하여 그

에게서 질게 풍기고있는 인간미, 인간적매력에 대해서입니다.

신석은 확실히 우리 시대의 매력있는 청년일군으로 그려지고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미와 인간미가 천품과도 같이 그의 인격속에 조화롭게 잘 결합되고있는데서 온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리상과 지성이 높고 정신미가 아름답다고 하여도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인간적매력, 인간미가 없이는 독자들을 매혹시킬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에서와 같이 우리 문학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제일 부족한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석의 형상은 주목할만한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은 이처럼 혁명을 하고 것처럼 사랑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석은 정신애에 대한 자기의 견해와 감정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째서인지 그 처녀에게는 자기의 모든 감정이 익숙돼있는것처럼 느껴졌다. 이때에야 비로소 그는 과학광으로서의 그 처녀의 이악성, 집요성, 리지적으로 다듬어진 도고한 자태, 그러면서도 알고보니 놀랍도록 다정다감한 그 성품에 은연중 저물래 반했다는것을 자인했다.》

그런가 하면 차고 리지적인 처녀였건만 정신애 역시 신석에게로 끌리는 자기의 마음을 누를길 없어합니다.

정신애는 자기 연구성과에 깃든 신석의 진심을 두고 감회깊이 돌이켜봅니다.

《문득 신석의 환한 얼굴과 크고 부드러운 두눈이 떠오르고 은근한 목소리가 무어라고 웅웅 고막을 울려주는듯했다. 지나간 날들이 그렇게 안겨왔다. 자기의 연구제목을 높이높이 사주던 일, 연구조건들을 그렇게도 성심다해 도와주던 나날들, 특히 비금속첨가제의 셋째가 가짜라는것을 명석하게 밝혀내주던 일, 실험폭발속에서 한몸으로 위험을 막아주던 모습과 무도회의 그 아름다운 밤을 죽기전에는 잊을수가 없었다. 그의 피아노독주를 한번만 더 들었으면...》 《약해지는 나의 건강을 두고 그로록 안타까와해준 사람, 그는 정녕 뜨거운 인간애를 지닌 불같은 인간이 아닌가. 그런 사람한테 보통처녀는 결코 그의 반려자가 될수 없을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이러한 정신적공통성과 인간적매력에 서로 매혹되어 저도 모르게 빠르고 빨리도 꽃피었으며 훌륭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원천을 이루고있는 정신적공통성이란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새 과학, 새 기술 개발의 높은 목표를 점령하는 한길에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치려는 그애국의 열정, 충성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정 과학자는 투사이여야 한다는 진리를 실천으로 확증해준 사람들입니다.

청춘도 사랑도 되돌려세울수 없는 10 년세월도 애오라지 초정밀바이트 개발에 바쳐 물려섬도 지침도 없이 돌진해나가는 처녀과학자 정신에!

그에게서 불굴하는 과학정신과 애국의 열정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고마와 그것을 자신의 일처럼, 아니 자기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온갖 지성을 다해 도와주는 신석- 그는 자기의 명석한 두뇌로 첨가제 3형제의 셋째가 가짜라는것을 발견하여 최종실험을 성공으로 이끌며 시험폭발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으로 실험을 막아나서는것입니다. 실로 신석은 조국의 과학발전을 위한데 한몸 깡그리 바쳐나선 이 아름다운 처녀를 위하여 아까울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높은 목표인 최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불같은 정열을 바치듯이 사랑에서도 뜨겁고 열렬하였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일밖에 모르는 큰 기업소의 기사장인 그가 인평기계공장에 출장차로 다녀오던 중에 신애가 가있는 오빠집에 들려 열정의 분출을 스스로도 막지 못해 자기의 초지마저 어기고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은 지나치지 않는가 할수도 있지만 그것마저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가장 인간적이기때문입니다.

신석이네들이 수자식조종공작기계공장개발에 성공한 그날, 이날을 위하여 신석과 신애에게 그토록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돌려주신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그들의 사랑을 축하해주시고 친히 결혼식물까지 보내주신것입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행복과 삶의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없는 생활은 참생활이 아닙니다. 하다면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이것은 언제나 그러하지만 특히 현시기 청년들의 생활과 그들에 대한 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은 이에 대하여서도 훌륭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것으로 미루어보면 주인공 신석의 형상은 우리 당이 바라는 청년기술일군의 시대적전형으로 성공한 형상이라고 봅니다.

그의 형상을 통하여 작가가 작품앞에 제기한 과제도 훌륭히 해결되었다고 말할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것은 형상의 기본담당자는 어디까지나 인간성격이며 특히 주인공이기때문입니다.

녀성과학자, 발명가인 정신애의 형상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기본상 이야기를 하였기때문에 여기서 부언하고싶은것은 다만 그의 형상성파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물론 이 형상의 의의는 과학을 정복하는 길에서 누구보다 이악하고 용

감하여 한점의 손색도 없는 그 과학정신에 있다고 할것입니다. 그가 무시로 겪군하는 그 시험폭발과 독가스마당에서는 남자들도 성공이 묘연한 세월의 랑비를 한탄하면서 열번도 더 물려났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면서도 건강을 상실당하면서도 한번 정한 높은 삶의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았으며 끝내는 성공하고야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형상의 매력은 결코 그 정신적미, 불굴하는 과학정신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것은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경우 어느 소설에서나 모든 작가에게 가능한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과학자이면서도 녀성은 어디까지나 녀성이라는 견지에서 녀성답게 그린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신석이 남성미를 가진 인간으로 형상되었다면 정신애는 그 외모에 있어서나 풍모에 있어서 또한 녀성적인 매력과 녀성미를 간직한 녀성으로 그려지고있습니다.

신애는 불타는 심장의 분출을 차거운 리성으로 자제할줄도 아는 매우 리지적인 녀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정신애의 형상이 녀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교훈적의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료리정서교양에서 말입니다.

저는 일부 작품들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과학을 위해서는 사랑도 가정도 모른다는 식의 녀성에 대하여서는 공감미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관, 가정관은 어디까지나 매 사람의 자유의사에 속하는 문제이며 천원일률적인 처방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저 개인의 견해를 두고보면 과학도 사랑도 뜨겁게 할줄 아는 녀성, 그가 참녀성이라고 봅니다. 눈물이 많은 영웅이 진짜 영웅이듯이 사랑할줄 아는 뜨거운 심장을 지닌 녀성이 진짜 녀성과학자, 녀성혁명가일것입니다.

문제는 과학과 사랑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녀성과학자 정신애의 형상에 대해서도 저는 작가에게 지지를 표시합니다.

장편소설 《높은 목표》가 그리고있는 인물성격에 대하여 말할 때 꼭 부언하고 넘어가야 할것이 기술과 기사인 공정원 허진파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허진파의 성격이 우리 시대의 부정인물의 전형으로서 성공한 형상이기때문입니다.

허진파는 빠심들여 공부를 하지 않고 결령결령적당히 살아가려는 건달풍의 기술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치마산기슭에 있는 외딴집에서 돼지며 염소, 닭을 기르고 부업을 해서 잘 먹고 잘살 궁리나 하는 리기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신석기사장이 애써 구해 짬짬이 번역해준 외국의 참고기술서적마저 착실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질부족으로 공정실에서 성능실험실로 옮겨간 그는 그곳에서마저 중학생실습보고서식으로 글을 썼다는 비평을 받습니다.

사실상 우리 주위에는 조국을 위해 성실하게 공부하고 정력적으로 과학기술을 탐구할 대신에 적당히 현상이나 유지하면서 제살구멍이나 찾는 인간들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문학은 독자들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긍정적주인공의 형상을 기본으로 그리면서도 우리의 전진에 지장을 주는 낡고 뒤떨어진것을 극복하기 위한 부정인물형상에도 응당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편소설 《높은 목표》를 읽고 제가 좋게 생각한것은 또한 지성인의 격에 어울리게 주인공들의 사색과 대화에 철학적이기가 있는것입니다.

그러한것은 공부도 하지 않고 껄렁껄렁 살아가는 허진파에게 《...기술자의 존재방식은 기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야 너나없이 조국앞에 무슨 한푼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저 시뻘건 육체에 불과하지요.》라고 하는 신석의 말이나 친구인 구만식을 두고 신성민이 《...사람이 젊어서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많아가면 더욱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한단다. 공학자들은 더 의의있는 기술발명을 마지막으로 크게 내놓고싶어하고 문필가들은 더 좋은 글로 마지막마무리를 장식하고싶어하지...》하고 신석에게 하는 말에서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두고 한 신성민의 이야기에는 인생의 참된 진리에 대한 작가의 사색적탐구가 깃들어있습니다. 소설에는 또 철학성이 있는 작가의 지문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생의 앞길에 파격을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불같은 정열을 가지기마련이라는 작가의 주장 등이 그러한 실례로 됩니다.

작품의 이러한 철학성은 성구, 속담을 비롯한 작가의 재치있는 언어구사에 의해서 형상적으로 담보되고있습니다.

가열로의 철수를 반대해나선 최준기의 행동을 두고 《굴러오는 수레를 막아나선 개미의 무분별과 같았다.》고 한 표현이나 신석과 구만식의 갈등을 놓고 《한말뚝에 맨 두 황송아지처럼 눈을 흘겼다.》고 한 표현 그리고 정신애를 두고 《속담에 곡식은 가꿀타이고 사람은 내세워줄타이라는 말이 있다.》고 속생각을 굴러보는 신석의 내면세계에 대한 묘사 등이 그러한 실례로 됩니다.

그밖에도 소설에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편소설 《높은 목표》는 현시점에서 청년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미치게 될 인식교양적작용력에 대하여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작품에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엉당 털어놓고 허심하게 이야기하는것이 작가앞에

평론가가 지니고있는 마땅한 창작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것이 작가가 작품의 주제와 소재에 매혹된 나머지 좀 지나치게 생산문제를 파고들지 않았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일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이 소설이 결코 생산소설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생산문제, 기술문제를 둘러싼 인간들의 립장과 태도, 그들간의 호상관계가 인간학적으로 형상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생산문제에 치우친 듯한 감을 적지 않게 주는데는 몇가지 원인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소설의 사건과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데서 그것이 보다 주인공들의 성격발전과정으로, 인간관계의 심화발전과정으로 될 대신에 생산문제, 기술문제의 설정과 그 해결과정으로 되고있기때문이 아닌가고 느껴지기때문입니다.

소설에는 수자식조종공작기계공장의 본보기를 꾸리는데서 나서는 세가지 기술적문제 즉 특수부속가공분담제와 조정밀바이트개발문제 그리고 분말야금법문제 등이 설정되고있는데 이 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자 소설의 이야기도 끝나는것으로 되고있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히 작가가 작품의 구성을 놓고 좀 더 인간학적탐구와 창작적사색을 보다 심화시킬수있는 여지를 주고있습니다.

소설이 생산문제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주는 다른 하나의 원인은 물론 첫째 원인과 관련되는것 이기는 하지만 기본주인공을 형상의 한가운데, 말하자면 사건과 인간관계의 중심에 내세우고 작품의 종자와 주제를 시종일관하게 떠메고나가게 하지 못한데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지금은 기사장인 신신석자신이 최첨단기술개발을 위한 투쟁의 한가운데 서서 그것을 지휘하고 떠밀고나가 기보다는 주로 정신애의 조정밀바이트개발문제와 최준기의 분말야금법을 개발하는데 치중하고있 듯한 감을 줍니다. 여기에 특수부속가공분담문제를 놓고 기술부기사장 구만식과의 갈등문제가 설정되고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주인공 신신석이나 정신애의 형상은 그 성격자체로서는 대도 바로 서고 매력도 있지만 소설전반의 성과를 보장하는데서는 역시 아쉬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소설이 이렇게 된데는 최첨단기술개발의 의의를 강조하여야 할 작품의 과제로부터 출발하여 여러가지 창작적난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더 좋은 소설을 쓰기 위하여 꼭 참작해주었으면 합니다.

결하여 소설에 대하여 한가지 더 욕심을 말한다면 주인공들에 대한 위대한 정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선과 덕성선을 보다 더 인간학적으로 감

명길게, 가장 빛나는 화폭으로 그려주었으면 하는것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도 장면의 설정과 설정된 장면에서의 친애하는 그이의 형상이 원칙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인공 신석을 기사장으로 임명해주시면서 친히 비행기까지 태워보내시며 희망의 나래를 활짝 퍼도록 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형상은 주인공 형상의 성과와 작품의 성공을 담보한 확고한 기초로 그 출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신석이 힘겨워하고있을 때 몸소 전화를 거시여 힘과 용기를 주시는 장면, 마지막종장에서 조업식장면 등은 좀 더 주인공들의 운명선과 밀착시켜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보여줄수 있었을것입니다. 그렇게 되자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자기 운명을 수령과 련결시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인공의 감정축적과정이 보다 깊이있게,

진실하게 그려졌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평론가의 의무로부터 소설에 대한 몇가지 욕심을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보다 훌륭한 소설의 탄생을 바라서 하는 높은 요구이며 이것으로 하여 소설의 성과가 가리워지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편소설 《높은 목표》가 그가 안고있는 문제성과 시대성 그리고 새롭고 진취적인 주인공의 형상으로 하여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특히 청년지식인들을 위한 좋은 량식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심장에 새기고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 관철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는데 훌륭히 이바지하는 생활과 투쟁의 길동무로 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소설창작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1995년 7월 X일

## 통일념원 합토여

최장수

치솟는 걱정을 누르며  
통일념원 합토로 심은 나무  
승엄히 설레이며 키높이 자라네

뿌리깊이 내리어 푸르싱싱  
무성하게 설레이는 일곱그루 잣나무  
7천만 겨레의 간절한 희망안고  
북과 남, 해의 범민족대표들이 심은 잣나무

민족의 룡성번영과 통일위해  
생을 바친 북녘의 애국렬사들  
자주, 민주, 통일을 피타게 절규하며  
떠나간 남녘의 애국렬사들  
고귀한 그 넋이 어린 흙

그 누가 예까지 안아왔던가  
뜨거운 가슴에 간직해온 흙  
험한 준령을 넘고 넘었으리  
원한 서린 강도 헤쳐건넌으리

삼엄한 오솔길 덩불을 지나  
막아선 진펄을 헤쳐 몇천리  
주고받은 손과 손은 또한 몇만  
광주의 피가 스민 망월동의 흙이여

분렬의 비극을 안고  
뼈저린 아픔이 어리고 어려  
정녕 북녘의 애국렬사들과

하나됨을 그토록 원하는 흙  
그 흙과 흙이 합토되어 다쳐지는 통일 위한  
한마음

다지고 다진 합토에 뿌리내린 잣나무  
그앞의 합토비는 증견하리  
푸른 하늘가 높이높이 아지를 펼치며  
통일의 뜨거운 숨결로 설레이는 잣나무

가지마다 열매주렁지면  
통일의 열망은 더욱 한껏 무르익어  
겨레의 숙원 이룩하리니  
잣나무와 함께 심장속에  
영원할 통일념원 합토여

진정 갈라져 살수 없는 이 땅  
강산도 아름다운 제일강산  
민족도 슬기로운 제일민족  
7천만의 상징으로  
영원히 푸르러 설레이리  
통일의 날이 열리는 그날을 부르며

아 조선은 영원히 하나  
민족도 영원히 하나  
겨레의 숙원을 기어이 이루리니  
애국의 넋이 어린  
통일의 합토우에 무성한 숲으로 솟아오른  
잣나무 잣나무여!

## 찬란한 아침

한인준

평양에서 10 월의 밤이라면 쌀랑한 기운이 돌 때이다. 그러나 여기 조국의 남단 광주는 아직 훈향이였다. 하긴 소대한에도 눈은 내리듯마듯 스러지고 정 맵싸다고 해야 귀바퀴를 한두번 문지르면 그만이라니 과연 남쪽은 남쪽이다. 겨울의 기온차이가 3~4 도나 된다니 그럴만도 하다.

유정수는 샤프의 목단추를 헤치고 뚜벅뚜벅 광주천 기슭을 걸었다. 도시의 한복판을 가로질러 나가는 크지 않은 하천이라 싱그러운 강바람은 없고 어딘가 감탕냄새, 폐유냄새 같은 비릿한것이 이따금 코를 자극한다. 그래도 포석칼린 유보도이고 머리를 풀어헤친 수양버들이 실실이 흐느적거리는 밤이라 여기저기에 쌍쌍이 거니는 청춘 남녀들의 취한듯한 모습이 교묘한 달빛아래 을비친다.

하지만 유정수는 그런것엔 감각이 없는듯 가락 맞게 발걸음을 옮기다가 다시금 슬며시 뒤를 돌아다보았다. 미혜는 여전히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굽높은 구두의 소리가 날세라 사뿐사뿐 따라오고있었다. 또다시 찌르르 전류가 지나가듯한 전율이 왔다.

(미혜가 오늘은 왜 이렇가, 분명 예감했던 그대로 품고품었던 그것이...)

성격이 활짝 터진 미혜였다. 애당초 주저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 마음을 숨기려 할줄 모르는 처녀였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겠는지 그런것엔 아랑곳없이 제 마음에 고우면 곱다고 미우면 밉다고 예돌지 않고 내뱉는 성미였다.

그런데 오늘은 판판 다른 처녀가 되었다. 제면저 어슬넉에 광주천 철다리아래에서 만나자고 할때만 해도 시원스럽고 용기가 있어보였는데 그담엔 영 수집은 소녀가 되어버렸다.

《나오셨군요.》

처음 마주섰을 때 허아래소리로 이 한마디를 뇌인후에는 병원앞을 지나 충금동 교각에 이를때까지 통 말이 없다. 가볍게 드리운 연한 미색 저고리의 웃고름만 손가락에 감았다 풀었다 할뿐이었다. 그렇게 명랑하고 거침이 없던 송미혜는 어디로 갔는가?...

유정수는 이 답답한 긴 침묵속에 뒤끓어번지는 처녀의 속마음을 읽었다. 무형무색의 그 파도가 기슭을 쳐서 은연중 정수의 숨도 가쁘게 했고 말라드는 입술을 감빨게 했다. 자기라도 무슨 말이든지 해야 하겠지만 매일같이 만나는 사이라 새삼스레 화제로 꺼낼것이 없다.

《...》

문득 미혜가 한발작 따라서 나란히 서며 침묵을 깨치였다.

《정수씨, 답답하지요?》

《그렇소. 미혜가 영 새침때기가 되니 거북해 못견디겠구만.》

정수는 미혜가 입을 연것이 반가와 부러 통명스레 대꾸했다.

《호호, 그럼 제가 소설이야기 하나 해드리지요. 이긴 신분을 뛰어넘기가 태평양을 헤엄쳐건느기보다 더 어려웠던 때에 있었다는 이야긴데요.》

미혜는 살며시 정수의 왼팔에 자기의 팔을 끼며 속살거리였다. 따뜻한 체온과 향긋한 냄새가 불안한 가슴을 더 불안하게 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두 청춘남녀가 살았다고 한다. 그들은 어떤 계기였던지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되었으며 점차 련정을 품게 되었고 나중에는 열렬히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은 고조점에 올라섰다.

헌데 처녀는 고관대작의 딸이였고 총각은 용모도 준수하고 마음도 성실하였지만 불행하게도 비천한 출신이었다. 이를테면 결합이 전혀 불가능한 한쌍이었다. 처녀의 아버지와 두 오빠는 만약 네가 그 총각에게 출가하게 되면 우리 가문에 치욕이 오는만큼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절벽으로 막아섰다. 열번 스무번 달래보고 위협하고 독방에 가두어놓고 매질을 했으나 처녀의 순정은 꺾을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식하나 없었던 셈치고 죽여버리자는 합의에 이르렀다.

신분의 장벽이 높다는것을 모르는바는 아니었으나 이렇게까지 가혹한줄은 몰랐구나!

총각은 이때에야 비로소 자기가 넘을수 없는 계선에 들어섰다는것을 가슴터지게 절감하게 되었다.

오늘처럼 달이 밝은 밤이었다.

처녀와 총각은 천신만고하여 레배당 종루옆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에겐 이것이 운명적인 마지막 밤이었다.

총각이 처녀에게 애원하였다.

네가 나를 알게 한것은 천만번 나의 죄악이다. 이것은 하느님도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애당초 몰랐던것으로 여기라. 너의 앞야 얼마든지 화려한 길이 있지 않느냐.

처녀가 총각에게 말하였다.

그래 나는 화려한 길로 보내고 너는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느냐?

나는 사랑을 찾아가려고 한다. 무연한 저 사막을 넘어가면 내 갈구하는 사랑이 있을것이다. 거기에 없으면 또 가고... 총각의 대답이었다.

그런데 그 사막을 넘어간다는것은 지옥의 대문에 들어선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석달열흘 가고 또 가도 아득한 사막, 폭폭 빠지는, 살을 지지는 모래, 순식간에 모래산을 쌓았다 훔날렸다는 열풍, 물 한모금, 풀 한포기 없는 끝이 없는 길이었다.

그럼 좋다. 나도 그 사랑을 찾아서 가겠다.

처녀가 단언하였다.

안된다거니 가겠다거니 울며 애원하고 울며 떼를 쓰다가 밤을 꼬박 밝힌 동틀무렵에야 그들은 손을 꼭 마주잡고 나란히 사막에 들어섰다.

하늘아 땅아, 우리 영생활 사랑의 요람은 어디 있느냐?

허공중천을 우리러 절규하며 허우적거리며 걷고 또 걷던 그들은 드디어 지쳐서 쓰러지고말았다. 꼭 그러안고 한몸이 되어 쓰러진 그들의 얼굴에는 형언할길 없는 행복한 미소가 함뿍 어려 있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휩쓸어왔다.

...

어느 늑거리 련정소설가의 작품인지 아니면 미혜 자신의 창작품인지 고담적인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끝내고난 미혜는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열정에 넘쳐 부르짖었다.

《정수씨, 저는 요즘 사막의 그 처녀가 저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이탈리아의 베로나이고 저는 줄리에트라고도 생각하고 영국의 웨섹스마을에 테스라고도 생각해봐요.》

미혜는 급하게 몸을 돌려 정수의 앞을 막아섰다. 정수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는 그의 두눈이 강렬한 빛을 뿜었다.

《정수씨, 사막의 그 총각이 되어주세요. 로미오가 되어주세요. 그러지요?》

이 폭발적인 고백에 잠시 어리둥절해 서있던 정수는 저도 모르게 미혜를 부여안았다. 천길 호수로 감겨들어가는듯한 환각에 사로잡혔다가 놀란듯 가볍게 떼어놓았다.

그들은 폭풍앞에 선 애 어린 양들마냥 튀어나올듯 고개치는 심장을 가까스로 누르며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얼마후 정수는 헌헌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우리 운명을 왜 그리 비참한데만 비기오? 행복한 주인공은 하나도 없구만.》

미혜가 재빨리 대답하였다.

《그건 모든게 반대이기때문이지요. 행복을 바라면 불행이 오고 불행하라고 저주를 보내면 오히려 행복해지니까요.》

《그건 참 그럴듯하오.》 정수는 허거프게 웃었

다.

《판전피지 말고 대답해줘요. 진정에 룡담으로 대하는건 미덕이 아니지요.》

《 룡담이 아니요. 미혜동무, 여기서 어떻게 감히 룡담을 하겠소.》

정수는 또 몇발작 진중하게 걸음을 옮기다가 진정이 폭 배인 어조로 말했다.

《그 진정 정말 고맙소. 난 사실 미혜의 이런 사랑을 받을만한 사람이 못되오. 그래서 난 미혜를 애인으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가까운, 훨씬 더 가까운 사람으로 간직하고싶는데...》

《애인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건 뭐지요?》

《혈육, 우리사이로 말하면 남매.》

《호호 남매?》

미혜는 명랑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가 옥쟁반에 은구슬을 굴리는듯싶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요. 우리 오빠가 절 무척 귀여워했으니깐요. 오빠에게도 누이동생은 저밖에 없고 저에게도 오빠는 한분뿐이에요. 오빠 그저 저밖에 몰랐지요.》

그런데 어느때인가 오빠가 빠리에 갔다왔는데 가방을 반자마자 뒤져보니 희한한 뿌로찌가 하나 나오겠지요. 전 환성을 울리며 그것을 품안았어요. 그런데 오빠가 전에 없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애, 그건...그건... 넌 다음에 더 좋은것을 사다줄게.> 하며 찰찰 매더군요.

엄마의 지청구까지 듣고야 알고보니 오빠에겐 애인이 생겼던거예요. 전 왕왕 울면서 뿌로찌를 방바닥에 내동댕이쳤어요. 보아요. 애인과 남매는 이런거예요.》

미혜의 말이 너무도 재미나고 생동해서 정수는 또 껄껄 웃었다. 허리를 꺾으며 따라웃던 미혜는 이어 정색해지고 목소리는 다시 진지해졌다.

《 룡담 이젠 그만하시고 대답해줘요.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전 뭐가 되지요?》

《...》

정수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무척 사랑스러운 처녀였건만 사랑한다고, 사막의 그 총각이나 로미오 이상으로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심장 그대로의 웨침을 터칠수가 없었다. 도의감이랄가 료리감이랄가 이름할수 없는 착잡한 그 무엇이 와락 꺾안고 애무하고싶은 충동을 어렵지 않게 억제하여주었다.

《답변 힘드세요? 제가 예쁘지 못해서요?》

미혜는 드디어 련발사격을 들이대기 시작하였다.

《예쁘지 못하다니? 미혜보다 더 아름다운 녀성 어디 가서 찾는다고.》

그건 사실이였다. 조금도 결발린 소리가 아니였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럼 신분이 달라서요?》

《신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요.》

《하다면 리념이 다른가요?》

《부강조국 세우자는 리념, 이 하나밖에야 다른 리념 무엇이 또 있소?》

《그럼 뭐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

《답답하네요.》

미혜는 한숨을 내그었다.

이윽고 그는 《좋아요. 어쨌든 정수씨 제 애인이 아니되고는 못건데요. 만약 한사코 거절하신다면 전 주저없이 사막의 그 처녀나 줄리에트, 테스처럼 운명할거예요. 그때 정수씨가 로미오가 되는가, 테스의 하늘길을 눈물로나 바래주는 엔젤 클래어가 되는가 하는건 철저한 자유예요.》하고 선언하듯 잘라말하고 책 돌아섰다. 그리고는 또각또각 구두소리를 울리며 총총히 사라져갔다.

속소로 돌아온 유정수는 식당에도 들리지 않고 곧장 침실로 올라가 침대에 벌렁 누웠다. 취사원아주머니가 뒤따라 들어와 어디 편치 않느냐고 근심스레 물었지만 정수는 저녁을 먹고 왔노라고 안심시켜 내보내고는 다시 누워버렸다.

눈을 꼭 감았다.

《미혜, 나는 너를 사랑하면서도 왜 사랑할수 없느냐.》

평양을 떠나던 일, 미혜를 처음 만나던 일...

꿈결처럼 흘러간 지난 몇달사이가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

통일이 되었다. 아, 통일이 되었다.

반세기가 되도록 민족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통일, 겨레가 뼈를 깎고 피를 뿌리며 일구워온 그 하나를 위하여 싸워온 통일, 태어나서부터 그 말을 배우고 하루에도 몇번씩 꿈에도 소원이자 부르던 통일, 죽으면서도 그 말을 유언으로 곁집으며 눈을 감지 못하던 통일, 아, 그 통일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전민족의 단합된 힘에 더는 못이겨 외세는 쫓겨나고 이 땅위에 범민족통일국가-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일떠섰다.

나라의 허리를 칭칭 휘감고 숨가쁘게 조이던 분계선 콩크리트장벽이 허물어져나갔다. 지지눌렸던 남북의 동맥에 팔팔 겨레의 뜨거운 피가 흘렀다. 얼마나 바라고 또 바라던 통일이냐.

만세의 함성이 3천리를 진감하였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싸안고 불을 비볐다. 뉘를 잃은듯 꺾꺾 웃는 얼굴에 줄줄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걱정의 파도는 잦을사이 없이 새라새롭게 밀려왔다. 남쪽정부의 초청으로 공화국의 여러 부문

전문가들이 련이어 남으로 파견되었다. 메말라려진 령남 호남벌로 관견전문가들이 나가고 황색으로 시든 민족문화를 살리려 작가, 예술인들이 나갔다.

한해전에 건설건재대학을 졸업한 쟁쟁한 청년 건축설계가 유정수는 광주시로 파견장을 받았다.

나는듯 집으로 달려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 파견장을 받아들고 구멍이 날 지경으로 들여다보다가는 한참씩 어루쓸고 그러다가는 또 처음처럼 들여다보았다. 칠순이 넘은 깊이 패인 주름이 활짝 다 퍼진것 같았다.

《내가 끝내 오늘을 보는구나. 전라도라니 더욱 마침이다. 이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보아라.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을터이니 묘라도 찾아보고 잘못되지 않았다면 삼촌네는 있을게다. 고모도 하나 있구.

그러구... 여가가 생기거든 정인옥이라는 녀성 두 찾아보아라. 살아있다면 꼭 우리 고향에, 해변가 그 마을에 있을게다. 나도 이제 인츰 뒤따라 나가겠다.》

아버지는 담배를 붙여물고 후-긴 연기를 내뿜었다. 창밖을 하염없이 내다보는 두눈에 형언할수 없는 그윽함이 어리고 담배를 든 피줄돈은 손이 가볍게 떨리었다. 렬차는 질풍같이 내달렸다. 평양에서 깊은 밤에 떠난 렬차가 날이 휘뿜히 밝아올 때는 개성을 지났고 아침대기를 헤가르며 한시간 남짓이 달려서는 벌써 서울에 들어섰다.

서울은 사람들로 붐비었다. 통일의 환희와 열광이 그냥 들끓어번지고있었다. 마침 평양으로 올라갈 렬차가 도착할 시간이 되어서 장사진을 치듯 홈에 가득 나와섰던 사람들이 평양에서 오는 손님 손 좀 잡아보자고 저저마다 덤비는통에 넓은 역구내는 마치 군중대회장같기도 하고 큰 시장마당같기도 하였다. 누구나 웃고 큰 소리로 떠들었다.

(아, 통일, 통일이 이렇게도 좋구나!)

유정수는 몇해전에 의거입북한 아들을 찾아간다는 중년의 내외와 친혈육인듯 손을 놓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기적소리가 두번 세번 울려서야 다시 객실로 들어왔다.

수원, 천안, 대전...

렬차는 거침없이 대지를 주름잡아나갔다. 렬차 방송에서는 《통일렬차 달린다》의 힘찬 관현악이 울려퍼지고 언뜻언뜻 스치는 간이역들과 길거리에서도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뭐라고 열정적으로 웨쳐댔다. 북에서 남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져나오는 통일환희의 노래들이 어디서나 귀를 멍멍하게 하였다.

론산, 리리, 장성...

드디어 렬차는 웅근 하루가 지나 또 새날이 밝아올무렵에야 광주역에 들어섰다. 유정수는 눈한



번 붙이지 못하고 꼬박 두번째 아침을 맞이했지만 조금도 피곤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더 거뜬하고 온몸에 날아오를것 같은 새힘이 넘쳐났다.

도시설계센터를 찾아가 열광적인 환대를 받으며 간단한 수속을 마치고 일을 시작한 얼마후 유정수는 며칠간 말미를 얻어가지고 령광군을 향해 떠났다. 령광군은 광주에서 서쪽으로 30 여키로 메터가량 떨어진곳이었다.

령광, 바로 여기에서 아버지가 태어났고 유년시절, 소년시절, 청년시절이 흘러갔다. 바로 여기에 우리 조상의 유골이 묻혀있다.

시외버스를 타고 읍까지 가서 그담부터 법성리까지 걸어나가는 유정수는 이루 형언할수 없는 그윽한 향수에 젖어버렸다.

하루에도 몇번씩 아버지한테서 듣고 또 들어오던 선조의 땅이었다. 눈감고 조용히 불러만보아도 가슴 뭉클해지고 다박솔 하나, 해변의 포구 하나도 선히 보이는듯하던곳이었다. 내 고향은 법성포배노래가 나온곳이라면서 아버지가 장장 50 년가까이 사무치는 그리움에 애태우던 땅, 내 또한 눈물머금고 환상속에 그려보던 땅, 아, 그 고향땅에 내가 왔다!

난생처음 걸어보는 길이고 둘러보는 산천이건만 조금도 생소하지 않고 서먹하지 않았다.

어느 나무, 어느 바위아래 아버지의 체취가 스며있지 않겠는가, 어느 해변길에 아버지의 피와 땀이 스며있지 않겠는가. 아버지의 그 숨결, 그 체취,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들의 모습과 음성이 온 대기에 그저 짝 차있는듯하였다.

오불교불 묘하게 자란 로송도 다심히 쓰다듬어 보고 길가의 풀밭에 앉아 담배도 맛갈스레 태우면서 한식경을 싣히 걸은 유정수는 중낮이 다 되어서야 마을에 들어섰다. 리사무소뜨락에 들어서니 점심참이 기울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앉아 흥성거리고있었다. 새 나라의 청신한 활력이 여기서도 넘치고있었다.

유정수가 자기 소개를 하고 찾아온 사유를 말하자 사람들은 고향의 후손이 왔다고 구면지기처럼 떠들썩 반가와했다. 머리를 보기 좋게 기른 장년의 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유한 지방사투리로 연신 《반갑네요. 잘 왔어요.》 하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정수의 팔을 잡아흔들었다. 그런데 삼촌과 고모의 행처에 대해서는 묘연해하였다.

《유석이라... 이 마을에 유씨문벌이 많지.》

장죽을 입귀에 물고 연기를 풀썩풀썩 피워올리며 이렇게 중얼거리던 좌상격의 로인이 불쑥 참견해나섰다.

《그 사람 아버지가 이마에 혹이 나온 대장쟁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 령감 아들 하나가 복에 들어갔다는 말을 내 그전에 들은 생각이 나네.》

《웁습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유창주라고...》

《웁으이...》

이렇게 말쑤지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추억의 갈피를 들춰내는것을 들어보니 조부모님들은 이미 오래전에 북방산에 갔고 삼촌 유석은 광주인민봉기때에 놈들의 총탄에 맞아 도청앞광장에서 절명했다고 한다. 안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기근에 시달리다 뜻밖의 수재로 일가식솔이 다 잘못되었다고 한다. 고모 유곤은 남편이 해외로 돈벌이를 떠나간후 자기도 보짐을 해이고 어디론가 리향했다는데 세월이 하 오래다나니 그 생사여부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있었다.

기가 막혔다. 위정자들의 반세기에 걸치는 악정은 한 가문의 일족을 이렇게 파멸시켰다.

유정수는 얼이 나간 사람처럼 망연자실하여 앉아있다가 떠들떠들 다시 물어보았다.

《그러면 저... 정인옥이라는 녀성은 모르시겠습니까?》

《정인옥?》 리장이 반색을 했다.

《나이가 얼마쯤 됐나, 고향이 여기라든가?》

《예, 아마 앓아계신다면 칠순이 다 됐을겁니다.》

《그럼 웁겠구만. 한진방직회사 사장 모친이로구만. 있네. 정정해서 앓아계시지. 헌데 그 집과는 또 어떻게 되나?》

《예, 그저 좀...》

《가세. 나도 집이 그쪽이니까.》

리장은 앞장서서 유정수를 인도하였다.

과연 먼지이는 소로를 따라 얼마쯤 가니 아담한 양옥 한채가 나타났다. 마을의 절대다수 가옥들과는 여러모로 구별되는 집이었다.

《영아 할매 계십니까? 평양에서 손님이 오셨어요.》

리장은 이렇게 큰 소리를 쳐서 집주인을 불러내고는 후령후령한 밤색 뜨개옷을 입은 풍신좋은 늙은 녀인이 정원에 나타나자 《그럼 만나보시오.》 하고 상냥한 인사를 남기고 휘적휘적 되돌아갔다.

녀인은 의아한 눈길로 정수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어디서 오셨대구요? 누굴 찾으시오?》

이렇게 묻는 목소리에 어딘가 흥분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실례입니다만 이 댁이 정인옥어머님댁이 웁습니까?》

《내가 정인옥인데요.》

무표정하던 입가장자리에 알릴듯말듯 경련이 지나갔다. 정수의 심장도 쿵쿵 울리기 시작하였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사시던 유현

이라고 아시겠는지요?》

《유현?!》

사위여가는 불길처럼 고요하던 눈빛이 확! 강렬한 빛을 내뿜었다.

《그런데 자네는?》

《제 유현의 아들입니다. 유정수라고 합니다.》

녀인은 허둥허둥 정수의 어깨를 부여안았다.

《어쩔... 어쩔... 글썄 평양에서 왔다는 첫말에 벌써 예감이...》

그러다가 정수를 밀어세우고 얼굴을 다시 찬찬히 뜯어보았다.

《옳아, 눈, 코 아버지 닮았어. 목소리도 같은것 같구.》

다시 와락 끌어안았다. 끌어안고 목멘소리로 말했다.

《그에 이런 날이 오긴 왔구나.》

정수도 녀인의 어깨에 힘을 주었다. 어쩐지 육친의 정같은것이 찌르르 온몸을 휩쌌다.

《들어가자구. 어서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하자구.》

녀인은 정수의 등을 떠밀었다.

《그래 아버님은... 편안히 계신가?》

《예, 얼마전까지 국가정무원에서 국장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년로보장을 받고있습니다.》

《그래? 그분은 심본 그러실분이었어.》

정수가 녀인과 마주앉아 전쟁시기 구사일생으로 전선을 넘어온 아버지가 군사복무를 마친후에는 대학에 추천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큰 기업소의 기술자로, 지배인으로 일하다가 정무원에 소환되었다는 이야기, 늦게야 가정을 이루어 자기네는 식구가 단출하다는 이야기, 어머니도 남쪽의 정인옥어머님을 무척 보고싶어한다는 이야기로 녀인의 쌓이고 묵은 궁금증을 풀어주고있는데 정원의 살창문이 활짝 열리며 《평양 손님 오셨다지요?》하는 쟁쟁한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내번지개같은것, 내 막내딸이라네. 중앙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광주에 내려와서 예술사범학교 교사를 하지. 제 오빠네 집에 얹혀있는데 내가 보고싶다고 어제 나왔어.》

녀인은 이렇게 일러주고 딸에게 고개를 돌리었다.

《미혜야, 인사올려. 평양에서 우리 전라도를 잘 건설해주시겠다고 오신 건축가선생님이시다.》

《점 뵙습니다. 반가와요.》

처녀는 숫저어하면서 깊숙이 아미를 숙이었다. 첫눈에도 무척 아름답고 활달해보였다. 조카를 데리고 해풍을 쏘이러 나갔었음인지 약간 흐트러진 머리칼, 홍조어린 두뺨이 한층 더 싱싱한 감을 주었다.

《헌데 어떻게 우리 집엘?...》

《오, 이분의 아버님되시는분이 전쟁때까지 여기사 사셨다. 우리 영광사람이지.》

《그래요? 그럼 더욱 반갑네요.》

처녀는 두손을 딱 마주치고 무릅없이 방안에 뛰어들었다.

다음날 유정수와 송미혜는 광주로 돌아가기 위하여 나란히 동구길에 나섰다. 빠스를 타는 읍까지 20여리. 청신한 아침대기를 마시며 호젓한 들길을 걷는것은 더없이 즐거운것이였다.

미혜는 한저녁 이야기를 나눈것이 벌써 오랜 벗이 다 된듯 스스럼없이 자꾸 새 말거리를 꺼내놓았다.

《우리 엄마 참 이상하지요. 광주에서 오빠가 이제는 함께 사시자고 몇번이나 차를 가지고 모시러 왔었는데 한사코 반대시지요. 눈감는 날까지 여길 떠나지 않으신다는거예요. 그래서 광주서 손녀를 하나 데려다 말벗하시며 수도승처럼 사시는거예요. 정말 완고하시기란...》

《그런데 .참, 아버님은 돌아가셨다지요? 그런 불행은 언제?...》

유정수는 엇저녁부터 궁금하던 미혜의 가정사를 조심히 비쳐보았다.

《우리 아빠? 오래전이지요. 제 열두살때...》

미혜는 길설에서 풀잎을 하나 뜯어 입에 물고 잘근잘근 씹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호-긴 한숨을 내그었다.

《생각하면 우리 아빠 불행하셨어요. 기업을 하시던 아빠가 해외에 출장가셨다 오시니 부인이 덜컥 돌아가셨대요. 급병으로 딸 하나를 남기고 말이지요.》

한해동안 혼자 사시던 아빠가 그때까지 처녀이던 울엄마와 겨우 재혼하셨는데 이번엔 오빠와 저를 남기시고 숨겨두셨어요. 운명이 워낙 그렇게 정해졌던가봐요. 이복언니 서울시 철도영업부장마나님 되구요.》

《오. 그렇게 되였군요.》

유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서른넘어서까지 로치녀로 있었다는 정인옥, 어찌지 못해 출가는 했으나 주인을 성심성의 섬기면서도 얼굴에 별로 웃음은 몰랐다는 정인옥, 눈감는 날까지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완고한 녀인,

남편은 물론 아들딸에게도 말 못하고 마음속 깊이깊이 묻어둔 그 사연이 가슴저리게 헤아려졌다.

쌍태머리 그 시절부터 애타게 기다리는 하루하루를 덧쌓고 덧쌓아 어느덧 흰서리앉은 로파가 되었으니 호을로 가슴태운 그 애모쁜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아침에 떠나보내면서 어머니처럼 여기고 자주 자주 나오군하라며 눈굽에 이슬이 펴고이던 녀

인의 모습이 생생히 살아올랐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해변가 작은 마을의 아담한 양육에서 만났던 그날부터 유정수와 송미혜의 뉴대는 급속히 깊어져갔다.

미혜는 사흘이 멀다하게 정수를 찾아왔다.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 정수에게로 왔다. 정수에게 오는것도 마치 하나의 일과인듯싶었다. 올 때마다 일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와서는 신작음악회 가자느니 다방에 가자느니 이끌었다.

처음에는 처녀의 성의를 무시하기 어려워서 도판을 밀어놓고 이야기도 나누고 거리에 또 따라나갔다. 헌데 매양 섭섭지 않게 해주려니 일이 밀리었다. 아니,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그지없이 아깝고 뒤통에 죄를 짓는것 같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래서 랑해를 구하고 다음부터 굳이 연필을 놓지 않았다. 미혜는 그래도 좋라며 도판옆에 턱을 피고 앉아서 정수가 그려나가는 도면을 흘린듯이 지켜보곤하였다.

《황홀하네요. 이렇게 지으면 우리 광주 정말 멋있어질거예요.》 손뼉을 딱 치며 탄성도 내뿜었다.

어느 일요일아침엔 드라이브를 하자고 일찌감치 찾아왔다. 그러나 정수는 현지를 밟아볼 계획이어서 그 청을 들어줄수 없어 무척 딱해했다.

《아니 정수선 휴식일도 없으세요?》

《휴식이 별다른겁니까. 도판에서 일어서는건 머리를 쉬우는것이고 건설부지를 돌아보는건 산책이지요.》

《좋아요. 그럼 저도 함께 가요. 반대없지요?》

《대찬성입니다.》

미혜는 오빠의 승용차를 되돌려보내고 정수를 따라나섰다. 그들은 전담계획에 예견된 로정을 밟아 천천히 걸었다. 도청앞을 지나고 분수공원을 에돌아 금남로, 충장로...

걸음걸을 옮기는곳마다 숙연하고 추연한 감을 자아냈다. 이미 이 거리의 곳곳을 걸어본것이 한두번 아니건만 그럴 때마다 추연함은 덜해지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숭엄함과 그 어떤 책임감까지도 불러일으키는것이였다.

얼마나 많은 열혈청년들과 시민들이 이 거리에 쓰러졌는가. 얼마나 많은 통일의 사자들이 오늘을 보지 못하고 아까운 생을 마쳤는가.

금남로, 바로 여기에서 전남대의 청춘들이 땅크에 짓이겨졌다지.

분수대, 바로 저기에서 꽃다운 녀대학생이 한각제를 먹은 공수병놈들의 대검에 젖가슴을 란도질당하고 임신부가 창자를 쏘으며 나뒹굴었다지.

도청앞광장, 바로 저기에서 의분에 피끓어 뛰쳐올라와 시민군이 되었던 나의 삼촌이 참형당했다지. 《피의 목욕탕》이 되었던 광주!

유정수는 포석 하나, 건물 하나 푸르른 창공까지도 추억깊은 눈으로 새삼스럽게 둘러보았다.

아직도 그 피가 포석마다에 습배여있고 창공에서 통일을 절규하는 함성이 메아리쳐오는것만 같았다.

정수의 무거운 마음을 헤아렸던지 미혜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도심을 벗어나면서야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정수씨, 무슨 생각하십니까 알겠어요.》

광주사태가 일어났던 땐 제가 여섯살인가 일곱살인가 났을 때인데 어느날 엄마가 저와 함께 오빠를 데리고 여기 나오셨어요. <정부>가 <완전평정>을 했다고 할 때인데도 도로 광장 어디나 거무칙칙한 피자국이더군요. 철조박 벽돌조각 오가잡탕이 그냥 널려있고 건물은 창문유리 다 깨져나갔는데 사람들은 하나도 얼씬 않았어요. 정말 죽은 도시였어요.

전 그때 엄마가 하시던 말씀 지금도 생생해요.

<잘 봐두어라. 여기서 가신 렬사들 잊지 말어라. 이제 이분들 바라시던 세월이 오면 우리도 그리웠던 사람 몇몇이 보게 그렇게 살아가자.>

하긴 엄마도 봉기가 한창일 때 여기 나오시라고 무진 애를 쓰셨대요. 헌데 그땐 <계엄군>이 도시를 짹 에워쌌고 더구나 아빠가 꼼짝못하게 막아서서...》

정수는 생각이 깊어 묵묵히 걸었다.

그리웠던 사람 몇몇이 보겠다는 그 심정이 눈물겹게 고마웠다.

《어머님 말씀이 옳소. 그 렬사들을 잊지 맙시다. 이제 여기 도시의 한복판에 통일영웅탑을 높이 세웁시다. 그래서 조국과 민족이 천추만대로 잊지 않게 합시다.》

《고마와요. 남녘민중 생각해주셔서. 그러면 저 무등산에 누워계신 영령들도 고이 눈감으실거예요.》

《미혜, 다시 말해보오. 나는 그래 어디 민중이요?》

《호호 성났네요. 아직 못된 타성 불사르지 못해서...》

미혜는 애교있게 웃으며 정수의 잔등을 쿵쿵 두드렸다.

설계전투는 낮에 밤을 이어 계속되였다. 할일이 너무도 많았다.

정수는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머리를 찬물적신 수건으로 질끈 동이고 도판작업을 계속해나갔다.

불박이로 박혀 밤을 패군했더니 며칠전부터 입맛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온몸이 쭈서나기 시작하였다. 광주에 온 날부터 파중한 로동으로 겹쌓이기 시작하는 피로가 혈기넘치는 박달같은 육체도 쓰러뜨리게끔 된 모양이였다.

전자벽시계가 열한점을 쳤다. 설계실 동료들이

주객이 전도되어도 분수가 있지 이걸 너무하지 않느냐고 약을 가져온다, 병원에 가야 한다 서둘러 채촉하는것을 조금 더, 조금만 더 하며 앉아 있는것이 어느새 새날이 가까와오는것이였다.

(가짓, 약을 먹고 여기에 좀 눕지.) 하고 혼자 생각을 하며 마지막 점선들을 쳐나가고있을 때였다.

출입문이 가볍게 열리는것 같더니 누군지 옆에 와서 걸음을 멈춘다.

향긋한 냄새, 부드러운 체취.

미혜였다.

《아니, 이밤에 무슨 일로?...》

놀라 쳐다보는 정수를 미혜 역시 놀라는 눈길로 마주 바라보았다.

《아침에 전화 뭐라 하셨지요?》

《아차, 이 정신봤나.》

정수는 뒤통수를 두드렸다.

오빠가 저녁에 기다리니 오시겠느냐는 전화를 받고 꼭 가겠다고 대답한것을 그만 일정신에 깜빡 잊어버렸던것이다.

《약속은 법보다도 중한건데요. 전 이런것도 모르고 오빠와 눈이 까매 기다렸지요. 어디 오셔야 말이지요. 화가 나서 숙소엘 갔지요. 거기서 또 눈빠지게 기다리다가 애가 말라 왔는데 주인공은 이렇게 셈평 좋게...》

한참 화풀이를 하던 미혜는 그제야 정수의 수건동인 이마와 상혈된 얼굴에 관심이 갔다.

《어머, 이 수건 뭐예요. 눈에 피가 졌네요.》

급급히 수건을 벗기고 이마를 짚어보았다.

《어머, 불덩이예요. 이런 몸으로 어찌자고 이러시는거예요?》

미혜는 담박 울상이 되어버렸다.

《허겁하게 놀지 마오. 돌림감기겠지.》

《감기 아니예요. 폐염일수 있어요. 아니 더 무서운 병 온지 몰라요.》

《이거 점점 어마어마해지는데. 당장 구급차 불러야겠는걸.》

《흘러넘길것 아니예요. 함숙아줌마 말 들으니 정수씨 매일 이렇게 밤 팬다지요? 그러니 이런 병 오지요? 불이 꼭 꺼지고.》

순진한 처녀는 정녕 안타깝고 애가 말라 어쩔 줄을 몰라하였다. 정수는 찔찔 웃으며 미혜의 팔을 당겨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마음을 녹찾혀주려고 우정 소리가 나게 약을 먹였다. 그래도 안절부절 못하는 미혜를 이윽히 바라보던 정수는 저도 모르게 자기 진정을 그대로 털어놓았다.

《미혜동무, 우리 일전에도 돌아보지 않았소. 통일이 됐지만 광주천기슭에랑 저기 서당골, 수박동에랑은 판자집 비닐박막집이 그냥 남아있단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빨리 좋은 집을 지어줘야 할게

아니요. 통일을 위해 누구보다 피를 많이 흘린 광주시민들인데 누구보다 좋은 집, 좋은 생활을 안겨줘야 할게 아니요. 그걸 생각하면 줄음이 오지 않소. 몇밤을 패도 피곤하지 않고 몸이 아프다는것도 모르겠소. 내 일이 더딘것만 같아 오랜 세월 고생만 하신분들한테, 피흘리며 먼저 가신분들한테 죄스러워 못견디겠소.》

미혜는 눈을 내리깔고 잠잠히 들었다. 한참만에 얼굴을 들고 정수를 바라보는 두눈에 이름 못할 감동의 눈물이 어려있었다.

《정수씨 그 리념, 그 열정 부러워요. 재능이 부럽구요.》

그리고는 또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사뿐히 일어섰다.

《돌아가겠어요. 약을 잡수셨으니 이제 주무세요.》

그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여보이고 돌아서 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간 미혜가 어찌된셈인지 한주일 넘어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열흘 다 되어도 전화 한통 없었다. 전례로 보면 확실히 비정상이라고 아니할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혹시 무슨 사고라도?...)

궁금증이 점차 근심으로 바뀌어 래일은 만사 제쳐놓고 찾아보리라 마음먹고있는데 바로 그날 저녁 불쑥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날은 마침 한대상을 끝낸뒤여서 흐뭇한 마음으로 일찍 저녁을 먹고 호실에 들어와 텔레비전을 보고있던참이였다.

《제가 안보이니 어때요? 성가시지 않아 편안했지요?》

미혜는 장난기어린 눈으로 정수의 얼굴을 말끄러미 쳐다보았다.

《음 저...》

기다려지고 불안했다고 사실대로 말하자니 발딱하게 드러내보이는것 같고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자니 아무리 거짓소리라해도 너무한것 같아 미처 말귀를 고를수가 없었다.

《호호.》

미혜는 그 마음 다 안다는듯이 명랑하게 웃었다.

《엄마한테 갔댔어요. 령광에...》

정수씨 무척 수척해지고 약을 잡썬가며 앓는다고 했더니 울엄마격정이 여간 아니시지요. 옆에서 도대체 뭘하느냐고 절 막 꾸짖구요.》

그리고는 무겁게 들고온 가방을 헤치기 시작하였다.

《날이 선선해지는데 이 속을 갈아입으시래요. 이건 몸보신하시라는건데 매끼 두숟갈씩 잡숫구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무래도 함숙생활하자면 필요한것이라고 하시면서...》

잡춰보세요. 엄마가 늦게까지 빛으신거예요.》  
웃지함, 단지, 형태가 다양한 필수품들, 음식보  
자기…

펼쳐놓으니 탁자에 가득차고 침대에도 쌓였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일별하는 정수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가슴깊은곳에서 그저 뜨거운것  
이 자꾸 솟구쳐오를뿐이었다.

미혜는 감미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튀기를 한사  
코 정수의 손에 들려주고나서 자기는 파일을 짚  
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특종뉴스.》

파일접질을 손에 든채 정수를 쳐다보며 방글방  
글 웃었다.

《맞혀봐요. 뭐겠는지?》

《특종뉴스…뭘가?…》

《온밤 골짜매도 못맞칠걸. 저 오빠집 나왔어요.  
오늘부터 이 합숙생 됐는데요. 정수씨 딱 아래  
방.》

《뭘요?》

《그리고 교사노릇 집어쳤어요. 답답해요. 이번  
에 청년들로 새로 못는 건설회사에 들었어요. 정  
수씨가 도안한 집 짓고싶어서요. 우리 회사 첫  
작업 뭘지 아세요? 공해산업추방이래요. 정말 새  
세상이지요?》

연방 쏟아지는 《특종뉴스》에 정수는 어안이  
병병해졌다.

《그래 오빠는 뭐랍디까? 미혜 대학을 마친 음  
악가인데 건설 힘겹지 않을가?》

《오빠는 저더러 잘 생각했다며 방직회사도 이  
젠 거래를 위한 회사라고 하지요.

건설? 괜찮아요. 노래도 거기서 부르고 거기서  
가르치지요.》

정수는 미혜의 이 급작스런 돌변이 무척 놀랍  
고 경이스러웠다. 유산자의 고이 자란 외동딸. 상  
식적으로는 부르조아녀성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이  
처녀가 과연 이렇게까지 정신적인 비약을 일으  
킬수 있는가. 놀라왔다. 상상밖이었다.

그러나 한편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것만도 아니  
였다. 위대한 현실은 위대한 인간을 낳는다. 조국  
통일이라는 이 세계사적인 사변은 사람들의 정신  
세계에서도 전대미문의 사변을 가져왔다. 열광적  
으로 들끓는 조국이 열광적인 인간들을 배출하는  
것이리라. 이것은 력사의 필연이었다. 그런데 미  
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누구보다도 주저없이  
력사의 이 필연에 뛰어든것이였다. 정수는 이것  
이 고마왔다. 한없이 대견스럽고 기특했다. 애뜻  
하기만 하던 감정이 두터운 믿음으로 승화되며  
여태까지 몰랐던 강렬한 애정을 느끼게 했다.

정수는 미혜의 손목을 덥석 거머잡았다.

《미혜 고맙소. 정말 훌륭해.》

미혜는 손목을 잡힌채로 그런듯이 앉아있었다.

두뺨이 발기우리 물들어올랐다. 알릴락말락 숨  
소리가 높아지는것 같더니 그답지 않게 허아래소  
리로 묻는것이였다.

《고향에…애인 계세요?》

정수는 기탄없이 대답하였다.

《아직 그런 천사는 나타나지 않는구만. 미혜  
는?》

《저요?》

미혜는 손을 뺍으며 방긋이 웃었다.

그러더니 주저없이 입을 열었다.

《있었지요. 우리 학우 멋진 애인이었어요. 저에  
대해 굉장히 열렬했으니까요. 저도 애정을 품었  
구요.》

《…》

《헌데 어느때인가 온 대학이 쌀시장개방저지데  
모에 나갔는데 그 사람 홀로 강의실에 남아 저까  
지 붙잡겠지요. 최루가스에 눈이라도 멀면 어찌  
겠는가구. 저는 뺨을 쳤어요. 당신을 사랑하느니  
인형을 사랑하겠다고, 당신은 강아지나 사랑하라  
고…》

미혜는 구김살없이 웃었다. 그 투명한 웃음에  
정수도 따라웃지 않을수 없었다.

×

그날밤 야릇하게 감촉했던 그것이 드디어 현실  
로 닥쳐왔다. 미혜가 정식으로 사랑을 고백해온  
것이다. 바라면서도 바라지 않던것, 환희로우면서  
도 두려웠던것.

자, 이 일을 장차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가?…

정수는 온밤 뒤채기였다.

(미혜가 이제 어떤 태도로 나올가. 필경 뽀로통  
해서 쌀쌀하게 대하겠지. 도고한 처녀니까 다시  
간청하지는 않을게고… 내가 어쩔수 없이 흰기를  
들고 투항해오기를 기다릴수 있어. 집요하게, 그  
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심리전으로?…

그러니 투항하기전에는 찬서리만 풍길 미혜를  
이제 어떻게 매일 본다?)

그러나 이것은 공연한 걱정이었다.

아침에 세면을 하고 식당에 내려가니 미혜는  
자기 식탁에 정수의 밥까지 가져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 느령뽕이 늦잠 자셨지요? 그러실줄 알고  
저도 늦게 나왔는데 국이 식네요.》

료리접시들을 앞에 밀어놓아주고 수저까지 들  
려주었다. 이것은 전례없는 일이었다. 잊저녁 완  
전히 연약이 다 되었고 랑군이 다 된것 같은 말  
투와 몸가짐이었다.

그 확고한 자세가 저녁에는 더욱 완연하게 드  
러났다. 옷을 새로 지어 꽃보자기에 싸안고 올라  
온것이였다.

《이젠 환절기인데 그 옷 벗으셔요. 제가 지은 옷 입으셔야 해요. 텅텅한 성미 싫어요!》

그리고는 부득부득 싸들고온 양복을 입혀주었다. 치수는 언제 재고 기호는 어떻게 알아맞혀냈는지 신통히도 몸에 꼭 붙었다.

미혜는 미끈해진 정수를 거울앞에 세우고 앞뒤로 돌려보다가는 바투 다가서서 다심하게 옷깃도 당겨주고 이발로 실밥뜨트머리도 끊어주었다.

네 아무리 오빠니 뭐니 발뺌해도 내 님이다, 달리는 안돼 하는 자신만만한 배짱이었다.

정수는 움작 못하고 미혜 하자는대로 끌려다녔다. 어처구니없었으나 별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며칠후 미혜가 또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아침에 식당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녁에는 의례히 무슨 일 했다고 《보고》하러 올라오던 모습도 볼수 없었다.

어디 가면 간다고 아뢰었을텐데 또 엄마 보고 싶어 갔는가?...

나흘째되는 날이었다.

저녁을 거의 다 먹었는데 식당아주머니가 옆에 와서 앉더니 수저놓기를 기다리다가 은근히 말을 건네는 것이었다.

《아저씨 맘 편해 밥 한그릇 다 내슈?》

《예?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미혜양이 이틀째 미음 한모금 안마시고 누웠다오.》

《아니 왜요? 어디 아프답니까?》

정수는 가슴이 덜컥하여 다우쳐물었다.

《어머니집에 갔다오겠다고 하더니 와서부터 지러지 않소.》

《그래요?!》

정수는 덤벼치며 일어나 미혜의 호실로 향하였다.

《원 저런 알뜰한 님이 그리도 귀해서...》

녀인은 정수의 뒤에 대고 혀를 쭈쭈갈기였다.

미혜는 요포를 폭 올려쓰고 꿈쩍않고 누워있었다.

《미혜, 왜 그러오. 어디가 편치 않소? 아니면 집에 무슨?...》

꼭걸상을 당겨놓고 앉아 조심히 요포를 내리웠다. 미혜는 눈도 뜨지 않았다. 며칠사이 눈에 알리게 얼굴이 축갔다. 고민을 해도 무섭게 하는 처녀였다.

표정없이 그렇게 누웠던 그는 별안간 벌떡 일어나앉았다. 속옷바람의 팽팽한 가슴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정수씨 말씀해줘요. 울엄마가 왜 정수씨와 똑같은 말씀을 할가요? 약속이나 하신것처럼.》

《응? 그건 무슨 말이요?》

정수는 대뜸 모든것이 짐작되었으나 짐짓 모르쇠를 하고 되물었다.

《정수씨 오빠로 사랑하라는거지요. 애인은 안된다고.》

들어보니 미혜는 어머니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매듭을 지으려고 고향에 나갔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동기로 지내는것이 좋다고 단마디로 잘라버렸던것이다.

《그것 보오. 애인이 더 가까운가 남매가 더 가까운가. 세상에 혈육 이상이 있는가. 어머님도 그래서 찬성 않으셨을거요.》

《결발린 말씀 마시고 여기서 털어놓으셔요. 정수씨 그 까닭 아시지요?》

《까닭은 무슨 까닭. 자 그건 그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밥도 안먹고 작업도 안나가면 되오? 규를 없이.》

《규를? 흥,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말씀하기 싫으면 가셔요.》

미혜는 정수를 사정없이 밀어냈다. 그리고 잘각! 문을 잠그었다.

정수는 할수 없이 터벅터벅 호실로 올라왔다.

이제 저 처녀가 어떻게 나오겠는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아니, 예측 못할 것이 아니었다.

열흘이고 한달이고 저렇게 문 잠그고 누워있을 것이다. 사막의 그 처녀나 줄리에트처럼 될 것이다. 미혜는 십분 그럴수 있는 처녀였다.

정수는 담배를 붙여물고 방안을 오락가락하였다. 문득 걸음 멈추고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편지를 펼쳐놓았다. 만년필을 뽑아 뚜껑을 열었다.

《존경하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서두를 떼고 그간의 사연,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적어내려가는 정수의 눈앞에는 조국이 헤쳐온 수난많은 력사의 한토막이 영화화면처럼 생생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

1950년 마가을.

락엽쌓인 태백산 깊은 산줄기로 한 대오가 움직여가고있었다. 전라도에서 지하활동과 무장투쟁을 벌리다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와 함께 북행길에 오른 남조선인민유격대오였다. 군복이 아닌 각이한 옷차림을 한 70여명 대오의 인솔자는 유현이었다. 거기에는 약혼녀 정인옥도 있었다.

유현과 정인옥은 앞뒤마을에서 태어나 함께 자라면서 각별한 인연으로 맺어진 사이였다.

일제시기에는 가난과 천대를 함께 서러워하면서 서로 위해주는것으로 맺어졌고 해방후에는 일제를 대신하여 기여던 미제와 민족반역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굳건해졌다. 경찰파출소들을 습격하고 선전물들을 살포하는 긴장하고 아슬아슬한 싸움속에서 유현이 정인옥을 구해낸적은 몇번이며 정인옥이 유현의 생명을 지켜선것은 몇번이었던가.

그들은 50년봄에 약혼을 하였다. 이제 가을이

오면 잔치를 하고 일심동체가 되어 투쟁도 더 잘하고 살림도 기막히게 꾸리자고 굳게굳게 언약하였다.

그런데 전쟁, 후퇴...

대오는 련일 행군을 다그쳤다.

검질기게 뒤따르며 포위환을 조이는 적과의 부단한 격전, 굶주림, 엄습하는 추위...

순간순간 사선을 넘는 혈투속에서 더욱 애간장을 말리우는것은 정인옥이 더는 대오를 따라 걸을수 없게 된것이였다. 다리에 충상을 받은데다 이름조차 애매한 병마가 덮친것이였다. 다리를 상한것은 담가에 뉘여가도 되겠지만 그 병마는 어쩔수가 없었다. 시간이 다르게 온몸이 부어오르고 손발이 가드라들고 의식마저 흐려지는 인옥이.

아직도 헤쳐가야 할 길은 료원한데 따뜻한 안식처 하나, 먹어야 할 약 한봉지 없었다. 이런 험지에서의 하루 한시간은 그만큼 인옥의 생명을 조이는것이였다. 대원들이 번갈아업기도 하고 담가를 만들어 맞들기도 했으나 이제 더는 그렇게 할수도 없었다.

유현은 인옥을 대오에서 떼여냈다. 령마루에 대오를 멈춰세우고 휴식구령을 준 다음 인옥을 데리고 골짜기를 내려왔다. 멀지 않은곳에 인가가 보이는 산기슭에까지 내려왔다.

《인옥이, 여기서 헤여집시다. 저 마을로 내려가오. 내려가서 수단껏 치료를 받소.》

《싫어요. 당신따라 가겠어요. 죽어도 좋아요. 당신따라 가다가 죽겠어요.》

인옥은 유현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왜 이리 속태우는거요. 아주 헤여지는것도 아닌데. 인차 되돌아 나온다지 않소. 내 다시 나올때까지 은신해서 몸간수를 하라는거요.》

《글쎄 싫어요. 정 집이 되거든 차라리 죽이고 가주어요. 당신 떨어져 내 어딜 가요. 어딜 가면 살수 있다는거예요.》

《아 이런 답답이라구야. 이렇게 며칠만 더 가다가는 당신은 끝이란 말이요.》

《아이 싫어요, 싫어요.》

눈물범벅된 얼굴을 서로 비비며 따라가겠다고 하니 안된다거니 옥신각신하던 그들은 이윽고 살이 찢어지는것 같은 리별을 하였다. 인옥이 드디어 자기를 다잡았던것이다.

《인옥이, 죽으면 안돼, 절대 죽으면 안돼. 몸이 좀 나아지거든 꼭 고향에 가있소. 그때야 내가 다시 나와서 찾을수 있지.》

운신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예가 어디멘지도 모를곳에 생사를 전혀 기약할수 없이 떼여놓는 유현의 가슴은 온통 수천개의 쇠꼬치로 마구 찢쭈서대는것 같았다.

...

《...이렇게 헤여진 미혜 어머니를 처음 만나는 순간 저는 생면부지의 녀인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혈친의 정을 느꼈습니다. 미혜는 친동기처럼 여겨지구요. 미혜 어머니역시 저를 그런 정으로 극진히 사랑합니다. 실제로 나라의 분열이 아니었다면 저의 어머니가 되었을 녀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미혜를...》

너무나도 기막힌 아버지와 미혜 어머니의 사연이 저를 번민하게 합니다...》

×

한여름 더위가 끝날상싶지 않던 여기 조국 남단에도 이제는 가을이 완연해졌다. 구름이 말짱 걸린 하늘은 가없이 높고 푸르렀다. 차창밖으로 언뜻언뜻 스쳐지나는 키낮은 나무들로 노랑과 빨간 새옷을 갈아입었다. 교외를 벗어나니 통일된 첫해의 무겁게 실린 벼바다가 누렇게 펼쳐졌다.

정수는 경쾌하게 승용차를 몰아나갔다.

어느새 시창으로는 해감내를 품은 비릿한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정수씨, 오늘 정말 무슨 바람 불었어요? 이런 드라이브 다 생각해내시고요.》

뒤좌석에 몸을 굽히고앉은 미혜는 아까부터 하던 말을 또 되풀이했다.

《어머님 뵈고싶어서. 너무 오래 찾아가지 못해 죄송스럽거든.》

차가 정원앞에 멈춰서자 트락에서 놀던 영아가 두팔을 벌리며 달려나왔다.

《할매, 고모왔어 고모.》

어린것은 미혜의 치마폭에 매달려가지고 정수도 낮이 익은지 방글방글 웃음을 보냈다.

뒤따라나온 정인옥은 정수의 어깨부터 당겨안았다.

《왜 그사이 한번도 열썬 안했나. 원 그럴 법이 어디 있어.》

《일은 치지도 못하면서 괜히 바쁘게 보냈습니다. 나오고싶은 마음 늘 간절하면서도...》

《바빠도 그렇지 하루면 되는데. 난 자네 너무 기척없길래 내라도 한번 다녀오자고 버르고있었는데.》

정인옥은 정수를 감싸안다싶이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밤은 정말 단란한 한식구가 되어 화기가 넘치는속에 저녁식사를 하였다.

상을 물리고 단정히 둘러앉았을 때 정수는 품속에 고이 간직해가지고 온 두툼한 봉투를 꺼내 들었다.

《어머님, 평양에서 아버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뭐 아버지한테서?!...》

정인옥은 약간 후들거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정인옥에게》라고 큼직하게 박아쓴 결봉을 하염없이 들여다보았다. 조심히 어루쓸었다. 반질고리에서 가위를 찾아다 사각사각 가장자리를 베어내고 속지를 뽑아 펼쳤다. 더듬더듬 안경을 코에 걸었다.

모든것이 멈춰선듯한 정적속에서 글줄을 더듬어 내려가는 정인옥의 두눈에서 소리없이 맑은 이슬이 썸썸아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몸을 타고 줄줄이 흘러내려 편지지우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인옥이...》

유현은 이렇게 썼다.

《인옥이, 아직도 이렇게 부르는 나를 용서하오.

무정한 세월이 장장 반세기를 흘러 나도 백발로인이 되었고 당신도 로파가 되었겠건만 내 눈앞에는 아직 머리 흰 인옥이는 보이지 않고 단발랑을 했던 처녀, 떨어지지 않겠다고 가슴을 두드려대던 그 인옥이만이 보ियो.

얼마나 긴 세월이 아득하게 흘러갔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가슴저리는 나날이었소.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지나간 일들은 삭막해지고 옛정도 메말라진다고 하지만 그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한 말인것 같소.

나는 살뜰한 안해를 맞아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서도 어느 하루, 어느 한순간도 인옥이, 당신을 잊어본적이 없소. 그것은 갈라진 조국의 아픔, 민족의 아픔이 그대로 인옥이와 헤어진 아픔으로 되었기때문이요.》

정인옥은 수건으로 눈굽을 찍어냈다. 간간히 찍어내고 다음장을 번지였다.

《허나 이젠 그 아픔이 사라져갔소. 영원히 사라져갔소. 3 천리 우리 조국의 앞길에는 창창한 대공이 열렸소. 이제 다시는 그런 불행, 그런 아픔이 없을것이요. 사소한 아픔이나 어두움이라도 다시 조국에 비껴서는 안될것이고 우리 민족 매개인의 가슴에도 절대 깃들어서는 안될것이요.

인옥이, 나는 당신의 심정을 뜨겁게 감수하고 우리 정수의 마음에도 공감하오. 그렇소. 정수가 왜 인옥의 아들이 아니고 미혜가 왜 내 딸이 아니겠소. 그들은 인옥의 아들딸이고 내 아들딸이요.

때문에 인옥이, 우리 그애들을 결합시켜줍시다. 조국이 하나로 되었는데 우리 한가정 됩시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 행복을 우리들의 뉘까지 그애들이 마음껏 누리게 합시다. 그애들의 앞길을 축복해줍시다.》

정인옥은 또 눈굽을 훔쳐냈다.

만단정희가 서린 유현의 편지는 길었다.

《아, 고향에 가고싶소. 막 달려가고싶소. 분별의 장벽이 허물어진 그날부터 내 마음은 하루에

도 몇번씩 꿈속에서도 고향을 찾아가고있소. 더구나 인옥이가 고향에 있다는 소식을 받은후에는 어린애마냥 본초가 새롭소.

하지만 인옥이.

반세기 가까운 세월 그렇게 애태우며 그리던 고향과 인옥이한테 내 어떻게 빈손으로야 갈수 있겠소.

나는 지금 순천에 내려가있소. 거기서 내가 정무원에서 일할 때 책임을 졌던곳이요. 거기서는 지금 남녘땅에 보내줄 세멘트 증산투쟁으로 낮과 밤이 따로없소. 나는 거기서 다시 <국장>이 되고 <로동자>가 되어 뛰어다니오.

이제 조금 지나 때가 되면 대형집배마다에 내 땀이 배인 세멘트를 가득가득 담아내고 나가겠소. 고향아, 내가 간다! 소리치며 가겠소...》

《정수 아버지님!》

인옥은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마치 방안에 유현이 앉아있기라도 한듯 창자가 끓기는것 같은 오열을 터뜨렸다.

《그때 이름도 모를 산중에서 헤어진후 요행 고마운 의원을 만나 구사일생 날아난후 당부하신대로 고향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허구한날을 어떻게 맞고 보냈는지 그걸...그걸 무슨 말로 다 하겠나요.》

정인옥은 두팔을 벌려 정수와 미혜를 한품에 꼭 그러안았다.

《암 그렇구말구. 다시는 그런 눈물이 없어야 하구말구.》

미혜는 어머니의 가슴을 마구 두드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엄만 왜, 엄만 왜 그런 이야기 여적 않으셨나요. 왜 저한테 해주지 않으셨나요...》

...

찬란한 해돋이.

유정수와 송미혜는 나란히 바다가 모래불을 걸었다.

갈매기 날아에는 하늘은 가없이 아득하고 이글이글한 불덩이를 안고 출렁이는 바다도 가없이 아득했다.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저기, 저기가 끝나는곳은 과연 어디일까.

미혜가 손을 들어 가없는 하늘을 가리켰다.

《정수씨, 우리 앞길 저렇게 창창할거예요.》

정수도 환희에 넘쳐 대답하였다.

《그럼, 통일된 우리 조국, 우리 조국의 앞날 저렇게 무궁하고 아름다울거요.》

《아, 얼마나 좋아요. 우리 신혼여행 백두산에서 시작하자요. 백두산전지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한나산까지...》

《그렇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그들은 손목을 잡고 달음질쳤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미혜가 또 두팔을 높이 쳐들었다.



《우리 조국 이젠 어떤 나라 될가요?》  
시를 읊듯 정수의 대답  
《사랑이 넘치는 나라》

노래부르듯 미혜의 화답  
《정의롭고 부강한 나라》

통일 원년 첫아침에

풍자시

## 벌거벗은 아메리카

-1960년 정초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이 조선녀인을 붙잡아다  
벌거벗겨 몸에 뺨끼를 칠해 거리로 내쫓았다-

백인준

쭉 벌거벗었구나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그의 문명앞에서  
홀딱 벗고 나섰다 《자유》 아메리카는  
그 구린내나는 알몸뚱이를

완력사나운 강도들이 달려들어  
연약한 한 녀인을 벌거벗겼으니  
어찌하랴 수난을 당할수밖에  
뺨끼를 온몸에 묻히우고 녀인은  
맨몸으로 거리에 내쫓기였다

그러나 오늘 과연  
누가 벌거벗었나 인류의 량심앞에서?  
남조선의 한 녀인인가 아니면  
《거룩》한 아메리카의 《신사》들인가?

온 세계 사람들이 대답하누나,  
그것은 아메리카! 바로 아메리카자신!  
그의 문화 그의 도덕은  
20세기 60년대도 바로 정월초하루날에  
쭉 벗고 나섰다, 인류의 면전에서

우리는 그 누구도  
억지로 그들을 벗기지 않았건만,  
스스로 홀딱 드러내놓았구나,  
그 구리고구린 썩은 제국주의의 몸뚱아리를  
그 누구도 칠해주지 않았건만  
뺨끼가 아니라 피가 묻었다 아메리카는

(나는 시인  
수천수만의 말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어휘들만을 골라  
그우에 또 운과 억양을 붙이는 사람  
뚜껑비를 보고도 점지않게  
개구리의 사촌이라 불러주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나 이번만은  
아무리 좋은 말 다 골라봐도  
할수 없구나 달리 말할수는...)

시인의 상상력이 아니라도  
눈에 선히 보인다, 아메리카 《신사》들이  
쭉 벌거벗고 워싱턴 네거리로  
《문화》를 떠들며 분주히 오고감이  
라체에 중절모는 어울리지 않건만  
그래도 승용차에 폭신히 앉아  
쭉 벌거벗은 미국의 은행가들

나는 상상하노라 《라체의 왕국》을  
모든 위선과 가면마저 벗어 동맹이친 나라  
쭉 벗고앉은 대통령이며  
쭉 벗고 결재받는 국무장관이며...  
그들의 밑에서 징그러운지  
나무로 만든 의자도 마루바닥도 삐걱거린다

《유엔》의 만국대표들에게 권고하고싶노라  
미국의 대표가 《유엔》의 연단에 올라  
《사랑》에 대하여 《자유》와 《문명》에 대하여  
《신성》한 연설을 내리하실 때  
잠깐만 한번 생각해보시라  
그가 만일 당신들앞에  
쭉 벌거벗고 서서 연설을 한다면?...

내 온 세계 사람들에게 권고하노니  
양키들이 당신앞에 온다면  
그놈이 제아무리 《신사》같이 입었어도  
그놈은 벌거벗은놈이라고만 생각하시라  
그렇다, 사실 그렇다!  
바로 아메리카는  
인류의 면전에서 벌거벗고 날친다

인류의 량심과 문화에 대한  
이 흉칙한 도전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웨친다, 고향친다  
《애, 이 께끈한 새끼들아!  
우리는 너희들을  
조선의 밖으로 내쫓을테다  
인류의 속에서 내쫓을테다》

## 근대아동문학의 개척자 소파 방정환

김봉화

1931년 이해 여름은 심한 무더위로 하여 땅이 갈라터졌다는 기상학적기록을 남기고있다.

삼복더위가 한창 고조를 이룬 7월 23일, 서울 청량리에 있는 두칸짜리 크지 않는 목조가옥에서는 한 병자가 여러 사람들앞에서 림종의 마지막 시각을 보내고있었다. 병자는 자기를 바라보고있는 사람들에게 《어린이들을 두고가니 부탁하오.》라고 힘겹게 말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그가 바로 우리 나라 근대아동문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킨 소파 방정환이다.

그는 일제통치하의 수난의 시대에 42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편집출판하여 어린이들을 기쁘게 한 진보적인 지식인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은 비록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일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되어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민의 소유물로,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작품은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된다면 인민의 소유물로, 민족의 재부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방정환은 근대아동문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 작가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실로 방정환은 일제의 탄압이 극도로 심해져서 우리 말과 글이 억제당하고있던 시기 잡지 《어린이》를 창간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넋을 심어주는데 적지 않게 기여한 진보적 아동문학작가였다.

×

1889년 11월 9일, 방정환은 서울 당주동(야주개라고 불리우던곳)의 네거리에서 쌀, 콩, 보리, 팔과 어물전을 차려놓고 장사하는 방경수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그래도 아버지의 겐찮은 장사덕으로 하여 방정환은 생활에서 별로 근심걱정을 모르고 자라날수가 있었다. 장난을 몹시 좋아하는 그였지만 다섯살부터는 할아버지의 엄한 통제밑에서 때때로 회초리까지 맞아가며 천자문을 배웠다. 총명하고 령리한 방정환인지라 겐찮게 천자문을 해득하였고 능숙히 읽을수가 있었다.

그러나 매일 앵무새처럼 천자문을 외우기만 해

야 하는 그것은 새것에 대한 열렬한 지향으로 불타고있던 정환의 마음에 맞을리가 없었다.

어느 하루 정환은 자기보다 두살우인 삼촌이 학교에 간다고 자랑하면서 집을 나서는데를 보고는 먼발치로 슬금슬금 따라갔다.

갓쓴 사람, 초립쓴 사람, 머리를 땀은 여러 총각들이 모인 교실에서는 선생이 신학문을 가르치고있었다. 그것에 호기심이 동한 정환은 교실 맨뒤에 슬그머니 들어가앉았다가 선생에게 발각되어 쫓겨나고말았다. 그러기를 몇번...

이 일은 곧 교장의 귀에 들어갔다. 이어 교장은 정환을 불러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정환의 지능정도를 알게 된 교장은 그에게 학교를 다니자면 머리를 깎아야 한다고 하면서 인력거에 태워 거리로 나와 그의 머리를 깎아버렸다.

이 일로 하여 정환의 집에서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구 하면서 조부는 회초리로 정환의 종아리를 사정없이 두들겨팼다.

당시 거의 모든 가정들에서는 봉건이 심했던 탓으로 하여 죽으면 죽었지 머리는 깎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었다.

종아리가 붓고 피멍이 들어어도 정환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그 정상이 너무 가슴아파 조모는 심하게 부어오른 정환의 아래다리를 부여잡고 울었고 그의 어머니 역시 뒤울안에 나가 눈물을 찼다.

그러나 당자인 정환은 피멍든 다리의 아픔으로 하여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낮에 배운 국문을 읽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것을 본 조부는 혀를 털고는 그다음부터 정환이가 학교에 가는것에 대해서는 일체 상관치 않았다.

1905년 보성소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한 정환은 공부에 열중하는 한편 자기 집에 동네아이들을 모여놓고 연극놀이를 자주 하였다.

그후 그는 서대문쪽에 있는 고모집 이웃에 사는 한 미술가로부터 장난감 환등기를 선물로 받았다. 이것은 그에게서 커다란 기쁨으로 되었다. 공부를 끝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환은 동네아이들과 함께 환등기를 보면서 즐기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정환이 열살때 그의 가정에는 불행이 덮쳐들었다. 금광업을 하던 할아버지가 일제의 자본침투로 하여 실패하고 큰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문에 할아버지는 집과 쓸만한 가정집물들을 몽땅 팔아 빚을 물게 되었다.

생활의 파도에 밀려난 정환이네 가족은 조그마한 달구지에 이부자리와 부엌세간을 싣고 서울뒤

글목인 도정궁앞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이사하였다.

집이사와 함께 정환은 보성학교에서 미동공립 보통학교로 전학하였다. 생활은 말할수 없이 꼬들리기 시작하였다.

매일이다싶이 죽으로 끼니를 에워야 하였고 그것마저 떨어지면 굶어야 하는 배고픈 설움을 정환은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눈보라 울부짖는 겨울날 내의도 변변한것이 없어 제대로 입지 못하고 떨면서 쌀을 얻으려 다닐 때의 그 고통은 참기 힘들었다.

이무렵, 정환의 어머니의 병은 나날이 더해만 갔고 살림형편은 말할수 없이 어려워져 집에서는 식구하나라도 덜리고 열두살난 누이를 시집보내기로 하였다.

결혼식날 누이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발버둥질하며 서럽게 울어 마침내 온 집안은 울음판으로 변하였다.

정환은 가난이 이처럼 불행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니 이처럼 못살게만 하는 사회가 한없이 저주스러웠다.

하지만 정환은 모진 슬픔과 정신적고통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였고 집안일을 도와나섰다. 한편 그는 자기포래의 동무들과 자주 모여앉아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모임을 즐겨하였다.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였다.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가, 공부는 무슨 목적으로 하는가, 꽃은 어떻게 피는가, 바람은 무엇때문에 부는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매우 활기있게 하였다. 지어 의견상으로 《충돌》까지 하면서 이야기는 맹렬하게 벌어졌다.

소년들의 청신한 정신세계는 저 멀리 맑고 푸른 대공으로 끝없이 날아갔다.

정환은 모임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들에게 조직을 못자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정환의 발기로 된 《소년립지회》가 생겨나게 되었다.

소년들의 한결같은 요구로 정환이가 회장이 되었다.

《소년립지회》에서 토론된 내용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별치 않은것들이었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내용들은 사회현실과 결부된 매우 심각한 것들이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나라를 빼앗겼는가,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힘이 약한것은 무엇때문인가 등 문제들은 토론의 주되는 대상으로 되었다.

1912년 미동보통학교를 졸업한 정환은 가정형편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집일을 도와나섰다.

그다음해에야 아버지의 용단으로 정환은 선린 상업학교에 입학하여 가까스로 2년간 공부하고는 또다시 가정사정으로 중퇴하였다.

일제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의 신

세는 달리될수 없다고 생각한 그는 월수입 5원을 주는 일자리를 겨우 얻어 일하였다.

방정환은 어느덧 열아홉살의 청춘기를 맞이하였다.

1917년 그는 천도교 3대교주였던 손병희의 셋째딸 손봉화와 결혼하고 생활이 꽤찮은 처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정환의 장인인 손병희로 말하면 좌도란정의 죄를 쓰고 처형된 천도교 1세교조 최제우와 갑오농민전쟁지도자의 한사람이었고 서울에서 사형당한 2세교조 최시형의 뒤를 이은 사람으로서 그도 역시 일제교형리들로부터 심한 탄압과 박해를 받고있었다. 이러한 손병희는 사위인 방정환에게 애국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수 없었다.

결혼후 방정환은 처가의 도움으로 보성전문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면서 여러 청년들과 함께 1918년에 《청년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이해 12월에 정환은 《청년구락부》회원들과 함께 자신이 창작한 소인극 《동원령》에서 연출과 주역을 맡아하였다.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힘을 합쳐 빼앗긴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여 연극은 못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다.

1919년 3.1인민봉기가 터졌다. 이때 방정환은 장인 손병희의 영향하에 《조선독립선언서》작성에 관계하였으며 33인의 한사람으로 되었다. 그러나 3.1운동은 실패하였다.

1920년에 정환은 일본 도쿄로 건너가 동양대학분과에 입학하였다. 항시 문학에 뜻을 두고있던 정환은 여기서 아동문학을 전공하였다.

다음해 방학을 리용하여 서울에 온 정환은 《천도교소년회》를 조직하였다.

그후 정환은 이 소년회에서 교생스럽게 흘러간 자신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소년들의 회합을 무을것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1923년에 《색동회》가 무어졌고 해마다 5월 1일을 《어린이 날》로 정하였다.

1925년 봄 전국적으로 소년, 소녀 단체 책임자들은 서울에 모여 서로의 화목을 도모하는 회합을 가졌다. 여기서 그들은 《조선소년련합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방정환을 선거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은 일제의 야수적탄압으로 인차 해체되고말았다.

그후 방정환은 생각끝에 동화구연가로 활동하기로 결심하고 여기에 나섰다. 정환은 전국 각지로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을 하였다.

그가 하는 동화구연에는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하던 일을 제쳐놓고 달려와 즐겨듣곤하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어느날 천도교회당에는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정환이가 하는 구연을 들으려고 2천여명이나 몰

려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단이였다. 이때 일본경찰이 나타났다. 그놈은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이런 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당 앞자리를 내놓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색동회》성원 한명이 경찰을 구슬리여 자기 옆자리에 앉히었다. 하지만 놈의 험상궂은 얼굴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정환의 구연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경찰은 표정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슬퍼하기도 하였고 기뻐도 하면서 사람들과 호흡을 함께하였다. 그러다가 이야기가 절정에 오르자 경찰은 저도 모르게 《잘한다》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다리를 두들겨대며 좋아하였다. 사람들의 이목이 자기한테로 집중되는것을 알게 되자 놈은 그만 쭉스러워 머리를 긁어댔다...

이처럼 방정환은 고혈압으로 고통을 받아가면서도 씩씩이 열정적으로 구연을 하면서 소년운동에 힘과 지혜를 다 바쳤다.

## ×

1920년대 우리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흔히 《애자식》, 《애놈》, 《애새끼》, 《자식》으로 낮추어 부르기가 일쑤였고 존대한다는것이 《아이》라고 부르는 정도였다. 아이들의 인격은 몹시 무시되었으나 어른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문제를 놓고 정환은 늘 깊은 생각에 잠겨 숙고하였다. 원래 《아이》와 《소년》, 《소녀》 등의 말은 순수한 우리 말이 아니라 한자에서 따온 말이어서 사람들에게 친숙감을 주지 못한다고 정환은 생각하고있었다.

나라의 보배이며 미래인 어린이들의 이름부터 고쳐주는것이 그들에 대한 태도와 립장을 옹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것이라고 그는 확신하였다.

아이들을 부르는 이름은 은근하면서도 고운 말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끝에 《어린이》라는 말에 미치였다.

어린이들을 더없이 사랑하는 정환이었기에 그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어린이》라는 말을 생각하였고 세상에 나오게 하였다.

방정환에 의하여 《어린이》라는 말이 나와 퍼지자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무척 기뻐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1923년 3월 《어린이》잡지를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잡지 서문에서 정환은 이런 글을 남기었다.

《모진 구박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안타깝게 무엇을 구하려고 발버둥치는것은 오직 래일에 대한 한가닥 희망에 남아있기때문입니다. 이 한가닥 희망을 살리는 길은 래일의 주인, 래일의

일꾼인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것밖에 없습니 다...》

월간으로 발간되는 이 《어린이》잡지는 내용과 편집의 참신성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어린이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그리하여 잡지는 1931년까지 계속 발간되어 어린이들의 정서교양에 적지않게 기여하였다.

1925년 5월 1일 어린이날 3주년을 맞으며 방정환은 《색동회》회원들과 함께 성대한 기념식을 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는 여기서 보고대회와 강연회, 시가행진 등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이날에 뿌릴 빠라만 하여도 15만장도 더 넘게 준비하였다.

기념회장인 《천도교회당》에서는 방정환의 작시로 된 《어린이날》노래가 소년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힘차게 울려 퍼졌다.

단상에서 어린이들의 합창에 귀를 기울이던 정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불을 타고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순간이지만 모든 슬픔과 쓰라림을 가시고 다소나마 기쁨을 느낀 그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

정환은 축하연설에서 어린이모두는 씩씩하게 자라나 빼앗긴 나라를 찾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을 하여 장내에 모인 청중모두를 크게 감동시켰다.

이날 방정환자신은 불행하였던 자기의 어린 시절을 가슴아프게 회고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녀를 지켜주리라 굳게 결심하였다.

정환은 어린이들이 고작해야 늙은이들의 판에 박은 옛날 이야기나 들으면서 어린 시절을 흘러 보내는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그들의 아이에 맞는 책을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기가 만드는 동화집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꿈을 키우며 착하게 자라나도록 하게 하려고 하였다.

정환은 찬방에서 연손을 입김으로 녹여가면서 세계 각국의 동화가운데서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지혜를 안겨줄 동화들을 골랐다.

드디어 어린이들을 위한 정성이 가득 담긴 동화집 원고가 완성되고 책의 제목을 《사랑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동화집 《사랑의 선물》이 세상에 나왔다. 이것은 곧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 주었다.

정환은 동화집의 첫머리에 이렇게 썼다.

《학대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속에서 우리들이 자란것처럼 또 자라나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그윽히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엮었습니다.》

동화집을 받아안은 전국의 어린이들은 동화의 세계에 매혹되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실로 어린이라는 말을 생각하였으며 어린이잡

지를 발간하였고 어린이노래를 창작하였을뿐 아니라 어린이날을 만들고 최초의 동화집 《사랑의 선물》까지 편집출판한 방정환의 노력에는 끝이 없었다.

×

소파 방정환의 창작에서 가장 중심으로 이야기해야 할것은 어린 소년, 소녀들의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게 작품을 쓴것이다.

그는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잡지 《신청년》과 《신녀성》을 발간하면서 이 잡지들에 발표하는 자기의 글에서 늘 어린이들의 동심세계를 진실하게 반영하려고 애써 노력하였다.

동요 《형제별》을 보자.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이 둘이서  
눈물을 흘리네  
...

작품에서는 나날이 쪼들려가는 생활에 부대끼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겪는 이 나라 어린이들의 설움을 연령심리적특성에 맞게 진실하게 반영하고있다.

동요 《가을밤》에서는 가난으로 하여 더없이 피로운 밤, 그 기나긴 밤에 다 껴진 아들의 옷을 껴매야 하는 불쌍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모습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동요에는 밤새워 옷을 껴매면서 눈물짓는 가난한 이 나라 어머니에 대한 동정의 향수가 짙게 어려있어 서정적주인공의 애달픈 심정이 아이에 맞게 깊이있게 반영되고있다.

그러나 이 시기 방정환이 창작한 동요들을 두  
시조

고 말한다면 외롭고 쓸쓸한 감정을 아이에 맞게 노래하는데 그쳤을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시사도 주지 못하였다.

방정환의 작품들에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 동화이다. 그는 자기가 창작한 동화작품들에 남을 속이지 말고 의리를 지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많이 담고있다.

동화 《귀먹은 집오리》, 《눈어두운 포수》, 《꽃이야기》 등이 바로 그러하다.

방정환은 동화창작의 첫시기부터 동화에서 동심세계에 맞는 제목을 설정하는 문제를 어린 독자대중을 쟁취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문제로 날카롭게 제기하고 해결하여나갔다.

동화 《시골쥐의 서울구경》, 《천당가는 길》, 《설떡술떡》, 《나비의 꿈》, 《양초귀신》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는 어린이들을 신비한 세계에 잠기게 하는 제목을 골라쓰곤하였다.

그가 창작한 모든 작품들은 나라를 빼앗긴 우리 인민의 민족적슬픔을 어린이들의 연령심리적 특성에 맞게 쓴것으로 하여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즐겨 읽히었다.

그러나 그의 작품들은 세계관적 및 시대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민족적 슬픔과 비애를 표현하는데 그쳤을뿐 당대 현실에 대한 심각한 해부와 반항의 투쟁정신은 보여주지 못하였다.

일부 작품들에는 어린이들이 천대받고 서러움을 당하는것은 그의 부모들의 탓인듯한 인상까지 반영되어있으며 지어 종교적요소까지 깔려있다.

방정환이 세상을 떠난지 9 년만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추억하여 1940 년 경성전문사판에서 작품집 《소파전집》을 출판하였다.

《소파전집》에는 동요 《형제별》의 6 편, 동화 《귀먹은 집오리》의 24 편, 야화 《어부와 마귀이야기》의 3 편, 미담실화 《소년용사》의 13 편, 소년소설 《금시계》의 2 편 기타 동화극, 수필, 잡문 등 여러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이외에도 《소파동화독본》이 있다.

소파 방정환은 우리 나라 아동문학의 첫 개척자로서 그가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에 기여한 공적은 조선아동문학사와 함께 전해지고있다.

## 개선문

한찬보

### 만복의 대문

조국광복 불멸의 위업 네 간직해 장하여라  
내 나라의 새 력사 네가 새겨 빛나니  
우리 조선 만복의 대문이 네 아닌가 하노라

### 송가탑이 네 아니냐

문은 문이건만 노래의 문이로다  
만고의 영웅송가 새겨안고 솟았으니  
김일성장군 칭송하는 송가탑이 네 아니냐

# 폭로

리광호

## 1

기차에서 내린 서울 H 대학교수 림학진박사는 택시로 경산화학회사에 당도했다. 눈덩이처럼 흰 와이샤쓰에 검은 빛과 누런 빛이 곱게 가로 지른 격자무늬의 넥타이를 메고 미색 춘추복을 경쾌하게 입은 그의 모습은 펍 의젓해보였다. 귀전을 스치는 긴 머리에 두볼의 푸릿한 면도자욱이 윤이 나는 그의 모색은 소박하고 소탈하면서도 어딘가 까다로운 구석이 엿보이는 이른바 지성인의 형이다. 그의 길쭉한 얼굴을 너부죽하니 보이게 하는 검은테안경은 리지적인 모든것을 깊숙이 감추어두고 필요한 때마다 발휘하는 지혜의 호수같이 번뜩이였다.

삼복더위가 지나간 해안지대는 한결 서늘했다. 림학진이가 여기로 온것은 그간 자기가 연구한 비료합성을 촉진시켜 생산을 배로 늘일수 있게 하는 새로운 촉매제에 대한 최종시험과 공업적생산의 가능성을 확정하기 위해서였다. 경산화학회사는 20 여년전 림학진이가 연구한 복합비료를 비롯한 여러가지 비료와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는곳이였다. 이 회사가 건설되어 운영되기까지에는 림학진의 노력이 적지 않게 깃들어있었다. 게다가 이곳사장 지태욱은 미국 하버드대학 동기생이였다. 이런 조건으로 하여 림학진은 이번 연구결과의 시험생산도 여기서 하기로 결심한것이 다.

차에서 내린 림학진이가 러행가방을 들고 회사 정문 가까이로 다가서는 때였다. 구내에서 세명의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나오고있었다. 지나칠줄 알았던 세사람중 바둑판무늬의 남방샤쓰에 폭이 좁은 청바지를 입은 한 청년이 문득 림학진앞에 멈춰섰다. 막아서는 머리가 거푸수수한 청년앞에 다소 놀란 림학진은 걸음을 주춤했다.

《림학진선생님이 아닙니까?》

얼굴의 눈, 코, 입 등이 역실역실하니 생긴 청년의 거구와는 달리 그 목소리는 무척 온순했다. 느닷없이 찾아드는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어졌던 림학진은 한손으로 안경테를 들고 실험실의 플라스카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을 관찰하는데 익숙된 찬찬스런 눈길로 상대방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제 H 대학에 다니던 박현석입니다.》

《뭐라구? 현석군이란 말인가,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영 몰라보겠는걸.》

박현석을 알아본 림학진은 어느덧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오직 빛나는 눈정기만이 여전할뿐 애젊음이 차고넘치던 모습은 가뭇없이 사라졌다. 해풍에 그을고 별에 타 불깃불깃해진 적동색 얼굴과 마디마디가 쫘뻛해진 손... 그의 모습은 한결 익세여보였다.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여기 회사로 오는길이네. 일이 좀 있어서. 군은 지금 어디 있나? 이 회사에 다니는가?》

림학진은 방금 구내에서 나오는 그를 생각하며 물었다.

《아닙니다. 저기 해정리에서 삽니다. 바다가마을이지요.》

《무슨 일을 하기에?》

《바다에서 일합니다.》

《바를 탄단 말인가. 그래서 살결이 그렇게 탔군. 건강해보이는걸.》

말은 이렇게 하나 림학진은 박현석의 얼굴과 손에서 고생의 흔적을 력력히 감각하게 되는 순간 가슴이 쓰르르해왔다. 더우기 사랑하는 옛 제자가 어딘가 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것 같아 속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왜 그새 소식이 없었소?》

《그새 경남도 있었구. 좀 숨어살다나니.》

《그때가 언제게 이제야...》

순간 림학진은 어쩐지 그간 그의 소식을 알아보지 않고 지낸 자신이 더 죄스럽게 여겨져 말끝을 맺지 못했다.

《이제는 가정도 있겠구만?》

《예, 해정리 57 번지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놀러 오십시오.》

《그래 말미를 봐서 가겠네. 난 이제 호텔에 들었는데 오게나.》

박현석과 같이 가던 나머지 두 동료가 뜨거운 별속에서 무료로 기다리는차라 림학진은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눌수 없었다. 둘은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헤어졌다.

바다에서 일한다면서 회사에는 무슨 일로 왔든가?

림학진은 사라지는 옛 제자의 모습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화면처럼 떠오르는 지난날의 추억을 애써 묻으며 회사구내로 들어섰다. 그새

미국과의 합작이니 뭐니 하더니 준공초기 면모를 찾아보기 어렵게 많이 달라졌다.

그러나 당국이 《산업근대화》를 표방하며 홍보물의 피사체로 자주 써먹는 원통형합성탑들과 거미줄처럼 열기설기 건너간 배관들에서 숨새나오는 알싸한 가스로 구내공기는 몹시 탁하게 느껴졌다. 림학진은 곧 비서의 안내를 받아 백색타일을 붙여 눈부신 2 층건물안의 사장방을 찾아들어갔다. 적갈색의 윤택이 흐르는 앞상우에 창문이며 사람의 그림자가 비꼈다. 랑수책상우에 놓여있는 여러대의 회백색 전화기, 중세기의 목각품과도 같은 룡상 등반이의자, 거북기잔등처럼 울룩불룩한 방음문 등으로 어딘가 사장의 품격과 위엄을 돋구느라 닦달한 방은 오히려 일종의 음울한 인상을 주었다. 세겹의 자동가텐중 두겹만 드리워도 필립현상용 암실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을것 같았다.

어딘가 전화질을 하던 사장 지태옥은 림학진을 알아보고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반겨맞았다.

《교수선생이 드디어 오셨구만.》

《사장님의 옥체는 여전하시오?》

전화연계가 있는 뒤라 둘은 롱기어린 목소리로 인사를 주고받았다. 의자를 빼걱빼걱 밀어내고 비대한 몸을 뚱긋거리며 마주 나오는 지태옥의 손을 잡으려던 림학진은 그의 장독같은 배가 먼저 자신의 배허벅을 쿵 하고 들이받음듯하여 주춤주춤 손을 내밀었다. 사장 지태옥은 일찌기 탈모증세에 시달려 사십대중반기부터 머리가 낫요강처럼 홀렁 벗어졌는데 대머리의 술가움을 막느라 바르는 글리세린으로 어둡속에서도 그 머리는 유령처럼 번뜩여 길을 어기는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군했다.

대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여직 학계에 불박혀있는 림학진은 이곳이 오래간만이였으나 실업계로 나간 지태옥은 기업거재차로 자주 서울에 올라오곤했는데 그 과정에 둘은 더러 만났었다.

《반갑네, 자 어서 앉게.》

지태옥은 림학진에게 벽쪽에 놓여있는 소파를 가리키며 자기도 그옆에 가 앉았다. 그가 앉는 서술에 소파가 한길이나 꺼져들어가며 림학진의 자세조차 기울어졌다.

《그새 회사가 많이 달라졌는걸.》

《그게 알리나?》

지태옥은 은근히 자긍심에 도취되어 빙긋이 웃으며 미국의 경제적후원을 받아 한두가지 화학제품생산의 고유업종에 명줄을 걸고있던 중소기업체들을 하루아침에 도산시키고 그우에 군림한 회사의 연혁을 장황히 늘어놓았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한마디 던졌다.

《자네 이번에 몸을 좀 추세워야겠네. 교단을 떠난 기회에 말일세.》

《왜 내 몸이 어째서.》

《그래도 대학교수라면 위풍이 좀 있어야 하는데 설계도를 보는듯한 인상이라니까. 흐흐...》

지태옥은 불이 부풀고 눈이 보이지 않게 웃어댔다.

《허 표현이 그럴듯하군. 글썄 남보긴 어쩐지 모르겠지만 난 별로 건강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걸. 어느 유럽학자의 최근 연구테타를 봤는데 비대한 몸이 만병의 근원이라 재확인했더군.》

지태옥은 유들유들한 불편이 푸들거렸다.

《학자들이란 이렇다저렇다, 제발 그런 말씀 마시래요. 그래서 제놈들은 몸들이 하마들같다던가.》

지태옥은 유럽놈들이라 내놓고 시비하고는 자기는 아직 백키로에 이르자면 몇백그램이 더 있어야 한다며 마치 불안정수치에 놓여있는듯이 유감을 나타냈다.

《물론 나도 그 학자의 몸이 갱핏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네만 과학이란 팽성한 객관적진리라니까.》

《모든건 사람나름일세. 이건 내 생활철학이기도 하네만 또 사실은 사실일세.》

둘은 한동안 여담을 주고받다가 담배를 피워물었다.

《뭐니뭐니해도 자네가 연구한 그 촉매제가 빨리 시험생산에서 성공해야겠는데.》

《힘껏 도와주게.》

《여부가 있나. 새로운 발명품이자 우리 회사의 독점물로 되겠는데. 좌우간 오늘은 호텔에서 쉬게. 피곤하겠는데. 이 주변 경치가 모두 절경이네. 저 송계산의 경관을 이루는곳들엔 삼국시기 유적들이 많지. 드라이브를 하려거든 언제든지 내차를 리용하게.》

지태옥은 벗의 우애를 지키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흰 목을 보이느라 해서인지 송계산을 지기의 소유물처럼 설명했다.

《짧은 러정이어서 그럴 경황이 있을것 같지 않네.》

《뭘 그리 서두르나. 일생 할일을 가지구. 좌우간 계획대로 하게. 회사는 래일 돌아보자구. 참 저녁에 모시러 가겠네.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집 사람도 인사시킬겸 식사나 나누세.》

림학진은 지태옥이와 헤어졌다. 그길로 호텔로 향했다.

해뜨기전 산속은 고요했다.

다만 저멀리서 밤새도록 잠들지 못한 파도가 밀려와 불역을 때리는 소리가 술바람처럼 좌좌하니 들려와 바다가 아침의 그윽한 정서를 자아냈다.

림학진은 아침 산책차로 송계산기슭으로 나왔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저택이 있는 림학진은 인왕산 골짜기의 숲으로 아침마다 산책을 하곤 했었는데 오늘도 그 습관에 따르는 생활질서를 어기지 않았다. 회사건설초기 여러번 소풍을 나왔었다. 왕년의 추억들이 되살아나며 향촌의 그윽한 정서처럼 옛정을 불러왔다. 아직 잠에 취한 골짜기들에서는 송진내와 신선한 기운이 풍겼고 누기찬 수림은 정적에 묻혀있었다. 희미하게 개인 푸르스름한 하늘에는 몽실몽실한 조각구름들이 어린 양의 무리처럼 흩어져있었다. 찬이슬이 나무잎이며 풀잎에 한벌 내렸는데 솔잎끝에 매달린 무수한 이슬은 모두 바늘로 구슬을 꿰 달아매놓은것 같았다. 상쾌한 아침이다. 활엽수에 상록수가 드문드문 섞여있는 설경이 이 산의 풍치를 대표한다지만 신록이 흐르는 여름풍치도 서울에서는 볼수 없는 천연의 풍경이었다, 여기서 얼마쯤 올라가면 절기에 따라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계절폭포가 있다. 림학진은 아득히 산우에서 울리는 폭포소리에 취해 걸었다.

백제사찰의 전형으로 되고있는 무왕때 건설한 절간 근방에 이르렀을무렵이었다.

한 녀인이 절간앞의 불상밑에서 두무릎을 꿇고 앉아 무엇이랴 중얼거리며 빌고있다. 그녀앞에는 맑은 물이 담긴 돛대합이 놓여있었는데 새벽빛에 은백색으로 번뜩이는 그것은 수은같이 무겁고 침침해보였다. 림학진은 그의 모습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필경 집안에 그 어떤 액이 닥친것이라고 생각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겨 뒤더수기에 낭자를 틀어올리고 흰색의 비너를 가로질렀다. 소복단장을 하였는데 쇠잔하고 앙상한 견박골이 흰저고리속으로 불거져올랐다. 이윽하여 녀인은 일어나 돛대합의 물을 버리고 보자기에 그것을 싸쥐었다.

천천히 돌아서 산을 내리려던 녀인은 느닷없이 나타난 림학진을 보자 흠칫 놀라며 못할것을 하려다가 들킨 사람마냥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고생의 자옥인듯 얼굴에 잔주름이 그물같이 확 덮였는데 술이 성글은 머리 한가운데로 가리마가 신작로처럼 지나갔다. 무거운 근심에 싸여있는 녀인의 얼굴을 가궁히 쳐다보던 림학진은 어쩐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나직이 물었다.

《집에 무슨 변고라도 있는가부지요?》

의적이 울리는 그 물음에 녀인은 공연히 마음

이 긴장해져 자기 존재를 더욱 웅송그릴뿐 미처 대답을 못했다.

림학진은 그의 응고되어있는 마음속을 넘짚어 보며 범상한 목소리로 자기 소개를 했다.

《난 서울에서 여기에 출장은 사람입니다.》

해서야 녀인은 림학진이 자신을 동정하고있음을 믿어서인지 아니면 그 어데건 하소연하여 마음의 불안과 비운을 다소나마 덜어보려 해서인지 울음을 쏟으려는 사람마냥 입귀를 움썹거리다가 탄식조로 말했다.

《실은 출가한 딸애가 벌써 두번씩이나 임신했다가 류산을 했사와요. 무당을 불러다 곶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해동골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쳐보니 이 해변 마을을 지켜주는 송계산의 산신령을 노엽힌 죄가 있다면서 <왕림사>의 불상앞에서 해뜨기전에 불공을 하면 덕을 입는다는거예요. 그러면 산신령의 노여움이 풀려 순산을 허락하신다는거지요.》

《산신령을 노엽힌 일은 뭔데요?》

림학진은 중세기적인 종교교리의 산물인 미신행위에 감염된 녀인의 행동이 기가 막혔으나 앞서는 생각을 뒤로 미루며 나직이 물었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럴 일이 있었어요. 워낙 사위는 량친을 잃은 배군이였구 우리 집 사정도 여의치 못하여 혼례를 소문없이 치르었사와요.》

녀인의 지치고 피로한 눈에 그제 사실이냐는듯한 물음과 더불어 얼굴에는 가늠할수 없는 마음의 혼탁된 표정이 어려있었다.

《따님이 아픈데가 없이 공연히 그런가요?》

《시름시름 앓으며 말며 그래요. 선생님, 점점 여기 바다물이며 해산물이 이상해요. 그전에는 아무리 먹어도 탈을 몰랐는데 이젠 걸핏하면 배앓이를 해요.

피부병두 더러 생기구. 연변바다에 있는 조개며 굴들중에 드문드문 누렇게 변한것들두 나타나구.》

《?!》

림학진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녀인의 말을 음미해보았다. 그의 친절한 태도에 감심한 녀인은 몇마디 더 쏟아놓았다.

《모두가 저 회사때문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나쁜 물질들이 나와 그런대요. 회사를 어떻게 지었기에 이렇게 술한 사람들을 병고에 시달리게 하는지.》

《그제 사실인가요?》

《...》

대답대신 녀인의 얼굴은 빨개졌다.

림학진은 칼끝에 찢리우기나 한듯 온몸에 오작하는 전율을 느꼈다. 심장은 널뛰듯했다. 숨이 가



뻘었다. 과연 회사에서 유독성폐수가 나온단말인가. 믿을수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연구완성한 화학제품들을 생산하는것으로 하여 회사건설과 생산공정에서 빈틈없는 정화시설을 갖추어놓았었다. 그것은 조금도 믿어의심치 않는 일이었다. 물론 그것은 스무해전이다. 그후 회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별로 지체가 없어보이는 어촌녀인으로부터 강한 량심의 가책을 받은 림학진은 장훈을 받아야 할 사람과도 같은 회피할수 없는 그 어떤 대답의 의무감에 사로잡혔다.

《나는 이 회사의 폐수가 무해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마 회사가 유독한 폐수를 내보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누구에게나 량심이 있는데요.》

림학진은 후둑후둑 뛰는 마음의 가책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겨우 변명비슷이 대꾸했다.

《선생님은 마음이 참 고우시네요. 모두 그랬음 우리 해변마을사람들이 맘놓고 태를 묻은 이 고장을 뜨지 않으려면만.》

림학진의 말로 마음의 우수를 털어버린 녀인은 기분이 한결 가벼워했다.

림학진은 녀인과 헤어졌다.

우매해보이는 녀인을 동정하며 깨우쳐주려던 림학진은 되려 그에게서 심문을 당한듯한 당혹감에 사로잡혔다. 새벽산책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분을 전환시키기는커녕 되려 머리가 무겁고 복잡했다. 과연 경산화학회사가 공해단지로 되었던 말인가. 설혹 거기서 나오는 폐수가 철저히 정화되지 못하고 다소 바다에 류설되기로서니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볼수 있을가.

방금 헤어져 산아래로 내려간 녀인의 조촐한 행실이 한동안 망막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 3

림학진이 찾아들어갔을 때 사장 지태옥의 얼굴에는 무엇인가 딱해하는 표정이 어려있었다. 그의 유들유들한 볼편이 오늘따라 다른곳에서 떼다 붙인 살점처럼 축 처져 생기를 잃고있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

림학진은 어제와는 달리 저기압이 되어있는 지태옥의 표정을 일별하며 나직이 물었다. 지태옥은 상서롭지 않은 일이 있었던듯 이윽도록 침묵을 보이다가 동문서답격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네도 알다싶이 우리 회사가 스무해전 건설될 때 정화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았나.》

《그렇지.》

《그럼에도 해처리 해변마을사람들이 근래에 와

서 방역부주의로 생긴 이러저러한 병을 우리 회사의 폐수에 의한 오염때문이라고 생트집을 걸면서 그 무슨 대책을 세우라고 소란을 피우고있네. 이걸 그간 사고없이 공업발전에 기여해온 우리 회사의 연혁에 먹칠을 하는 불손한 행위가 아니겠나.

그리고 자네의 명예와도 관계되는 일일세. 왜냐하면 이 회사는 많은 부분이 자네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설계되고 또 자네가 시공에도 관여했던것이기때문일세.》

지태옥은 사뭇 우려가 담긴 표정으로 림학진의 얼굴을 건너다보았다. 림학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흥심없이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몇몇 불순분자들때문일세. 이자들이 들쭉서놓는바람에 바다오염이란 말조차 모르던 해변마을사람들이 물먹은 바가지에 깨알달라볼듯해가지고 룡성이요, 시위요 하며 야단을 치는데 우리 말은 죽자하고 안듣네그러. 소귀에 경읽기라니까.》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림학진은 오늘아침 송계산기슭에서 만났던 녀인의 말이 생각났다.

《나도 해변마을사람들의 그러루한 말을 듣고 다소 이상한 촉감을 가졌네.

듣고보나 참 놀라운 일이더군. 그럼 바다에 나가 실패를 룡해해보세나. 결과를 가지고 그들을 납득시키면 될게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림학진은 이 문제를 알아보려던 참이었는데 지태옥이가 걱정하니 동정이 썩어졌다.

《자네가 그런 수고를 좀 해주겠나?》

지태옥은 다행스러움을 어찌지 못하며 한가닥 기대어린 시선을 보냈다.

《수고랄게 없지. 이건 나의 명예보다 해변마을사람들의 운명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거야 물론 그렇지. 그러나 막강한 미국경제의 후광이 비껴있는 우리 회사의 폐수가 어찌구저찌구 해서 론난에 오르면 장차 미국과의 경제교역에서 심각한 결손을 볼수 있거든. 그건 또 그렇다치고 개미구멍이 방천뚝을 무너뜨린다고 하잖은 소요가 신성한 <한>미관계에 그들을 지을수 있다는거네. 우리가 미국에서 배우고 오지 않았나. 의리를 지키는 면에서도 자네가 한번 소요자들을 납득시켜주게. 룡해는 다 돼있네. 그러니 굳이 바다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지태옥은 림학진에게 차려질 파중한 수고를 넘려해서인지 그의 바다행을 만류시켰다.

《그래두 제논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나. 회사가 선지도 이제는 스무해가 지나지 않았나.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림학진은 지태옥의 지나친 승미적인 감정과 수익성타산에 일종의 모멸감이 들었지만 다른 문제도 아닌 자기의 연구성과와 관계되는 과학기술적인 문제여서 양보하고싶지 않았다.

림학진은 그길로 바다로 나갔다.

회사의 폐수가 흘러나오는 연해에서 색이 변한 굴과 조개 그리고 양식장의 미역 등을 시료로 채취했다. 여러명의 해변가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에 한두해사이에 까닭없이 피부병, 배앓이, 류산, 기형아출산 등이 잦아졌다는것을 알 수 있었다. 바다물이 확실히 그 어떤 유독성물질에 의해 심히 오염되었음을 짐작했다. 과연 어떤 물질에 의해 오염되었을것인가.

회사에 돌아온 림학진은 실험실에서 채취해온 각종 시료를 분석했다.

회사에서 나가는 폐수의 총적 오염도는 위생학적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고있었으나 일정한 정도의 산도는 있었다. 더우기 폐수가 류출되는 아근의 바다물에서는 일련의 X×물질을 발견하게 되었다. 누렇게 변색된 바다 생물체에서도 이런 성분들이 뚜렷이 검출되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뜻밖이었다. X×물질은 생물체에 대단히 유해로운 독성물질이었다. 회사의 생산공정과 반응계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림학진으로서는 실로 알지 못할 수수께끼였다. 이것이 바다의 생명체를 오염시키고 인체에 작용하여 각이한 병적증세를 일으키는것이 아니겠는가. 림학진은 실험수치와 분석자료, 오염실태 등을 가지고 사장 지태옥을 만났다. 림학진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듣고있던 지태옥은 기다렸다는듯이 은근한 패재속에 한수 더 넘짚어 말했다.

《보게. 내가 뭐라든가. 우리 회사 폐수는 깨끗하다고.》

《그런데 그 X×물질이 어디서 나온것인가. 아무래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것 같네.》

그러자 지태옥은 다소 당황함을 금치 못해하다가 천연스런 표정을 지으며 부연했다.

《바다물에서야 무엇인들 없겠나. 더우기 우리 회사 인근에도 수많은 공장들이 있지 않나. 그곳들에서 별의별 물질들이 다 나올걸세. <한국>의 바다가 오염돼있다는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 아닌가!》

지태옥은 잘라 말했으나 어쩐지 그의 말이 탐탁히 여겨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당장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방역부주의로 생긴 병일까.

《림군, 이제는 말할 명분이 선만큼 좀 도와주게. 자네가 직접 우리 회사 폐수를 검출해온 걸

과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거네. 우리 회사 폐수가 정화되어있다는것과 드문치 나타나고있는 질병들은 바다오염과 별개라는것을 잘라말해야 하네. 하면서 수십년만에 발생한 토질병일것이라는 가상을 던져줄수도 있지. 어쨌든 우리보다 학자인 자네의 말이 효과가 클걸세. 명망높은 H대 교수팀의 실태보고라면 믿지 않을 사람이 있겠나.》

지태옥은 벌써부터 흡족해하며 림학진을 기대 어린 눈길로 바라보았다.

림학진은 거북스러울정도로 과장하는 지태옥의 말에 은근히 목덜미가 다 붉어졌다.

《아직은 그렇게 단정하기 이른것 같네.》

《이르다니, 자네 눈으로 직접 시험해보고도 그러나?》

지태옥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왔다. 맹렬한 그의 공격앞에 림학진은 좌절감을 느끼며 마음의 동요가 일었다.

《좌우간 좀더 생각해보겠네.》

《중네. 난 다만 벗으로서 충고하네만 이번 해변마을놈들의 소요가 자네의 지난 기간 공적과 또 이번 촉매제시험에 치명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는가 생각해보게. 거듭 말하지만 이건 친미관계에 대한 정치적문제란 말일세. 잘못하여 이번 소요가 반미투쟁의 도화선으로 되는 날엔 피차 무사치 못하리라는것쯤은 자네가 잘 알걸세. 그러니 내 말의 뜻을 알아 매사에 신중히 조치해 주게.》

림학진은 지태옥의 협박적이며 최후통첩적인 말에 치욕과 압박감을 느끼며 그의 방을 나섰다.

호텔로 돌아오는 림학진의 마음은 개운치가 않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여전히 그 X×물질이 어디서 나온것일까 하는 의문으로 꽉 차있었다. 만약 인근공장에서 나온것이라면 이 회사에 잘못이 없지 않는가.

그가 호텔현관으로 들어서려는 때였다.

저녁빛을 등지고있던 거구의 한 청년이 인기척을 느꼈음인지 림학진이쪽으로 돌아섰다. 일순 두사람의 시선이 부딪쳤다. 그는 박현석이었다.

《현석군!》

《선생님!》

림학진은 지태옥이와의 면담으로 기분이 언짢아있었는데 옛제자를 만나니 그 기분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죽마고우를 만난것만치나 기뻐다.

《어떻게 왔나?》

《선생님을 뵈고싶어서요.》

그는 제법 인상좋은 웃음을 띠었는데 과장된 표정으로 하여 그외의 용무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래,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나.》

림학진은 박현석을 이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

다. 방에는 널찍한 개인침대와 탁상등이 놓인 책상, 의자 그리고 랭온풍기가 달린 창문턱에는 황금덩이같은 누런 꽃이 탐스럽게 핀 천수국화분이 놓여있었다.

둘은 소파에 앉았다.

순간 림학진의 머리에는 박현석과 있었던 십여 년전의 일들이 화면처럼 흘러 지나갔다.

박현석은 총명하고 대가 발랐으며 학구적이었다. 림학진이가 그를 각별히 관심하게 된것은 이때부터였다. 박현석이 역시 림학진의 건전한 학문탐구정신과 민족자주정신을 숭상하게 되었다. 학생들속에서 일부 어용교수들을 지탄할 때면 의례히 미국류학출신의 교수들이 혐오의 대상으로 되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H대학내 미국류학출신 교수들의 대부분이 숭미사상에 포로되어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속에서 미국류학출신 교수들을 제기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구호가 튀어나올 때면 박현석은 그러나 림학진교수만은 그렇지 않다, 민족성이 강한 교수라고 두둔해나섰다. 미국을 위해 류학한것이 아니라 《한국》을 위해 미국에서 공부했을뿐이라는 논거를 세웠다. 이것은 사실 림학진이 미국류학 취지 그대로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H 대학학생회성원인 박현석이 림학진을 찾아와 오늘날 진행되는 대학창립기념행사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연설을 한마디 해달라고 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박현석의 부탁이어서 외면하고싶지 않았다. 원래 림학진은 정치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고 과학의 상아탑속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빛내려는 정통파계렬의 학자였다. 그러나 오늘의 행사만은 거역하고싶지 않았다. 그는 이날의 연설에서 학업에 림하는 학생본연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해서는 분렬의 장벽을 없애고 통일을 이룩하며 대학생들이 지혜를 모아 과학적탐구를 해나감에 바람직한것이 아닌가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생들이 통일을 어떻게 하는게 이상적인가라는 질문에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이룩하는것이라고 그루박아 말했다. 함에도 경찰은 중뿔나게 장벽을 없애라는건 《남침》을 막기 위해 공스레 쌓아놓은 콩크리트장벽을 없애라는것이며 자주통일이란 미군철거를 주장하는것이나 같은것으로서 구경에 가서는 북이 주장하는 통일론의에 동조하는것이라고 제멋대로 단정하고 《국가보안법》에 걸려 강의중인 교수를 제자들앞에서 련행하는 조폭무례한 행위를 감행했던것이다. 림학진의 련행은 학생들속에서 분노의 폭발을 일으켰다. 림학진을 비롯한 구속된 진보적교수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학생시위가 계속되었다. 나날

이 대오가 늘어났다. 박현석은 대오의 앞장에 서서 림학진이 감금되어있는 경찰서로 행진해갔다.

시위는 격렬했다. 탄압경찰을 향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각목으로 놈들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여러놈이 학생들의 각목에 맞아 너부러졌다.

계속되는 시위로 림학진은 달포만에 풀려나왔으나 박현석에게엔 지명수배령이 내려졌다. 림학진은 그후 두번다시 박현석을 만나지 못했다. 그가 행적을 감춘 때부터 십여년, 그간 림학진은 무던히도 그가 보고싶었었다. 은인파도 같은 애제자를 우연히 만난 이 기회에 어떻게서나 그와 회포도 나누고 따듯이 고무해주고 떠나리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가 먼저 찾아온것이다.

박현석이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인사말겸 자기가 온 용건을 말했다.

《선생님, 요새 일이 분망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해변가에 와서 바다물과 함께 해산물의 시료를 떠가며 바다사람들을 만났다가에 두루 소식을 알고싶어 왔습니다.》

림학진은 아닌게아니라 어제 실태조사차로 바다가사람들을 만났었다.

《그런가. 실은 내 시험에 필요해서 좀 바다물을 분석해보았네.》

《바다물에서 이상한 징조를 발견한것은 없습니까?》

박현석은 무엇때문인지 긴장해서 물었다. 림학진은 어떻게 대답할것인가를 생각했다. 바다물속에 있는 배출불명의 X×물질 문제를 공개할가 했으나 내막도 모르면서 함부로 발설하고싶지 않았다.

《뭘 별로... 그저 그렇네.》

림학진은 슬쩍 얼버무려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해변마을사람들의 병난과 해산물들속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놓고 바다물의 변화를 짐작합니다. 더우기 저 경산화학회사는 선생님이 스무해전 건설한 복합비료를 기본으로 일련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순수한 산업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의 허두를 뎌 박현석은 림학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어떤 반응을 기대해서였다.

《그건 무슨 소린가?》

림학진은 다소 놀라 눈이 둥그레 물었다.

《해변마을 수천명의 사람들이운데는 이렇게나 저렇게나 이 경산화학회사 사람들과 연고관계가 있지요. 오래전부터 회사에 미국과의 합작을 운운하며 신행설비들을 들여왔고 미국학자들과 미국방성관리들이 은밀히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회사에서는 미국의 직접적인 조종하에 특수제

품들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때를 같이하여 이 아근의 바다물에 변조가 생겼지요. 이게 어찌 우연한 일치겠습니까.》

《특수제품이라는건 무얼 녀두에 두는건가?》

림학진은 지성인답지 않게 존경감마냥 어수룩한 표정으로 따져물었다.

《군수품이라는거지요. 어떤 군수품이냐는 까박히기 어렵지만 명색이 화학회사인데 땅크부속과 같은 기계제품이야 만들리 없지요. 군용화학제품이란 어떤것이겠습니까.》

짐작할수 있지 않습니다까. 폭굉이 큰 특수폭약 같은거라는 말도 돌고있습니다.》

박현석의 이야기목표는 뚜렷치 않았으나 의도는 짐작이 됐다. 림학진의 마음은 자연히 엄숙해졌다. 그림 민수산업이 군수업으로 전락되고있단 말인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림학진은 무어라 입을 열 의기가 나지 않았다. 모든것이 그저 무시무시하게만 느껴졌다.

이윽도록 그 어떤 기대되는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박현석은 둔감한 반응, 더 나가서 빙고처럼 뻥담해보이는 림학진의 태도에 환멸을 느낀듯 자리를 일었다. 그는 의분을 삼키듯 목구멍으로 침을 꿀꺽 삼키고는 갈리는 목소리로 시간이 없어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다고 오랜만에 빈손으로 온 제자를 욕 많이 해달라는것과 루추하지만 자기 집으로 한번 꼭 와달라고, 그러면 약속하나마 제자의 성의를 지키겠다는 말을 남기고 방을 나섰다. 림학진은 바람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에게 아무것도 쥐여주지 못하고 말 한마디 따듯이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죄스러웠다.

림학진은 문밖까지 따라나와 그를 바래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용무로 왔겠을까. 내가 그를 뽕대하지 않았는가.

그 어떤 환대를 바라서 오지 않았을 그, 더우기 의례차로 오지 않은 그가 분명하다. 바다물의 조성여부를 묻던 그의 타는듯한 눈길, 닿으면 금시 불이 황황 일듯하던 그 눈길이 아직 눈앞에서 타고있다. 그런 그에게 진실을 속였으니 결국 외면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그는 나와 별로 호흡을 맞추어 이야기해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자기소리만 하고 사라졌다. 림학진은 스승으로서 제자앞에 뽕뽕치 못한 량심의 구석을 발견하며 얼굴을 붉혔다.

림학진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자기가 분석한 바다물에 대해 생각했다. 과연 이상한 XX물질이 어디서 나온것일까. 경산화화학회사의 폐수가 나오는 아근 바다물에 섞인 XX물질에 오염된 조개와 굴, 미역 등과 해변

마을사람들속에서 생기는 특이한 병적증상이 별개의것이란 말인가.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리해가 안갔다.

쏘파에 몸을 실은 림학진은 안내양이 주고간 신문을 펼쳐들었다.

1 면부터 이면저면 훑어보던 그는 한곳에서 눈길을 멈추었다.

《말 못하는 바다는 어지러워져야 하나.》

한 탐방기자의 현장보도기사였다.

기업체들의 무질서한 공해행위를 사정없이 파헤친 칼끝같은 기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더우기 일련의 기업체들이 문제로 되는것은 폐수처리시설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명목상 갖추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비, 약품비 등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상가동을 하지 않을뿐아니라 별도의 비밀배출구까지 마련, 야간이나 주말, 비오는 날 등 단속이 느슨한 취약시간에 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고있는 점이다.》

림학진의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무엇인가 그의 머리에 섬광처럼 번쩍이는데 있었다. 자신의 머리속에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바다물의 XX물질에 대한 그 어떤 계시를 던져주는것이였다.

혹 경산화화학회사의 폐수배출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지 않을까. 바다물의 XX물질문제가 제기되자 당황해하던 지태옥의 모습이 떠오르며 여기에 묘한 비밀이 숨어있는듯했다.

림학진은 기필코 곡절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날 밤 자정이 훨씬 지난 새벽무렵에 달빛이 연한 안개처럼 뿌려지는 바다가에 나가 회사의 폐수배출구에서 시료를 땄다.

다음날 곧 실험실에서 분석했다.

그는 뜻밖에도 놀라운 현실을 발견했다. 며칠 전 대낮에 뜬 폐수시료에는 다소 XX물질의 분자들이 있을뿐 비교적 정결했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채취한 폐수에는 그 XX물질이 지극히 위험한 농도를 조성하고있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인가. 실로 심야에만 배출해버리는 중독성폐수, 이래서 아근의 바다가 XX물질들에 오염되어있었다. 이것은 회사에 XX물질과 관련된 작업장이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제 과연 무슨 제품을 만드는것이기에 비밀에 불이겠인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날 림학진은 회사구내를 돌아보았다.

일전에 없던 새로운 건물이 생겨났음을 알수 있었다. 누구도 출입이 엄금된 기본회사건물과 퍼그나 떨어진 유축진곳에 자리잡고있는 덩치가 큰 건물이었다. 성원의 출입이 엄금되어있어 누구도 거기서 무엇을 만드는지 모르는듯했다. 필경 XX물질은 저곳에서 나오는것이 분명했다.

림학진은 폐수의 XX물질을 박현석의 말에 따라 폭약계통의 물건들과 연결시켜보았다. 그것들은 신통히도 강력한 폭평을 가진 폭약의 폐설물이었다. 이것들은 엄청난 원가와 놀랄만한 폭발력, 폭발후 다량 생기는 일산화탄소로 하여 발파용으로는 불가능했고 오직 대량살육을 목적으로 한 군사무기제작에만 쓸수 있는 물질이었다. 그의 머리에는 며칠전에 호텔에 찾아와 하던 박현석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그렇다면 과연 그 어떤, 새로운 특수폭약이 제조되고있는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그토록 엄비에 붙이는것인가. 결국 이것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남에서 핵무기를 만든다는 뚜렷한 증거였다. 지난기간 충청북도 대덕단지에서 개발한 핵무기의 부품품들을 여러 산업분야에서 분산 생산하여가지고 조립하는 식으로 핵무기를 제작한다는 항간의 말을 한갓 여론으로 치부했었는데 알고보니 죄다 사실이었다. 그러니 지태욱은 오직 자본의 팽창을 위하여 회사를 미국경제에 예속시키고 하청 기업체로 되었으며 미국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산물인 핵무기생산의 하수인으로 된것이다. 그리고보면 그날 찾아와서 하던 박현석의 말마디가 새롭게 음미되었다.

림학진은 자신이 알지 말아야 할것을 너무 깊이 파고든듯하여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장 지태욱이가 이 사실을 벗인 자신에게 속이고있는 조건에서 자기 역시 불문에 붙여야 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이런 행위를 저질러 회사와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백성들의 원한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니 학자로서의 분개가 일지 않는것도 아니었다.

## 4

림학진의 머리는 참으로 복잡했다. 자신이 연구한 촉매제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문제가 정면에 나서 난관을 조성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과연 내가 벗의 의리를 지켜 지태욱의 요구대로 회사의 폐수가 순결하다고 연설해야 옳은가. 그러면 이번 나의 촉매제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막대한 리득금도 차려질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학자로서의 량심을 버리고 당국의 어용학자, 수전노로 전락되는 길이다. 만약 량심을 지켜 그의 요구에 끝까지 불응하는 경우 장차 촉매제의 시험이 어떤 진통을 겪으리라는것쯤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 이것은 사실 내가 아니라 지태욱 자체가 벗의 의리를 저버리는 비렬한 행위이다. 과학은 지금까지 생산력과 생산수단을 발전시켜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 했으나 집권자들은 정권유지와 침략의 수단으로 리용해왔다. 더우기 오늘은 과학의 성과를 침략과 략탈을 위한 전쟁수단개발에 리용하고있는것이다. 림학진은 과학자로서 치솟아오르는 격분을 금할수 없었다.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워진 림학진은 며칠간 호텔에 불박혀 두문불출했다. 해변마을사람들의 룡성소요에 관여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경산화학회사에서의 촉매제시험을 포기하고 이곳을 조용히 떠나버리리라 결심했다. 어수선하고 살풍경을 이룬곳에서 자신이 연구성과를 시험한다는것은 해변마을사람들앞에 치욕으로 되며 루만 더욱 끼치게 될것이기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곳을 떠나기 앞서 사랑하는 옛 제자나 만나보리라 생각했다.

만나서 회포도 풀고 며칠전 그가 찾아와 바다물의 성분을 물을 때 미처 대답을 못했던 자신을 늦게나마 속죄하고 그의 리해를 받고싶었다.

림학진은 호텔을 나서 뉘엿뉘엿 떨어지는 저녁 해빛을 밟으며 송계산기슭으로 걸음을 옮겼다. 해변마을로 가는 가까운 지름길을 타기 위해서였다.

저 멀리 잔파도가 굽뽀는 바다 수평선너머로 해가 헤엄치듯 그물그물 노니는데 거기서 퍼진 석양빛이 바다가 하늘에 성게알같은 락조를 뿌리었다. 하면서도 서늘한 저녁바람이 바다물결을 타고 송계산의 숲술을 쇄하니 떠박지르며 잔가지를 흔들다가는 제풀에 사그라져 찾아들었다. 점차 석양빛이 송계산마루로 치달아오르더니 이윽하여 해빛은 수림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아득히 높은 하늘에 떠있는 몇덩이의 구름에 불그스레한 여광을 뿌렸다. 수림속엔 점차 밝은 빛이 사라지고 무력무력 물켜있던 숲속의 암록색빛이 성근 나무숲속으로 퍼져 질푸른 색깔로 물들여놓았다.

림학진이 오솔길로 접어드는 때였다.

숲속에서 박달나무토막과 같이 단단하게 생긴 한 청년이 불쑥 오솔길에 나섰다. 림학진은 조용한 오솔길에서 만난 그가 두렵게 여겨졌다.

《어디로 가는분이시지요?》

그 목소리는 매우 투명스럽게 울렸다.

이어 그는 뜨아해있는 림학진에게 자기는 해변마을을 지키는 규찰대원이라는것을 밝혔다.

림학진은 신분증을 보이며 용건을 이야기했다. 그제야 청년의 얼굴색이 다소 풀리며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지금 당장은 갈수 없습니다. 해변마을에 가도 용무를 볼수 없는 상황이지요. 박현석씨는 해변마을 공해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고있기때문

에 더욱 바쁘지요. 저 회사에서 생산되는 특수폭약으로 바다가 말이 아니지요. 놈들은 이게 폭로될까 두려워 각종 권모술수를 쓰고있지요. 래일 <환경처>에서 내려온 학자가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겠으니 기다리라나요. 하나 우리는 기어이 내막을 파헤치고야말것이지요. 박현석위원장은 지금 마을을 순방하며 래일의 투쟁준비로 여념이 없는데 개인용무 볼 시간이 어떻게 있겠어요.》

림학진은 청년의 말에서 받아안은 충격이 컸다. 자신이 그토록 큰것이나 알아낸것처럼 벌벌 떨며 불문에 붙이고자 한 회사의 폐수를 통해 예측했던 특수폭약문제가 평민들속에서 너무나 기정화 된 사실로, 범상한 날말로 오르내리고있는것이 놀라왔다. 회사측의 범죄적행동을 묵인해두려던 자신의 소심한 태도와 그것을 투쟁의 발화점으로, 거대한 투쟁에너키로 전환시킨 민중의 정신의식사이에는 얼마나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가. 박현석이 수천명의 해변마을사람들을 움직이고있던 말인가. 림학진은 자기가 이곳에 도착하던 날 그가 회사 정문에서 나오던 일이 죄다 리해됐다. 투쟁은 이미 그때부터 벌어지고있었구나! 순간 림학진은 지금 자신의 가슴속에 있는 몇장의 지폐를 넣은 돈봉투가 감각됐다. 해변가의 비천한 생활고에 시달릴 그네를 동정하는 의미에서 호텔을 나설 때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온 자기 몸의 통산이었다.

그러나 이 시각 그것이 아무리 거액이라쳐도 바다처럼 움썹거리는 민중을 지도하는 제자의 숭엄한 모습앞에서는 울울창창한 밀림속의 애슬포기와도 같이 가치가 무색해보였다. 아니 중병에 걸린 환자에게 아스피린을 던져주어 자신을 면무식하려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애제자는 에이제 변함없이 불의에 저항하며 정의의 수호자가 되어 투쟁의 제단에 한몸 바치고있는데 진리를 가르치며 참인간을 설교하던 자신의 정신적높이는 어느 계선에 머물러있는가. 미제의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한 특수폭약생산은 초기부터 백성들에게 끝없는 재난을 들씌우는것이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며 묵인해두어야 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며칠전 박현석이 호텔에 찾아와 바다물의 성분을 물었었구나!

이것을 까밝히자고 얼마나 바쁜 몸이었으며 얼마나 간절한 물음이었을가. 그런 그에게 랭담을 표시했으니 자신의 실책이 이 순간 백배로 가증되며 민족앞에 범한 치욕으로 번져졌다.

과연 나는 병의 원인을 몰라 간절히 묻던 송계산기슭에서 만났던 녀인을 비롯한 이곳 사람들에게 끝내 함구무언을 보여야 하는가. 자기 모순에 빠진 림학진은 가던 걸음을 되돌려세웠다.

회사정문앞은 수천명의 해변마을사람들로 차고 넘쳤다. 현수막과 프랑카드가 물결치는 군중의 머리우에서 범선의 돛대처럼 펄럭이었다. 회사측은 <환경처>의 힘을 빌어 바다공해가 없음을 확인시키기 위해 해변마을사람들을 정문앞에 모이게 했다. 공해방지투쟁위원회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통성을 벌리며 놈들의 죄행을 까밝힐것을 계획했다. 회사로 들어가는 길은 차단되었다.

림학진은 대오의 뒤전에 서있었다.

《공해산업 폐기하라!》

《우리 바다 지키자!》

《회사는 해변마을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하라!》

금시 바다물이 회사앞까지 올리민듯한 군중의 림름한 기상은 그 무엇으로써도 흐트러뜨릴수 없을것 같았다. 정문수위들이 분주히 나무상자 몇개를 통성군중앞에 가져다 쌓아놓았다. 이른바 연단을 만드는것 같다. 이윽하여 지태옥사장이며 리사, 전무, 상무 등 그러루한 직함을 가진 어중이떠중이들이 목맨 강아지들처럼 줄레줄레 따라나왔다. 사장 지태옥은 눈이 부서서인지 전에없이 거무튀튀한 안경을 썼다. 그는 비대한 몸을 뚱깁거리며 연단으로 걸어나왔다. 땃뺨은 상자가 미덥지 않은지 걸음마다 비계덩이같은 몸을 실어 흔들어보았는데 그때마다 상자들은 무거운 짐을 실은 길마에서 벗어나려는 소처럼 삐걱대며 몸부림쳤다. 거만기가 흐르는 거동으로 통성대오를 굽어보던 지태옥은 가랑잎처럼 죄어드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태연자약한 자세로 말했다.

《여러분, 그간 우리 회사의 폐수를 놓고 갑론을박하며 많이들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이 일을 해명코저 관록있는 연구팀과 고명한 분들을 파견하여 수질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분들께서 직접 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이어 방금 기름항아리에서라도 빠져나온듯 머리며 차림새가 매칠한 사나이가 연단에 타박타박 올라섰다. 그는 걸치레같은것은 모르는듯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력설했다.

《에 그간 여러 방면에 걸쳐 조사한 정형을 간추려서 결과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산화학회사의 폐수는 비오디가 1 피피엠, 페하가 6.8의 약산성액체로서 준공초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며 무독하다는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일부 연해의 해조류와 조개류들에 생긴 병조는 여러가지로 줄이가 되고있습니다. 폐수에 섞인 미량의 화학성분이 루적되어 변색을 가져올수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최근들어 늘어난 해변마을의 가가호호들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의 증대와 바다가양식장의 채취선들에 도입된 엔진에서 루실되는 유기용매가 바다가 생명체의 서식에 악영향을 미치고있는 사실입니다. 더우기 산발적으로 생기는 일련의 병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사부와 더 연구해 봐야겠지만 토질병일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데 반하여 폐수와 관련시켜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유감스러운 점을 나타내고있습니다.》

《저건 거짓이다!》

《어용이다! 가짜다! 끌어내라!》

통성자들속에서 새된 웨침이 총알같이 튀어나왔다. 조용하던 대오가 바람을 안은 바다처럼 설레었다. 누구보다 당황한 사장이 손세를 써가며 자중해달라는 시늉을 보였다.

《조용하십시오. 이분은 환경관리의 최고기관에서 내려온 대변자란 말이요. 따라서 이분의 말은 과학이며 법이요. 무슨 근거로 부정하오? 당신들이 이이상 근거가 있으면 내놓으란말이요. 당장이라도 우리 회사폐수를 검출해보란 말이요. 과학도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거요?》

얼굴이 붉은 팔죽가마가 되어 력설하던 사장이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개벼룩 씹듯 씹벌여댔다.

《무지막지한것들 같으니라구.》

《뒤퉼구?!》

앞서렬에 있던 통성자들이 사장의 입안소리를 듣고 격분해 웨쳤다.

《사장이 우리를 모욕한다!》

《저놈의 멀미를 나꿔채라!》

《사장은 방금 한 말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사장의 실언은 통성자들의 분노를 백배로 가증시켰다. 처라, 죽이라, 끌어내라 등 지탄의 웨침이 몰박으로 쏟아졌다.

사장이 계획한 《행사》놀음이 흐지부지되며 오히려 주최측이 수세에 몰려들어갔다. 놈들의 처사에 누구보다 격분한것은 립학진이었다.

(지태육이가 끝내 저런 비렬한 행위를 하는구나. 돈을 위해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 미제의 핵개발책동에 하수인이 되는것도 서슴지 않고...)

《환경처》에서 내려왔다는 판리를 내세워 정의와 진리를 오도하며 백성들의 운명을 통략하는 처사를 더는 참고 볼수 없었다. 급작스런 특수폭약생산으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엄중한 위기앞에서 립학진은 마음이 엄숙해졌다. 일신의 존재를 위하여 엄연한 현실을 외면해야 하는가. 인류의 과학사는 얼마나 훌륭한 량심과 신념의 화신을 낳고있는가. 오랜 세월 사회발전과 인류의 자유를 억압해온 종교적인 천동설을 뒤집어엎고 화형의 불꽃으로 산화되는 순간까지 과학적인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크스, 그는 과학자의 신념과 량심의 상징이었다. 그렇다.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앞에서 과학자의 량심은 정직해야 한다.

드디어 립학진은 통성자들의 기세에 힘얻어 그들앞으로 나갔다. 사장앞에 이르자 무게있는 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충하겠소.》

《환경처》관리의 허위연설과 자기의 실언으로 곤경에 빠져 찢찢 매던 지태육은 립학진을 보자 구세주나 만난듯 반가워했다.

《오, 립교수! 자네가 왔구만. 일을 좀 바로잡아 주게.》

물에 빠진자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매달리는 격이었다. 그리고는 득의한 표정으로 이번엔 명망 높은 H 대학 수질연구팀의 실태조사결과를 고명한 립학진교수가 재확인시키겠다고 부언했다.

립학진은 휘청이는 걸음으로 연단을 올랐다. 그의 심장의 견고성을 시험하듯 발밑의 상자들이 몹시도 삐걱거렸다.

립학진은 별로 튼튼하지 못한 자기의 다리를 인식하며 부러 상자를 꼭 눌러딘고 서서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나는 당신들이 원한을 품고있는 이 회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H대학교수입니다. 먼저 이 회사의 폐수로 인한 바다물오염과 공해병으로 이 땅을 하직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그리고 이 시각도 병고로 신음하는 병인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을 올리는바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주제넘는 서론이 그리 많아. 쓸데없는 소리를 쯤쯤...)

행어나 하는 기대를 갖고있던 지태육은 생감이라도 씹은듯 뚫은 인상을 지었다.

놀란것은 통성대오 전렬에 있는 박현석이었다. (립학진교수가?!)

박현석의 얼굴에 놀람과 기쁨의 감정이 엇섞여 돌았다. 오랜만에 옛스승의 연설을 들으니 불현듯 H대학에서 하던 그의 첫 강의가 재생됐다.

《불의 발견을 과학발전의 시초로 본다면 화학은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학문이다. 불이란 탄소의 환원과정이기때문이다. 나는 이 학문에 립하는 화학도들의 탐구정신에 대한 강조를 현대화학의 창시자인 라브와제의 명제 <언제나 알고있는것을 토대로 하여 알려지지 않는 현상을 연구하는것, 실험과 관찰에 의거하여 증명할수 없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것, 바로 이것이 나의 연구의 근본원칙이다.>라는것으로 대치하려고 한다.》

마치 개폐기를 넣었을 때 모터에 감긴 피대가 서서히 돌아가다가 점차 빨라지듯이 그의 강의템포도 근사하게 박력이 가해졌다. 뉴앙스가 풍부

한 그의 특유의 목소리를 박현석은 오늘도 잊지 않고있다.

지금 연단에서의 그의 연설은 승화된 궤도를 타고 박진성있게 흘렀다.

《방금 진행한 <환경처>관리의 연설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폐수에는 무서운 독성분이 섞여나가고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사가 오래전부터 대량살륙무기제작에 필요한 특수폭약을 제조하기때문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유독성물질은 이곳 해변가 지대를 무섭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회사에서 비법적으로 심야에만 배출시키는 유독성폐수의 성분과 오염도를 수자를 들어 까밝혔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군용폭약이 아니라 대량살륙무기에만 쓰이는 특수폭약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했다.

룡성대오는 삽시에 바람을 안은 숲처럼 설레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저 회사가 핵무기의 폭약을...》

《돌아가는 소리 못들었다. 지금 남조선의 중요 회사들에서 핵무기에 필요한 부분품들을 분산제작하여...》

룡성자들은 점점 긴장해지며 치를 떨었다.

속이 언짢은지 발은 기침을 하던 지태옥은 마치 감탕벼락을 맞은 사람마냥 발을 탕탕 구르며 안절부절을 못했다.

당장 내려오라고 팔을 들어 샷대질을 하자 엉거주춤 서있던 회사의 족속들이 림학진을 향해 달을 보고 짖는 강아지들마냥 정신없이 고아댔다.

그러나 그 소리는 룡성대오의 웨침소리에 삼키여져 들리지 않았다. 림학진은 룡성대오속에서 송계산기슭에서 만났던 녀인과 바다가에서 만났던 피골이 상접한 로인들, 피부병으로 까칠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네들의 원한과 저주를 한몸으로 느끼며 더욱 즐기치게 연설을 해나갔다.

《대량살륙무기제작을 목적으로 한 특수폭약생산은 우리 조국강산을 영원한 불모의 땅으로 만들려는 반민족적인 대범죄행위입니다. 우리는 힘

을 모아 미제의 조종하에 감행되는 당국의 특수폭약생산을 즉시 저지파탄시켜야 합니다.》

마라리아환자처럼 입술을 덜덜 떨며 지태옥은 발악적으로 고아댔다. 연단밑에서 발광을 하던놈들이 무례하게 림학진을 끌어내렸다. 림학진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켜낸것으로 하여 속이 후련했다. 룡성자들이 자기 말에 호응하며 세차게 물결치는 광경을 보았을 때 그는 불현듯 교반기에 촉매를 넣었을 때 화학반응이 활성화되어 보다 신속히 생성물을 형성하는것과 묘한 일치를 가져오는 투쟁원리를 감수하게 되었다. 그렇다. 물질의 화학반응은 반드시 생성물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림학진은 비록 이번에 자신의 촉매제 시험생산이 실패했다쳐도 자신의 연설이 투쟁을 촉진시키고 대중화시킬수 있다면 자신이 그대로 촉매제가 되어 룡성대오에 뛰어들것이다.

투쟁은 어차피 승리라는 생성물을 형성할것이기때문이다. 룡성대오가 달려들자 놈들은 기겁하여 엎어지며 갈광질광 달아났다.

《선생님!》

박현석은 림학진을 뜨겁게 안았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는 자네와 같은 길을 걸으려네.》

이어 박현석은 연단에 뛰어올랐다.

《여러분, 이자 림학진교수의 연설은 죄다 사실입니다. 이분은 나의 옛스승으로서 언제나 진리만을 가르친 량심적인 교수입니다. 교수선생의 연설을 듣고보니 실로 우리의 투쟁임무가 큼니다.

우리는 오늘 한갓 해변마을의 공해방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제의 핵전쟁을 목적으로 한 특수폭약생산중지를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부추기고 조장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영구분열, 우리 민족의 말살을 꾀하고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좌우하는 미제와 남조선당국의 핵무기개발책동을 반대해 끝까지 싸워나갑시다.》

룡성대오는 와 와 기세를 올리며 정문을 통과하여 회사안으로 밀려갔다. 해일처럼 들이닥치는 거세인 인파를 그 무엇으로서도 막을수 없었다.

## 마음속엔 《탄약상자》

리광훈

아들인듯 어머니듯 함께 가는 두사람  
손에는 서로 맞든 보짐이 한통구리

- 군대덕에 쉽게 가누만!  
- 괜찮아요 어머니!

주고받는 말은 평범해도  
바라보는데 가슴은 뜨거워

아 포화속을 나란히 함께 가는듯  
마음속엔 서로 맞든 《탄약상자》